

2023년도 문화재위원회

## 제11차 건축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록

- ▣ 회의일시 : 2023. 11. 16.(목), 14:00 ~ 17:30
-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 출석위원 : 전봉희, 곽동엽, 박경식, 손태진, 안선호,  
이찬희, 정광용, 최지용(탄원)  
(이상 8명)
-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문 화 재 위 원 회

# 목 차

## 【심의사항】

1	통영 세병관 내 드라마 촬영	공개
2	철원 도피안사 삼층석탑 주변 단독주택 등 신축(3차)	공개
3	순천 동화사 삼층석탑 주변 극락전 신축(재심의)	공개
4	영암 도갑사 해탈문 주변 휴게소 신축	공개
5	문경 봉암사 정진대사탑비 주변 요사채(간병시설) 건립	공개
6	안동 이천동 마애여래입상 주변 근린생활시설(사무실, 소매점) 건립(2차)	공개
7	김천 직지사 대웅전 주변 만세루, 황악루 보수 및 주변정비(재심의)	공개
8	안동 임청각 문화재보호구역 면적 정정(안)	공개

## 【검토사항】

9	홍천 수타사 대적광전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검토	공개
10	창원 성주사 대웅전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검토	공개
11	울주 천전리 각석 지정명칭 변경 재검토	공개
12	남한산성 수어장대, 송렬전 문화재 지정 및 보호구역 조정 검토	공개
13	함양 벽송사 삼층석탑 주변 선원 건립 기본설계(안) 검토	공개
14	장성 백양사 오백나한전 복원 기본설계(안) 검토	공개

## 【보고사항】

15	<p>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처리결과 보고(28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산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 주변 주거지역 위험목 제거</li> <li>- 청송 대전사 보광전 주변 주왕산 상가지구 거리환경 개선</li> <li>- 강릉 보현사 낭원대사탑비 주변 휴게시설(정자) 이동 설치</li> <li>- 제주향교 대성전 주변 오피스텔 및 아파트 신축</li> </ul>	공개
----	--	----

- 군위 아미타여래삼존 석굴 주변 이동통신 전주 설치
- 포항 보경사 적광전 주변 내연산보경사시립공원 도로개설 공사
- 구미 낙산리 삼층석탑 주변 단독주택 신축
- 칠곡 송림사 오층전탑 주변 생활용수 개발을 위한 지하굴착
- 공주 마곡사 영산전 주변 주차장 포장 및 차선도색
- 울진 구산리 삼층석탑 주변 단독주택 신축(변경허가)
- 경산 팔공산 관봉 석조여래좌상 주변 갯바위 생태탐방로 조성
- 구례 논곡리 삼층석탑 주변 산림 별채 및 수종 갱신
- 괴산 보안사 삼층석탑 주변 우량 농지 조성
- 안성 객사 정청 주변 자동차정비공장 신축 및 도로개설
- 산청 사월리 석조여래좌상 주변 단독주택 신축(변경허가)
- 창녕 영산 석빙고 주변 고계도로 보행로 설치사업
- 창녕 영산 만년교 주변 해설사의 집 교체
- 울주 간월사지 석조여래좌상 주변 관광호텔 신축
- 고령 지산리 당간지주 주변 군계획도로 확포장공사
- 청송 대전사 보광전 주변 가설건축물(임시창고) 설치
- 경산 불굴사 삼층석탑 주변 불굴사 진입로 우회도로 개설
- 영암 도갑사 해탈문 주변 사찰 방문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  
(변경허가)
- 성주 범수사지 삼층석탑 주변 임시 가설컨테이너(농막) 2동 설치
- 곡성 태안사 광자대사탑 주변 연못 방수 및 능파각 주변정비
- 제천 장락동 칠층모전석탑 주변 가설건축물(농막) 설치
- 단양 향산리 삼층석탑 주변 단독주택 신축
- 산청 단속사지 서 삼층석탑 주변 창고시설(농가용 창고) 신축(2차)
- 경주 남산 탑곡 마애불상군 주변 미디어파사드 상영

## 【심의사항】

안건번호 건축 2023-11-001

### 1. 통영 세병관 내 드라마 촬영

#### 가. 제안사항

경남 통영시 소재 국보 「통영 세병관」에서 드라마 촬영을 추진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에서 드라마 촬영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당해 문화재로 “개별심의”에 해당됨.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통영 세병관
  - 소재지 : 경남 통영시 세병로 27
  - 지정일 : 2002. 10. 14.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남 통영시 세병로 27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당해문화재에 해당됨.
  - 사업내용 : 문화재 내 드라마 촬영
    - 카메라 7기, 조명 7기 거치형
    - 병풍, 2단 등, 연회장 의자, 방석, 화문석, 연회장 테이블 및 상차림 세팅, 소반 상차림 세팅, 선율악기 세팅, 의장기 및 깃발거치대 등 설치

## 라.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의 안정성 우려
  - 문화재와 촬영내용의 연관성 부재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 부결 8명

## 2. 철원 도피안사 삼층석탑 주변 단독주택 등 신축(3차)

### 가. 제안사항

강원 철원군 소재 보물 「철원 도피안사 삼층석탑」 주변 단독주택 등 신축을 추진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 단독주택 등 신축 행위에 대하여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개별심의”에 해당됨.
- ※ ‘23년 문화재위원회 제7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23.07.20.) : 부결
  - 역사문화경관 저해
- ※ ‘23년 9월 제1차 자체회의결과(2023.09.11.) : 부결
  - 역사문화경관 저해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철원 도피안사 삼층석탑
  - 소재지 : 강원 철원군 동송읍 관우리 423번지 일원
  - 지정일 : 1987. 03. 09.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강원 철원군 동송읍 관우리 423번지 일원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문화재로부터 약 300m

- 사업내용 : 단독주택 3동 및 사무동 1동 신축

구 분	1차(불허)	2차(불허)	3차(신청)
건축면적	971.88m <sup>2</sup>	598.52m <sup>2</sup>	485.36m <sup>2</sup>
연면적	971.88m <sup>2</sup>	598.52m <sup>2</sup>	485.36m <sup>2</sup>
건폐율	6.27%	5.89%	6.14%
용적률	6.27%	5.89%	6.14%
동수	8동	5동	4동
건물현황	주택 7동 사무실 1동	주택 4동 사무실 1동	주택 3동 사무실 1동

#### 라.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경관 저해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 부결 8명

### 3. 순천 동화사 삼층석탑 주변 극락전 신축(재심의)

#### 가. 제안사항

전남 순천시 소재 보물 「순천 동화사 삼층석탑」 주변에 극락전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 극락전 신축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개별심의”에 해당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해당됨.
- ※ ‘23년 문화재위원회 제10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23.10.19)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심의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순천 동화사 삼층석탑
  - 소재지 : 전남 순천시 별량면 동화사길 208
  - 지정일 : 1985. 01. 08.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전남 순천시 별량면 동화사길 208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10m
  - 사업내용 : 극락전 신축(법회 및 설법 공간으로 활용)
    - 건축면적 : 54㎡(16.33평)
    - 건축규모 : 정면 3칸, 측면 2칸



- 건축구조 : 5량가, 익공식
- 지붕구조 : 겹처마, 팔작지붕
- 최고높이 : 7.2m

**라. 현지조사 의견(2023.11.07. /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 동화사 사역의 배치현황을 확인 한 결과, 전각이 들어설 수 있는 부지는 신청지 주변으로 판단됨.
- 다만, 극락전이 대웅전을 바라보는 배치는 전통 사찰의 위계에 맞지 않으므로 배치와 향을 조정하는 것이 좋겠음.
- 신청부지는 중심사역의 인근이므로 터파기 시에 관계전문가 입회하에 시행토록 함이 좋겠음.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현지조사의견대로 추진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 조건부가결 8명

## 4. 영암 도갑사 해탈문 주변 휴게소 신축

### 가. 제안사항

전남 영암군 소재 보물 「영암 도갑사 해탈문」 주변의 휴게소 신축을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 휴게소 신축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개별심의”에 해당됨.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영암 도갑사 해탈문
  - 소재지 : 전남 영암군 군서면 도갑사로 306
  - 지정일 : 1962. 12. 20.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전남 영암군 군서면 도갑리 52-3번지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80m
  - 사업내용 : 휴게소 신축
    - 연면적 : 101.25㎡(30.63평)
    - 건축면적 : 134.83㎡
    - 건축규모 : 단층, 정면 4칸, 측면 3칸
    -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5량가
    - 지붕구조 : 겹처마, 맞배지붕(한식기와)

- 최고높이 : 8.5m
- 재 원 : 70,000천원(시·군비)

####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신축 건물의 높이를 낮추도록 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 조건부가결 8명

## 5. 문경 봉암사 정진대사탑비 주변 묘사채(간병시설) 건립

### 가. 제안사항

경북 문경시 소재 보물 「문경 봉암사 정진대사탑비」 주변에 묘사채(간병시설)를 건립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 묘사채(간병시설) 건립에 대하여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개별검토”에 해당됨.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문경 봉암사 정진대사탑비
  - 소재지 : 경북 문경시 가은읍 원북리 481-2번지 봉암사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북 문경시 가은읍 원북리 481-3, 481-6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문화재에서 약 60m
  - 사업내용 : 원로스님을 위한 묘사채(간병시설) 건립
    - 바닥면적 : 82.37㎡(24.92평)
    - 구조 및 양식 : 한식목구조 / 민도리, 5량가, 겹처마, 맞배지붕(한식토기와)
    - 기단 및 주초 : 화강석 기단, 화강석 초석
    - 규모 : 정면 5칸, 측면 2칸, 최고높이 6.5m
    - 사업예산 : 500백만원(자부담)
    - 사업기간 : 2023. 11. ~ 2024. 10.

라. 현지조사의견(2023.11.07. / 문화재위원 ○○○)

- 사찰 내 노스님을 위한 간병시설은 필요해 보임.
- 계획된 위치 역시 사역의 전체배치와 선원위치를 고려할 때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단, 수목을 추가 식재하여 차폐환경을 보완하였으면 함.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현지조사의견대로 시행
  - 터파기 시 관계전문가 임회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 조건부가결 8명

## 6. 안동 이천동 마애여래입상 주변 근린생활시설(사무실, 소매점) 건립(2차)

### 가. 제안사항

경북 안동시 소재 보물 「안동 이천동 마애여래입상」 주변에 근린생활 시설(사무실, 소매점)을 건립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행위에 대하여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4구역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에 해당되나,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 및 높이 3m 이상의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로 개별검토 대상임.
- ※ 2023년 제9차 문화재위원회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23.09.21.) : 부결
  - 역사문화경관 저해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안동 이천동 마애여래입상
  - 소재지 : 경북 안동시 이천동 산2번지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북 안동시 서후면 이송천리 산70-1, 산 69-3번지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약 350m

○ 사업내용 : 사무실 및 소매점(농자재) 건립

- 절토높이 H=9~10m
- 식생블록(옹벽) 설치 L=87m, H=2~3m, 전석쌓기 L=94.0m, H=2~3m
- 건축구조/규모 : 4개동, 최고높이 9.83m / 경량철골구조
- 대지면적 : 4,193m<sup>2</sup>
- 건축면적/연면적 : 697.8m<sup>2</sup> / 794.6m<sup>2</sup>
- 건폐율/용적률 : 16.64% / 18.95%
- 사업기간/비용 : '23. 11. ~ '25. 10. / 492백만원

구분	부결('23. 9. 21.)	금회
옹벽	식생블록 L=181.0m	식생블록 L=87.0m 전석쌓기 L=94.0m
배치	진입로 및 1동, 4동 위치조정	
건물규모, 형태 등 기타사항	변경없음	

라. 현지조사의견(2023.09.19. / 문화재위원 ○○○)

- 해당사업은 4구역에 행해지는 것으로 건축물의 높이는 기준 내에 들어 문제 되지 않으나, 3m 이상의 절토면이 발생하여 심의대상에 해당함.
- 기존 경사지를 절토한 법면이 측방향으로 시각되고, 대지와 이웃하여 규모가 큰 기존건물과 도로가 지나고 있으므로 경관구성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임.
- 다만, 4동의 건물의 배치를 조정하고 식재 등을 하여 시각적 훼손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 원안가결 8명

## 7. 김천 직지사 대응전 주변 만세루, 황악루 보수 및 주변정비(재심의)

### 가. 제안사항

경북 김천시 소재 보물 「김천 직지사 대응전」 주변 만세루, 황악루 보수 및 주변정비를 실시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 건물 보수에 대하여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해당함.
- ※ 2023년 제10차 문화재위원회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23.10.19.)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김천 직지사 대응전
  - 소재지 : 경북 김천시 대항면 북암길 89 (운수리)
  - 지정일 : 2008. 09. 03.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북 김천시 대항면 직지사길 95
    - 1) 만세루 : 김천 직지사 대응전(보물), 문경 도천사지 동·서 삼층석탑(보물) 인접
    - 2) 황악루 : 문경 도천사지 삼층석탑(보물) 인접



○ 사업내용 : 직지사 만세루 및 황악루 보수

1) 만세루 : 누상주 목재창호, 벽체 설치 및 내부보수 등

2) 황악루 : 누상주 마루 해체/설치, 목재계단 신재설치, 범종 유물수장고 이전

구분	보류('23. 10. 19.)	금회 변경신청안	비고
만세루	누하주 판매점 리모델링	-	계획취소
	누하주 창고설치		
	계단기둥 및 난간설치	누상주 목재창호, 한식흡벽 설치	
	누상주 목재창호, 한식흡벽 설치		
	누상주 보수 (강마루깔기, 냉난방설치 등)		
황악루	강화유리 난간 신재설치	-	계획취소
	누상주 마루 해체/설치	누상주 마루 해체/설치	
	화강석계단 신재설치	목재계단 신재설치	계획변경
	-	범종 유물수장고 이전	계획추가

라. 현지조사의견(2023.11.08. /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 황악루는 누상부 마루의 퇴락이 심하므로, 이를 보수하고 계단은 목재계단으로 하는 것이 좋겠음. 아울러 누상부에 임시로 안치된 범종은 박물관으로 옮겨 보관하는 것이 좋겠음.
- 만세루는 누상부 공간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창호를 설치하되, 전통 창호로 하여 시각적환경을 고려하였으면 함. 또한 상부마루의 퇴락이 심하여 보수·보강하는 것이 필요함.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황악루는 변경신청안대로 추진

- 만세루는 전문가 자문을 받아 추진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 조건부가결 8명

## 8. 안동 임청각 문화재보호구역 면적 정정(안)

### 가. 제안사항

경북 안동시 소재 보물 「안동 임청각」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면적 정정(안) 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보물 「안동 임청각」 의 현 보호구역(문화재청고시 제2018-170호, 조정)의 조서의 내용이 현재의 지적공부 기재사항과 상이하여 이를 현행화하고자 조정(정정)검토하는 사항임.

※ 2023년 제9차 문화재위원회 건축문화재분과 검토결과(2023.09.21.) : 조건부가결  
 - 문화재보호구역 정정은 추진하되, 주차장 설계변경 기본계획(안)은 재검토

###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안동시장
- (2) 대상문화재 : 안동 임청각
  - 소 재 지 : 경북 안동시 임청각길 53 (법흥동)
  - 지 정 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보물 「안동 임청각」 문화재보호구역 정정

구 분	현 황	조 정(안)	비 고
필 지	경상북도 안동시 법흥동 15-1번지 등 78필지	경상북도 안동시 법흥동 15-1번지 등 90필지	증 12필지
면 적	28,452m <sup>2</sup>	30,408m <sup>2</sup>	증 1,956m <sup>2</sup>

- 조정사유 :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 및 필지 분할, 소유권 이전 등의 과정을 거치며 당초의 고시 내용과 현재의 지적공부 기재사항이 상이하여 이를 현행화 및 정정하고자함.

####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 원안가결 8명

【 지번 조서 】

1. 문화재구역(변경없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	안동시 법흥동	17-13	대	152	31	고성이씨 법흥문중	경북 안동시 법흥동 20	
2		17-14	대	1,068	7	고성이씨 법흥문중	경북 안동시 법흥동 20	
3		20-2	대	1,729	224	고성이씨 법흥문중	경북 안동시 법흥동 20	
4		20-3	대	952	463	고성이씨 법흥문중	경북 안동시 법흥동 20	
5		20-4	대	179	2	고성이씨 법흥문중	경북 안동시 법흥동 20	
계		5필지		4,080	727			

2. 보호구역

【당초】 (2018 보호구역 조정 고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	안동시 법흥동	15-1	대	172	172	안동시		
2		15-2	철	53	53	국 (국토교통부)		
3		15-3	대	13	13	○○○		
4		15-4	철	248	248	국 (국토교통부)		
5		15-5	철	53	53	국 (국토교통부)		
6		15-6	대	17	17	안동시		
7		16-1	대	314	314	안동시		
8		16-2	철	410	410	국 (국토교통부)		
9		16-3	철	60	60	국 (국토교통부)		

**【당초】 (2018 보호구역 조정 고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0		16-4	대	162	162	안동시		
11		16-5	철	60	60	국 (국토교통부)		
12		17-10	철	63	63	국 (국토교통부)		
13		17-11	철	7	7	국 (국토교통부)		
14		17-12	철	10	10	국 (국토교통부)		
15		17-13	대	152	121	고성이씨 법흥문중	경북 안동시 법흥동 20	
16		17-14	대	1,068	1,061	고성이씨 법흥문중	경북 안동시 법흥동 20	
17		17-1	대	112	112	고성이씨 법흥문중	경북 안동시 법흥동 20	
18		17-2	대	10	10	고성이씨 법흥문중	경북 안동시 법흥동 20	
19		17-3	대	13	13	고성이씨 법흥문중	경북 안동시 법흥동 20	
20		17-4	대	245	245	고성이씨 법흥문중	경북 안동시 법흥동 20	
21		17-5	대	397	397	고성이씨 법흥문중	경북 안동시 법흥동 20	
22		17-6	대	7	7	고성이씨 법흥문중	경북 안동시 법흥동 20	
23		17-7	철	26	26	국 (국토교통부)		
24		17-8	철	50	50	국 (국토교통부)		
25		17-9	철	43	43	국 (국토교통부)		
26		18-1	철	1,140	1,140	국 (국토교통부)		
27		18-2	철	307	307	국 (국토교통부)		
28		18-3	천	46	46	국 (국토교통부)		
29		18-4	도	314	314	국 (국토교통부)		
30		18-5	철	17	17	국 (국토교통부)		
31		18-6	도	3	3	국 (국토교통부)		
32		19-1	대	53	53	안동시		

**【당초】 (2018 보호구역 조정 고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33		19-2	철	50	50	국 (국토교통부)		
34		19-3	천	46	46	국 (국토교통부)		
35		19-4	철	251	251	국 (국토교통부)		
36		19-5	도	106	106	○○○		
37		19-6	도	56	56	국 (국토교통부)		
38		20-1	대	20	20	고성이씨 법흥문중	경북 안동시 법흥동 20	
39		20-2	대	1,729	1,505	고성이씨 법흥문중	경북 안동시 법흥동 20	
40		20-3	대	952	489	고성이씨 법흥문중	경북 안동시 법흥동 20	
41		20-4	대	179	177	고성이씨 법흥문중	경북 안동시 법흥동 20	
42		20-5	철	36	36	국 (국토교통부)		
43		21-1	대	30	30	안동시		
44		21-2	철	69	69	국 (국토교통부)		
45		21-3	천	40	40	국 (국토교통부)		
46		21-4	대	10	10	안동시		
47		21-5	철	245	245	국 (국토교통부)		
48		21-6	도	56	56	○○○		
49		22-10	철	770	770	국 (국토교통부)		
50		22-11	철	142	142	국 (국토교통부)		
51		22-12	대	539	539	안동시		
52		22-13	철	109	109	국 (국토교통부)		
53		22-14	도	56	56	국 (국토교통부)		
54		22-15	도	76	76	국 (국토교통부)		
55		22-16	도	231	231	국 (국토교통부)		
56		22-17	대	188	188	○○○		
57		22-18	대	79	79	국 (국토교통부)		

**【당초】 (2018 보호구역 조정 고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58		22-19	대	274	274	국 (국토교통부)		
59		22-1	대	83	83	○○○	경북 안동시 금곡동 32-18	
60		22-20	대	20	20	국 (도로교통부)		
61		22-2	철	116	116	국 (국토교통부)		
62		22-3	철	99	99	국 (국토교통부)		
63		22-4	철	17	17	국 (국토교통부)		
64		22-5	대	109	109	○○○		
65		22-6	철	142	142	국 (국토교통부)		
66		22-7	철	1,005	1,005	국 (국토교통부)		
67		22-8	철	86	86	국 (국토교통부)		
68		22-9	천	1	1	국 (국토교통부)		
69		269-1	철	169	169	국 (국토교통부)		
70		269	도	8,085	811	국 (국토교통부)		
71		산18-1	임	18,645	1,687	○○○		
72		산18-2	임	93	93	안동시		
73		산18-8	임	60	60	국유지 (산림청)		
74		산19-1	임	17	17	고성이씨 법흥문중	경북 안동시 법흥동 20	
75		산19-2	임	34,810	9,162	고성이씨 법흥문중	경북 안동시 법흥동 20	
76		산19-3	임	93	93	고성이씨 법흥문중	경북 안동시 법흥동 20	
77		산6-1	임	161,752	2,929	고성이씨 탑동파문중	경북 안동시 법흥동 9	
78		산6-5	임	496	496	○○○		
<b>계</b>		<b>78필지</b>		<b>237,882</b>	<b>28,452</b>			



**【변경(안)】**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	안동시 법흥동	15-1	대	172	172	안동시		
2		15-2	철	53	53	국 (국토교통부)		
3		15-3	대	13	13	○○○		
4		15-4	철	248	248	국 (국토교통부)		
5		15-5	철	53	53	국 (국토교통부)		
6		15-6	대	17	17	안동시		
7		16-1	대	314	314	안동시		
8		16-2	철	410	410	국 (국토교통부)		
9		16-3	철	60	60	국 (국토교통부)		
10		16-4	대	162	162	안동시		
11		16-5	철	1,074	1,074	국 (국토교통부)		정정 (증가)
12		17-10	철	63	63	국 (국토교통부)		
13		17-11	철	8	8	국 (국토교통부)		정정 (증가), 분할 반영
14		17-16	철	3	3	국 (국토교통부)		
15		17-12	철	10	10	국 (국토교통부)		
16		17-13	대	107	76	고성이씨 법흥문중	경북 안동시 법흥동 20	분할 반영
17		17-17	대	45	45			
18		17-14	대	1,068	1,061	고성이씨 법흥문중	경북 안동시 법흥동 20	
19		17-1	대	112	112	고성이씨 법흥문중	경북 안동시 법흥동 20	
20		17-2	대	10	10	고성이씨 법흥문중	경북 안동시 법흥동 20	
21		17-3	대	13	13	고성이씨 법흥문중	경북 안동시 법흥동 20	
22		17-4	대	245	245	고성이씨 법흥문중	경북 안동시 법흥동 20	
23		17-5	대	397	397	고성이씨 법흥문중	경북 안동시 법흥동 20	

**【변경(안)】**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24		17-6	대	7	7	고성이씨 법흥문중	경북 안동시 법흥동 20	
25		17-7	철	26	26	국 (국토교통부)		
26		17-8	철	50	50	국 (국토교통부)		
27		17-9	철	19	19	국 (국토교통부)		정정 (증가), 분할영
28		17-15	철	30	30	국 (국토교통부)		
29		18-1	철	1,140	1,140	국 (국토교통부)		
30		18-2	철	307	307	국 (국토교통부)		
31		18-3	천	46	46	국 (국토교통부)		
32		18-4	도	317	317	국 (국토교통부)		정정 (증가)
33		18-5	철	17	17	국 (국토교통부)		
34		18-6	도	3	3	국 (국토교통부)		
35		19-1	대	23	23	국 (국토교통부)		정정 (감소), 분할영
36		19-7	대	22	22	국 (국토교통부)		
37		19-2	철	50	50	국 (국토교통부)		
38		19-3	천	46	46	국 (국토교통부)		
39		19-4	철	251	251	국 (국토교통부)		
40		19-5	도	106	106	○○○		
41		19-6	도	56	56	국 (국토교통부)		
42		20-1	대	20	20	고성이씨 법흥문중	경북 안동시 법흥동 20	
43		20-2	대	1,729	1,505	고성이씨 법흥문중	경북 안동시 법흥동 20	
44		20-3	대	952	489	고성이씨 법흥문중	경북 안동시 법흥동 20	
45		20-4	대	145	143	고성이씨 법흥문중	경북 안동시 법흥동 20	분 할 영
46		20-6	대	3	3			
47		20-7	대	31	31			
48		20-5	철	36	36	국 (국토교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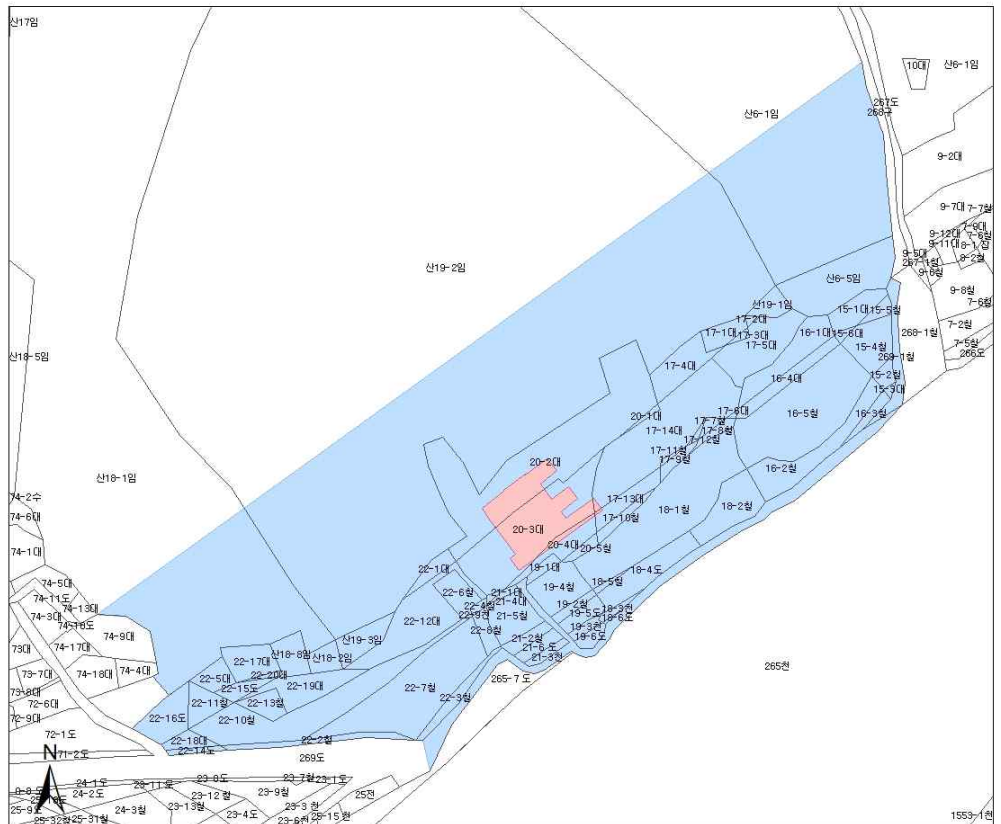
**【변경(안)】**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49		21-1	대	20	20	안동시		정정 (감분할영)
50		21-7	대	1	1	안동시		
51		21-2	철	69	69	국 (국토교통부)		
52		21-3	천	40	40	국 (국토교통부)		
53		21-4	대	10	10	안동시		
54		21-5	철	245	245	국 (국토교통부)		
55		21-6	도	83	83	○○○		정정 (증가)
56		22-10	철	194	194	국 (국토교통부)		정정 (증가, 할영) 감분할영
57		22-21	철	287	287	국 (국토교통부)		
58		22-22	철	317	317	국 (국토교통부)		
59		22-11	철	142	142	국 (국토교통부)		
60		22-12	대	539	539	안동시		
61		22-13	철	109	109	국 (국토교통부)		
62		22-14	도	56	56	국 (국토교통부)		
63		22-15	도	76	76	국 (국토교통부)		
64		22-16	도	231	231	국 (국토교통부)		
65		22-17	대	188	188	안동시		
66		22-18	대	79	79	국 (국토교통부)		
67		22-19	대	274	274	국 (국토교통부)		
68		22-1	대	83	83	안동시		
69		22-20	대	20	20	국 (국토교통부)		
70		22-2	철	116	116	국 (국토교통부)		
71		22-3	철	99	99	국 (국토교통부)		
72	22-4	철	17	17	국 (국토교통부)			
73	22-5	대	109	109	안동시			

**【변경(안)】**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74		22-6	철	142	142	국 (국토교통부)			
75		22-7	철	1,005	1,005	국 (국토교통부)			
76		22-8	철	86	86	국 (국토교통부)			
77		22-9	천	1	1	국 (국토교통부)			
78		269-1	철	38	38	국 (국토교통부)		분할영 반	
79		269-2	철	131	131	국 (국토교통부)			
80		269	도	8,085	811	국 (국토교통부)			
81		산18-11	임	1,853	1,853	○○○		분할영,적정 면적조정 (증가)	
82		산18-12	임	540	540	안동시			
83		산18-2	임	93	93	안동시			
84		산18-8	임	60	60	안동시			
85		산19-1	임	17	17	고성이씨 법흥문중	경북 안동시 법흥동 20	분할영,적정 면적조정 (증가)	
86		산19-4	임	7,118	7,118	고성이씨 법흥문중	경북 안동시 법흥동 20		
87		산19-5	임	2,280	2,280	안동시			
88		산19-3	임	93	93	안동시			
89		산6-8	임	2,878	2,878	안동시		분할영,적정 면적조정 (감소)	
90		산6-5	임	496	496	안동시			
<b>계</b>			<b>90필지</b>		<b>38,409</b>	<b>30,408</b>			

# 【 지형도면 (당초) 】



보물 제182호  
 안동 임청각  
 安東 臨淸閣  
 경상북도 안동시 범흥동 2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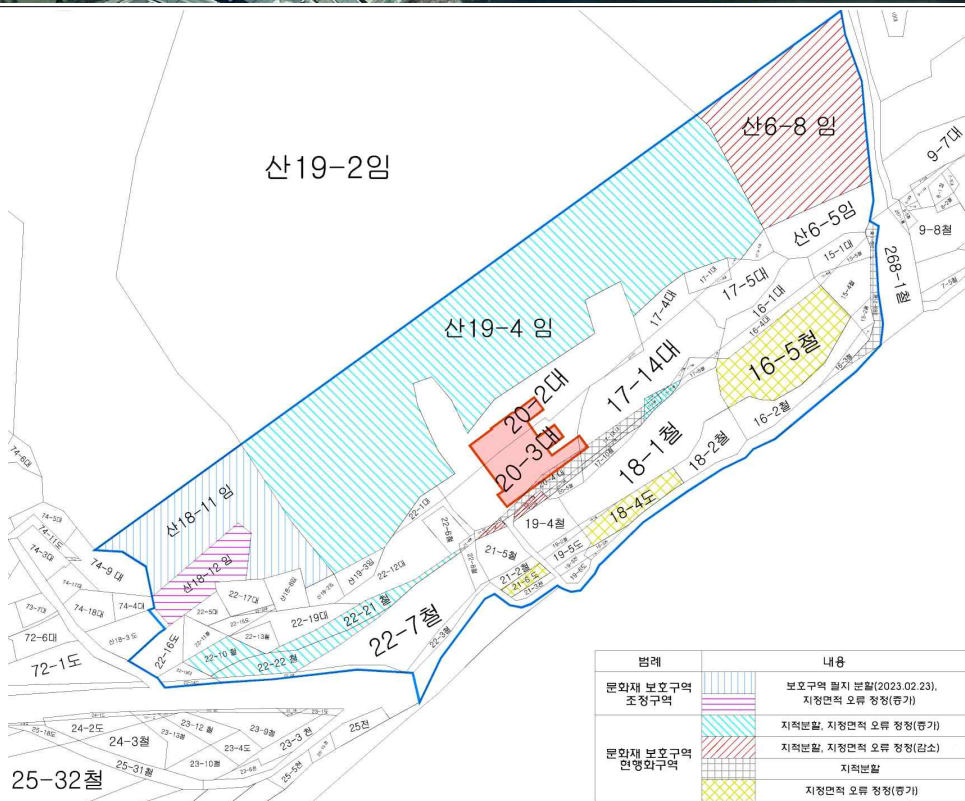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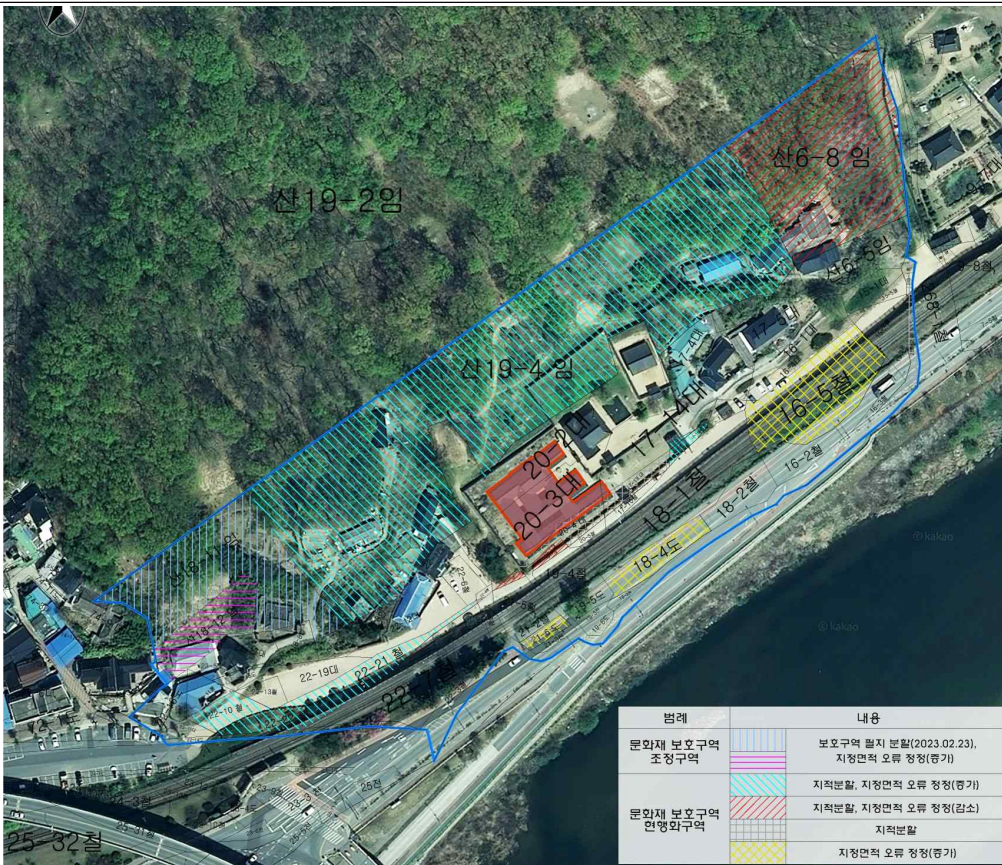
범례

- 문화재
- 보호구역
- 연속지적

축척 1:1,200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 【 지형도면 변경(안) 】



## 【검토사항】

안건번호 건축 2023-11-009

### 9. 홍천 수타사 대적광전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검토

#### 가. 제안사항

강원 홍천군 소재 「홍천 수타사 대적광전」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강원 홍천군 소재 「수타사대적광전」을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 받고자 하는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강원도지사
- (2) 대상문화재 : 시도유형문화재 「수타사대적광전」
  - 소재지 : 강원 홍천군 수타사로 473(영귀미면)
  - 지정일 : 1971. 12. 16.
- (3) 신청내용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 명칭 : 홍천 수타사 대적광전(洪川 壽陀寺 大寂光殿)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수타사
  - 소재지 : 강원 홍천군 영귀미면 수타사로 473
  - 조성연대 : 조선시대
  - 수량 : 1동
  - 지정면적 : 156.6m<sup>2</sup>
  - 구조/형식/형태 : 목조 / 와가 / 팔작지붕

라. 현지조사 의견(2023.02.23. / 문화재위원 ○○○, 문화재 전문위원 ○○○·○○○)

- 문화재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 문화재전문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 문화재전문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 원안가결 8명



##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23.02.23	대상문화재	홍천 수타사 대적광전	
조사자	성 명	○○○	전공 분야	건축역사
	소 속	○○대학교	직위(직책)	교수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문화재 명칭	홍천 수타사 대적광전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세부내용 별첨 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3 년 5 월 4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 1. 입지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홍천 수타사 대적광전은 강원도 홍천군 영귀미면 수타사로 473(덕치리 9번지)에 소재한다. 대한불교 조계종 월정사의 말사이다. 영귀미면은 홍천읍의 동쪽에 자리한 면으로서, 1917년 동면으로 개칭되었다가 2021년 주민의 청으로 원이름을 되찾았다. 홍천군을 서에서 동으로 관통하는 홍천강(일명, 華陽江)의 지류인 덕치천, 성수리천, 개운천 등이 가지를 뻗듯 펼쳐진 주변으로 작지만 비옥한 경지를 가지고 있다. 수타사는 그 가운데 가장 위에 있는 덕치천 계곡의 중류 유역에 있으며, 덕치천과 홍천강 본류 사이에 있는 공작산(孔雀山, 887.4m) 아래에 있다. 공작산은 한국의 명산 100에 선정될 정도로 경치가 아름다운 산으로 인근에서 가장 높고 가파른 곳이기도 하며, 세조의 비인 정희왕후(貞熹王后)의 태실이 있었다고 전한다. 수타사는 홍천읍으로부터 직선거리 6km 남짓 거리의 가까운 곳으로 수타사 주변의 덕치천 계곡을 따라서 수타사 농촌테마공원과 오토캠핑장, 공작산 생태숲, 수타사 생태숲, 수타사 산소길 등 유원지가 개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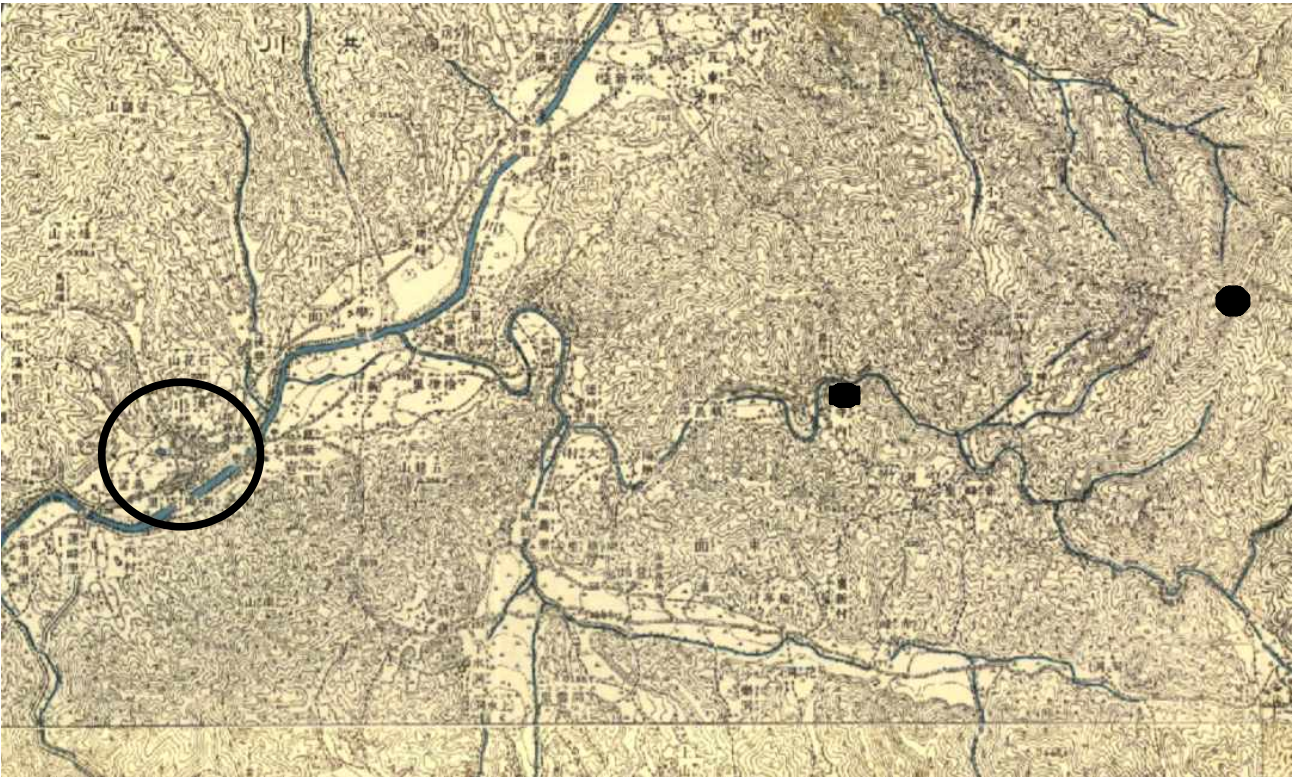


그림 1 홍천읍과 수타사, 공작산 정상의 위치  
(바탕지도 출처 : <http://map.ngii.go.kr/ms/map/NlipMap.do?tabGb=daedong>)

수타사는 비록 공작산 아래에 있다고 하지만, 공작산의 기슭에 바로 자리한 것이 아니고, 덕치천 건너편에 서향을 주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 입지는 아래의 그림2.에서 보듯, 고리 모양으로 생긴 동그란 지형의 가운데 조금 불룩한 곳의 서사면이 된다.

『홍천 수타사 대적광전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신청보고서』(홍천군, 2022. 이하 『신청 보고서』로 약함)에선 이러한 입지를 풍수지리적으로 ‘공작포란지지(孔雀抱卵之地)’의 명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마침 등고선이 표기된 지도를 보면 말 그대로 수타사가 자리한 작은 봉우리를 주변의 산세가 감싸고 있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다. (그림 2. 및 그림 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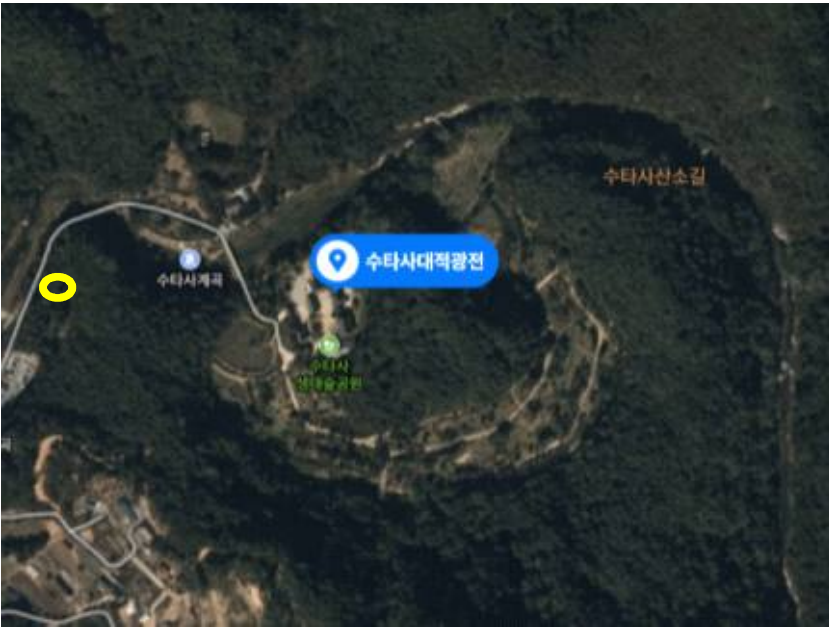


그림 2 수타사 주변의 지형(좌측 원은 승탑들의 위치)



그림 3 수타사가 자리한 주변의 등고선 (1970년대 지도)

공작산이 인근에서 가장 높은 산이고 사방으로 많은 계곡을 가지고 있으니 사찰이 들어설 만하다. 사찰 측에 전하는 사적기류의 자료들에서는 8세기 초 원효(元曉)가 우적산(牛跡山) 아래에 창건한 일월사(日月寺)에서 비롯하였다고 하나, 원효의 생존 시기 등을 고려하면 근거가 약하다. 다만 강원도 영서지역에 불교문화가 전파되는 역사적 상황과 홍천 읍내에 있는 삼층석탑의 조성 시기 등을 고려할 때, 9세기경으로 창건의 시기를 올려 잡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다시 사적기류의 기록을 따르면, 지금의 자리에 사찰이 자리한 것은 조선 선조 연간인 1567년~1572년경이었다고 전하며, 사찰의 이름 역시 이때 일월사(日月寺)에서 수타사(水墮寺)로 개칭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관찬 지리지인 『신증동국여지승람』(1530) 「洪川縣」 「佛宇」 조에 ‘水墮寺 在孔雀山’이라는 기록이 있어, 이 책이 간행된 1530년, 나아가 ‘신증’ 이전의 기록이므로, 『동국여지승람』의 수정본이 완성된 1484년(성종 17)에는 이미 수타사로 개명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다시 한자를 바꾸어 수타사(壽陀寺)로 이름을 바꾼 것은 1811년(순조 11)의 일이라고 한다.

현재 사찰 내에는 1636년(인조 14)에 세운 대적광전 외에 1658년(효종 9)에 세운 흥회



루(興懷樓, 도 유형문화재 제172호), 1674년(현종 15)에 세운 봉황문(鳳凰門) 등의 건축물과 1670년(현종 11)에 조성한 동종(보물 제 11-3호), 1676년(숙종 2)에 조성한 소조사천왕상(도 유형문화재 제 121호) 등 17세기의 연기를 갖는 불교 유적이 다수 남아있고, 7기의 부도와 2기의 탑비가 있다.

수타사 동종은, 조선 중기의 유명한 승려 장인인 사인(思印) 비구가 제작한 것으로서, 그의 소작으로 확인된 8기의 동종이 일괄 보물로 지정되었다. 그 8개의 동종은, (1) 포항 보경사 서운암 동종(1667, 5개의 유두), (2) 문경 김룡사 동종(1670, 직지사 성보박물관 소장, 용뉴, 십자형 당좌무늬), (3) 홍천 수타사 동종(1670, 용뉴, 십자형 당좌무늬), (4) 안성 청룡사 동종(1674, 용뉴와 대통), (5) 서울 화계사 동종(1683, 원 영주 희방사, 쌍룡뉴), (6) 통도사 동종(1686, 8괘를 새김), (7) 의왕 청계사 동종(1701), (8) 강화 동종(1711, 198cm x 138cm, 가장 크고, 먼저 보물로 지정) 등으로서, 1667년부터 1711년까지 45년간에 걸쳐 있으면서, 명문을 가지고 있고, 모두 크기와 형태, 문양과 구성에서 조금씩 차이를 갖는다. 이 때문에 이들 8기의 동종은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초에 걸치는 기간 우리나라 동종의 변천사를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된다. 특히 수타사의 동종은 당좌(撞座)에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 없는 십자로 뻗어나간 불꽃 문양을 갖고 있으며, 용뉴는 있지만 용통은 없는 절충적 성격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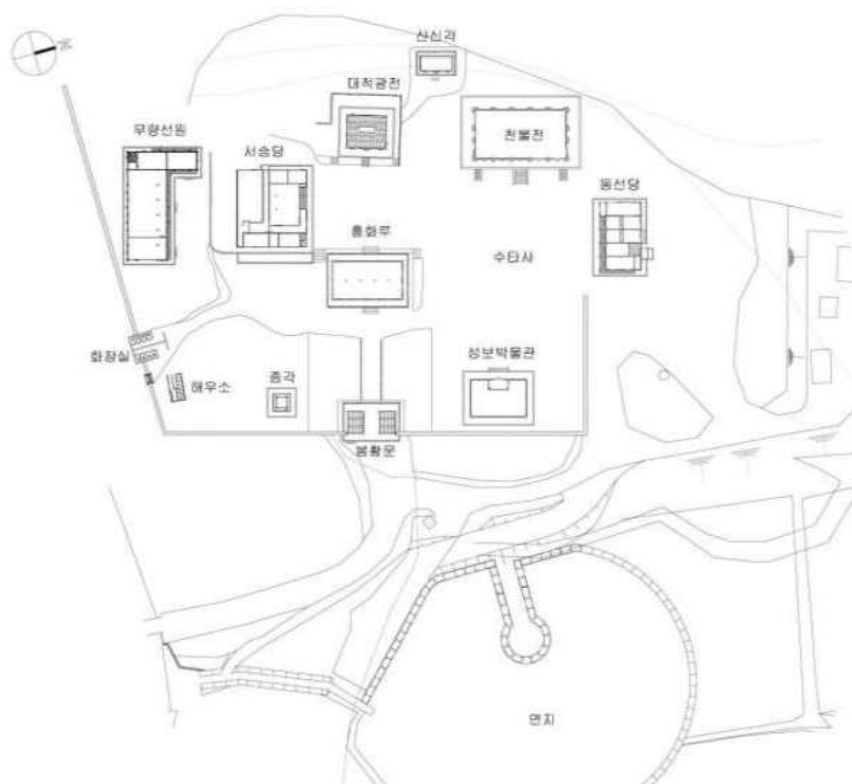


그림 4 홍천 수타사 배치도 (『신정보고서』에서 전재) 승탑과 승탑비는 봉황문으로부터 약 400m 앞의 진입로 상에 있다.

또 승탑비 가운데 수타사와 관련된 많은 일화를 남기고 있는 서곡대사 찬연(粲淵, 1702-1768)의 탑비인 서곡당 선사탑비(瑞谷堂禪師塔碑, 1769)는 조선 중기의 명신이자 이름난 서화가인 김상숙(金相肅, 1717-1792)이 글씨를 쓰고 그의 형인 김상복(金相福, 1714-1782)이 글을 지은 것으로 서예사의 주요한 자료가 된다.

같은 18세기의 유물로, 영상회상도(靈山會上圖, 1762년, 도 유형문화재 제122호)와地藏시왕도(地藏十王圖, 1776년, 도 유형문화재 123호)가 있는데, 각각 금어진찰과 비구설훈이 그린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목조관음보살좌상과 복장유물은 일괄로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76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1758년 화승 순경(順瓊)과 덕순(德淳)의 제작이다. 위 탑비의 주인인 서곡대사와의 관련을 생각해볼 수 있다.

수타사가 소장하고 있는 유물 가운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월인석보』 권17, 권18 1책(보물 제757-5호)이다. 1918년 이능화의 『조선불교통사』에 그 존재가 처음 언급된 적이 있다 하나, 세상에 널리 소개된 것은 1957년의 일이다. 현재 『월인석보』는 14권 12책 정도가 전할 뿐인데, 수타사에서 전한 간본은 기존 유전본에서 빠진 유일본이며, 1459년(세조 5)의 초간본으로 추정되어 더욱 가치가 있다.

이 『월인석보』의 간본이 발견된 곳은 봉황문 안에 있는, 사천왕상의 하나인 지국천왕상이다. 수타사 사천왕상은 소조상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과연 소조상답게 높이가 3.2m에 달하는 큰 규모이며 17세기 소조 사천왕상의 유행시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역사적 가치가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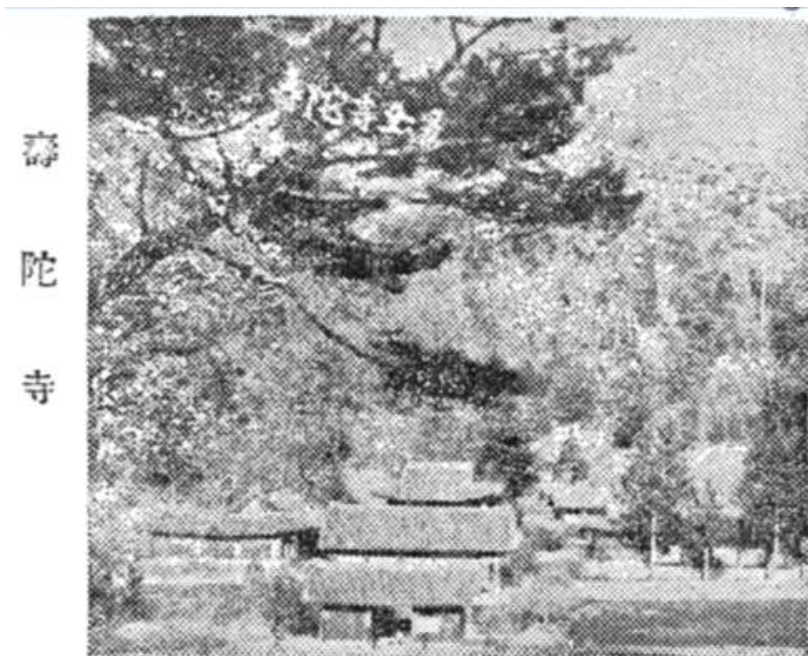


그림 5 1959년 6월 4일자 조선일보

## 2. 연혁

수타사의 주불전은 비로자나불을 모신 대적광전이다. 지형의 경사를 따른 동-서의 축을 따라, 서쪽으로부터 조금씩 올라가면서 봉황문-홍회루-대적광전이 앞뒤로 나란히 있다. 강원도의 많은 사찰이 한국전쟁 기간에 피해를 보았던데 반해, 수타사는 근현대기에 많은 경관의 변화가 있었지만, 이 중심축만큼은 17세기 중창기의 원형을 대체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타사의 내력을 정리한 사찰 측의 기록으로는, 『홍천현 동 공작산 수타사 사적(洪川縣東孔雀山水墮寺事蹟』(1688년)과 『건봉사 급 건봉사 말사 사적(乾鳳寺及乾鳳寺末寺事蹟』(1928년)<sup>1)</sup>에 수록된 ‘홍천현 동 공작산 수타사 사적(洪川縣東孔雀山水墮寺事蹟’ 등의 사적기 외에, 수타사 범종의 「명문」(1670), 「신건 운수암기(新建雲水庵記)」(1690), 「화산현 동령 공작산 수타사 중복 개와기(花山縣東嶺孔雀山水墮寺重覆蓋瓦記)」(1709), 「수타사 상주 비로불 개금기문(水墮寺常住毘盧佛改金記文)」(1762년), 「공작산 수타사 개와기(孔雀山水墮寺蓋瓦記)」(1764), 「공작산 수타사 중수기(孔雀山水墮寺重修記)」(1861) 등의 기문들이 있다.

먼저, 창건에 대해서는 두 건의 사적기의 내용이 매우 자세한데, 두 기록 모두 신라의 고승 원효(元曉, 617-686)의 창건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 시기는 당(唐) 중종(中宗) 경룡(景龍, 707-710) 연간 혹은, 신라 성덕왕 7년 무신(戊申, 708)으로 특정하고 있어 시기에 착오가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수타사가 우적산(牛跡山)에 일월사(日月寺)로 창건되었으나, 명(明) 목종(穆宗) 융경(隆慶, 1567-72) 연간 혹은, 조선 선조 2년 기사(己巳, 1569)에 공작산 아래로 이관하면서 수타사(水墮寺)로 개명하였다는 내용이 두 사적기에서 반복된다. 그런데 관찬 지리지인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1530) 「洪川縣」 「佛宇」 조에 이미 수타사(水墮寺)가 공작산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으므로, 늦어도 1530년, 혹은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의 수정본이 완성된 1484년에는 이미 위치도 옮기고 이름도 바뀌었다는 것이 확인된다.

두 건의 사적기 가운데 숙종조에 쓰여진 사적기가 중국의 연호로 기간을 표기한 데 비해 만해 한용운(韓龍雲, 1879~1944)이 지은 근대기의 사적기엔 우리나라의 왕력으로 해를 특정한 것이 흥미롭다. 240년 뒤의 기록이 더 자세한 셈이다. 이처럼 두 사적기의 내용 가운데 임진왜란 이전의 기록은 그대로 따르기 어려운 점이 많다.

한편, 사찰 내에는 고려 시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삼층석탑이 남아있을 뿐 아니라, 인근

1) 건봉사의 말사로, 백담사, 신흥사, 낙산사, 화암사(禾巖寺), 명주사(明珠寺), 영혈사(靈穴寺), 수타사, 심곡사(深谷寺), 오제암(烏啼庵)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한 곳에서 신봉리사지 석탑(영귀미면), 희망리 삼층석탑(홍성읍), 쾌석리 삼층석탑(두촌면), 양덕원 삼층석탑(남면) 등 같은 시기의 비슷한 석탑들이 다수 남아있어서, 고려시기에 수타사가 운영되었음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조선 전기까지 이어져서 『동국여지승람』에도 기록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15세기엔 세조의 비이자, 예종과 성종 초에 걸쳐서 수렴칭정을 실시하였던 정희왕후의 태실이 공작산에 모셔지는 일이 있었는데, 이에도 수타사의 관여가 있었으리라 짐작된다.

임진왜란 이후의 기록은 더욱 자세하며 비교적 신빙성이 있다. 그 내용을 두 사적기의 내용과 함께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홍천형 동 공작산 수타사 사적』 / 『건봉사 급건봉사 말사 사적』의 순, 대적광전과 직접 관련 있는 것은 밑줄 및 굵게 표기, 두 기록에 차이가 있는 것은 \* 표기)

**1636년(인조 14) 공장(工峯) 법사(法師) 법당 중창 / 공잡 대적광전 중건**

- 1639년(인조 17) / 계일(戒一) 백련당 건립\*
- 1644년(인조 22) 학준(學俊) 선백(禪伯) 선당 중창 / 학준 선당 중건
- 1647년(인조 25) 계철(戒哲) 승가(僧伽) 승당 중창 / 계철 승당 중건
- 1650년(효종 1) 도전(道詮) 사문(沙門) 정문 중창 / 도전 정문 중건, 쌍계암 창건\*
- 1658년(효종 9) 승해(勝海), 정명(正明) 상인(上人) 홍회루 신건 / 승해, 정명 홍회루 중건
- 1670년(효종 11) 정특(正特), 대상(大尙), 천읍(天揖) 대덕(大德) 대중 주조, / 정특, 대상, 천읍, 대중 주조
- 1674년(효종 15) 법륜(法倫) 사문(沙門) 봉황문 신건 / 법륜 봉황문 창건
- 1676년(숙종 2) 여담(如湛) 사문(沙門) 사천왕상 신건 / 여담 사천왕상 조성
- 1677년(숙종 3) 천해(天海) 우바새(優婆塞) 청련당 신건 / 신사 청해 청련당 신건
- 1680년(숙종 6) 여민(汝敏) 사문(沙門) 향적전 신건 / 여민 향적전 건립
- 1681년(숙종 7) 지해(智海), 지행(智行) 도리(闍利) 백련당 중창 / 지해 지행 백련당 중건
- 1682년(숙종 8) 성민(性敏), 찬징(贊澄), 선찰(善察) 화상(和尚) 송월당 신건 / 성민 찬징 선찰 송월당 창건\*
- 1683년(숙종 9) 성념(省念), 찬원(贊源), 상서(尙嶼) 삼화(三和) 영월당 신건 / 성념 찬원 상홀(尙屹) 영월당 창건
- 1688년(숙종 14) [정원(淨源) 씌] / 상봉(霜峰) 운수암 창건
- 1709년(숙종 35) / 축초(竺草) 번와**
- 1762년(영조 38) / 찬인(贊仁), 신법(信法) 대적광전 불상개금, 후불탱조성**
- 1764년(영조 40) / 혜징(惠澄) 번와**
- 1811년(순종 11) / ‘水墮寺’를 ‘壽陞寺’로 개칭
- 1861년(철종 12) / 윤흡(潤洽) 수타사 중수**
- 1869년(고종 6) / 덕파(德波) 승당 중건
- 1878년(고종 15) / 옥수암 중수

1882년(고종 19)	/ 덕파(德波) 대적광전 중수
1885년(고종 22)	/ 승흠(勝欽), 태연(泰演), 처경(處璟) 대적광전 단청
1903년(광무 4)	/ 취운(翠雲) 선당 중수
1910년(융희 4)	/ 설봉(雪峰) 대적광전 중수
1912년	/ 건봉사 말사 편입, 주지 이설봉(李雪峰)
1915년	/ 주지 김대오(金大悟)
1921년	/ 주지 정인목(鄭仁穆)
	/ [1928년 출간]

사적기의 내용은 여러 방증자료로 교차 확인된다. 우선, 수타사 동종의 명문(1670년)에 는, 수타사를 1636년(崇禎 丙子)에 중창하고, 이후 1658년(順治 戊戌)까지 여러 전각을 모두 지었다고 하여, 위 사적기의 내용과 일치한다. 또, 2006년과 2012년 보수공사 시 에 각각 고주 보아지와 불단 내부에서 목서를 발견하였는데, 지워지거나 가려진 부분 들이 있어 정확한 판독이 어렵지만, 계일(戒一)과 도진(道鎔) 등 관여한 승려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어서, 두 사적기의 기록에 대한 신빙성을 높여 주고 있다. 1709년의 번와 공사와 1861년의 중수공사, 1885년의 단청공사 등도 「花山縣東嶺孔雀山水墮寺重覆蓋瓦記」(1709), 「孔雀山水墮寺重修記」(1861), 「江原道洪川縣東有孔雀山水墮寺法堂重創丹腹記文」(1885)<sup>2)</sup> 등의 기문이 전한다.

한편, 1885년의 기문에서는, 창건은 오래전의 일이고 그 중간의 사정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당시(壬午, 1882년)의 중창이 5중창에 해당하며, 4중창은 66년 전인 지지난 정축(丁丑)년 즉, 1817년의 일이라고 적고 있다. 이 4중창의 기록은 『건봉사 급 건봉사 말사 사적』에는 기록되지 않은 내용이다. 게다가 사적기에선 1811년에 ‘壽陞寺’로 개 명하였다고 하였는데,<sup>3)</sup> 1885년의 기문에서 여전히 ‘水墮寺’로 적고 있는 점도 어울리지 않는 점이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수타사 대적광전은, 1636년에 지은 건물이며, 1709년, 1764년 에 번와하였고, 1817년에 중창하고, 1882년에 중수하고, 1885년에 단청을 새로 하였음 을 확인할 수 있다. 대개 60년~100년 간격으로 보수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근대 이후로는 최근 조선총독부 문서를 통해 확인된 1932년 중수번와, 1945년 중수, 1982년 중수번와, 2006년 해체수리, 2009년 단청공사, 2012년 보수공사 등이 있었다.

### 3. 건축적 특징

2) 『홍천 수타사 대적광전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신청보고서』(홍천군, 2022. p.203에 인쇄본이 실려있다. 개명하였다고

3) 또 다른 자료에선 1878년(고종 15)에 개명하였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1885년의 기사와는 배치된다. 상당 기간 두 표 기법이 함께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



수타사 대적광전은 비로자나불을 모시는 수타사의 주불전으로서, 사찰의 중심축 선상 중앙에 있는 너른 마당을 앞에 두고 3단의 가공석 기단 위에 있다. 정면 3칸, 측면 3칸의 다포계 단층 팔작집으로, 일반적인 사찰의 주불전으로서는 작은 규모이고, 공포의 짜임과 배열도 주불전으로서는 작고 간소한 구성을 가지고 있으나, 사찰 내에서의 위치와 건축적 완성도에 있어서는 높은 격식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6 수타사 대적광전 (2023.2.23. 촬영)

기단은 지형의 경사를 이용하여, 전면이 높고 후면이 낮은 경사지형 기단으로 만들었는데, 전면에는 폭이 넓고 높이가 낮은 지대석을 한 단 깔고 그 위에 평탄하게 가공한 기단석을 2층으로 줄을 맞추어 쌓았다. 측면과 후면엔 최상단의 기단석만 노출되어 있다. 정면의 중앙부에 기단으로 오르는 계단으로 장대석을 6단 쌓아 만들어 두었고, 기단 바깥의 좌우로도 중앙 계단과 나란한 5단의 돌계단을 두었다. 역시 장대석을 쌓아 만들었고, 소맷돌을 두지 않았다.

그 계단 우측 기단 앞에 특이한 형태의 석주(石柱)를 두었다. 기둥의 주신은 모를 죽인 사각 기둥 모양으로 다듬고 기둥머리엔 초각을 하여 장식하고 그 위에 반구형의 돌을 이고 있다. 또 돌기둥의 아래 부분도 다시 원형으로 가공한 좌대를 두고 있다. 주신의 전면에 '〇〇年陰六月十五日竣功'이라고 음각되어 있다. 사찰 측에서는 부처님께 공양수

를 바치는 청수대(淸水臺)라고 하고, 마침 그 모양이나 형태가 마치 불전에 무언가를 공양하는 듯하다고 생각되지만, 유사한 예를 보지 못하였고, 기록도 찾지 못하여 그 용도와 유래에 관해선 확인하지 못하였다. 다만 연기(年紀)가 지워진 것으로 보아서 일제 강점기에 만든 것이라는 세간의 설이 설득력이 있다.

평면은 정면 3칸, 측면 3칸으로서, 정면의 칸치수는 전후면 가운데 정칸이 3,300mm, 좌우 협칸이 2,190mm, 그리고 측면의 경우는 좌우 협칸이 2,240mm, 정칸이 2,160mm이다. 건축 후 오랜 시간이 지났고, 또 시공 오차 등을 고려하면, 영조척을 314mm 정도로 보았을 때 전후면의 정칸은 10자반, 그 외의 칸들은 모두 7자 정도로 계획한 것으로 생각된다. 즉, 전후면의 정칸과 다른 칸의 비율은 3:2의 비율로 계획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비례는 기둥 위 포의 배열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전후면의 정칸에만 주간포를 2구 두고, 그 외의 칸에서는 모두 주간포를 1구씩 두었으므로, 모든 칸에서 포간 거리는 동일하게 된다.

기둥은 모두 두리기둥을 사용하였는데, 내부엔 전열의 내주 2분을 생략한 대신, 후열의 내주 2분은 고주로 처리하여서 후불벽을 달았다. 말하자면 감주만 있을 뿐 이주는 없는 정치법을 사용하였다. 크기는 바깥 둘레 기둥은 아래 부분의 지름이 389mm~448mm 사이의 크기를 갖는데, 전반적으로 모퉁이 기둥이 굵고(414~448mm), 변주들이 작다(389~424mm). 내부의 후열에 있는 내고주도 굵기는 비슷하여 각각 408mm와 412mm의 하부 지름을 갖는다. 한편, 기둥 상부는 하부에 비하여 지름의 크기가 32mm~51mm 정도 작게 가공하여 뚜렷한 민흘림을 두었다. 높이는 바깥 둘레 기둥이 약 3,260mm, 내고주가 4,720mm로, 내고주가 약 4자 반 정도 길다. 또, 전후면 정칸의 경우 기둥 사이의 중심거리와 기둥의 높이가 거의 같아 정방형의 비례를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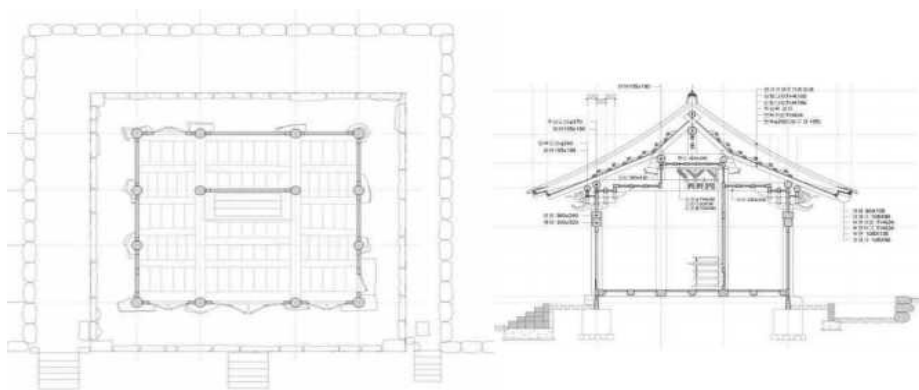


그림 7 수타사 대적광전 평면도와 단면도 (『신청보고서』에서 전재)

기둥 머리에 홈을 파서 창방을 짜넣고, 그 위에 평방을 사방으로 두른 다음 주두와 대접을 두고 외1출목 내2출목 공포를 짜올린 것은 사방 모두 같다. 그러나 전후면 주상

포에서는 3제공 위에서 대들보(전면)와 퇴보(후면)를 받치고, 양 측면 주상포는 충량(양측면의 전열)과 퇴보(양측면의 후열)를 받치고 있는 점이 모퉁이의 전각포나 주간포와 차이가 나는 점이다.

공포의 형식이 외1출목, 내2출목으로 되어 있는 점은 사찰의 주불전으로서는 다소 간소한 형식이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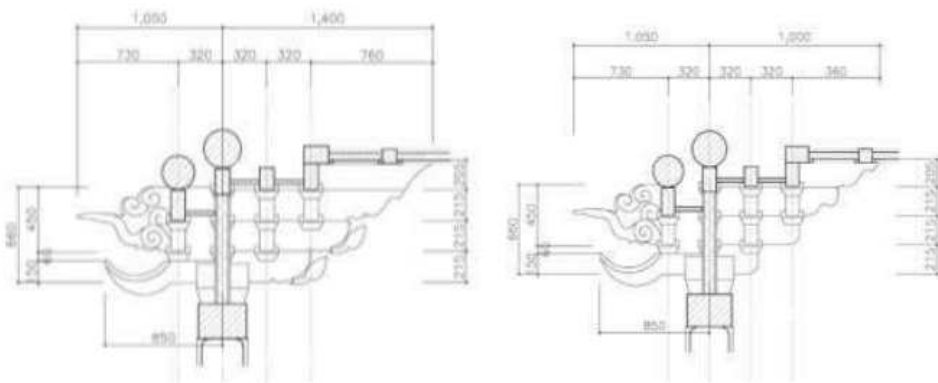


그림 8 수타사 대적광전의 주상포와 주간포 (『신청보고서』에서 전재, 주상포의 경우 내 3제공 위에서 바로 보를 받친다. 그러므로 도면에서 주상포 위에 내 4제공처럼 표기한 선은 오류이다. 아래 사진 참조)



그림 9 수타사 대적광전의 공포 내부 모습



그림 10 수타사 대적광전의 공포 외부 모습

위의 그림8.와 그림9. 및 10.에서 보듯, 외부 제공의 초각은 초제공은 양서로 하고, 출목 소로에서 행공 첨차와 짜이는 이제공은 윗면이 수평선을 갖는 익공형 초각을 하였

다는 점에서 주상포와 주간포의 차이가 없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차이가 있어서, 주상포에서는 보를 받치는 3제공까지 각 제공의 내단에 모두 초각을 둔 것에 반해, 주간포의 경우는 초제공, 이제공은 교두형으로 간략히 마감하고, 삼제공과 사제공에서만 길게 뺀어 초각을 하였다.

일반적으로 제공의 하단을 소로의 위치에 맞추어 끊어서 교두형으로 가공한 것을, 길게 뺀어 초각을 둔 것보다 고식으로 보는데, 수타사 대적광전의 내부 제공에서는 이 두 가지의 형식이 섞여서 사용된 것이다. 게다가 주간포에서 보는 것처럼, 단지 넝쿨무늬의 초각을 둔 것에 그치지 않고 여기에 연봉을 덧붙여 장식한 것(주간포의 초제공과 이제공)과 내부 제공들이 한 몸으로 엮여 판재로 구성되어 살미처럼 가공한 것 등은 조선 중기의 것으로 보기엔 좀 이례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흔히 고식 공포의 하한으로 여겨지는 조선 중기의 모습과 조선 후기의 모습이 뒤섞여 보이는 것은 제공의 외부 가공에서도 엿보인다. 즉, 초제공의 양서는 조선 중기라고 보기엔 곡률이 강하게 휘어서 올라간다. 반면, 건물의 네 모퉁이 평방 뿔목 아래에 있는 창방의 뿔목 하단의 초각은, 별도의 장식적인 부재의 추가가 변잡함이 없이 일반 보아지와 같은 간략한 마감을 하여서 조선 중기적인 모습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또, 주두와 대접도 폭보다 높이가 높은 비례를 갖는데, 이 역시 조선 중기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공포 구성 부재의 세부 가공과 초각 등을 통해서 보는 시기적인 특징은 전체적으로 현재 건물의 건축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1636년의 연기에 부합되는 것으로 보이며, 단지 제공의 일부 초각에 있어서는 1817년의 중창과 1882년의 중수 시에 부분적인 변경이 더해졌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한편, 수타사 대적광전은 기본적인 기둥의 구성과 공포의 배열, 보와 대공 및 동자주, 도리와 서까래 등의 짜임으로 이루어진 상부 가구의 구성이 조선 후기의 다른 건물들에서 보기 힘든 독특함을 가지고 있어서, 건축적 가치가 높다. 상부의 지붕틀은 1고주 5량가의 가구법에 쫓아서, 전후열의 둘레 기둥 위에 주심도리를 각각 두고, 중도리의 경우 전열의 중도리는 대들보 위에 있는 동자주 위에 두고, 후열의 중도리는 고주 위에 위치한다. 이때 대들보 위에 있는 동자주의 위치와 고주의 위치가 측면 벽에 있는 두 기둥과 나란한 자리에 놓여 있어서, 전열 기둥에서 동자주까지의 간격과 동자주에서 고주까지의 간격, 그리고 고주에서 후열 기둥까지의 간격이 같게 된다. 이 말은 곧 주심도리에서 중도리까지의 간격과 전후열의 두 중도리 사이의 간격이 같다는 의미이며, 상부 지붕틀이 3분변작법을 따라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려준다.

3분 변작법을 지키고 있다는 것은 주심도리와 중도리 사이에 걸리는 장연의 길이가 다른 건물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길다는 의미가 되는데, 측면에서도 전후면과 같이 긴



장연을 사용함으로써, 측면에 놓이는 장연의 뒷 뿌리가 종보에 바로 걸쳐져 있다. 즉, 외기도리를 사용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기법은 다포계 팔작집에서 매우 드물게 사용되는 것으로, 이제까지 알려진 것으로는 김제 금산사 대장전(1635), 서울 봉원사 대웅전(1748), 강릉 보현사 대웅전(1855) 등에 불과하다.<sup>4)</sup> 선행 연구에서 양재영은 이와 같이 외기를 사용하지 않고 팔작지붕을 구성하는 방식을 17세기 초반의 특징적인 기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sup>5)</sup>

실내 공간은 바닥에는 모두 우물마루를 깔았고, 천장면은 우물반자를 전체에 가설하였다. 다만 천장의 경우 3칸x3칸의 면적 중 한 가운데 놓인 1칸x1칸 부분은 다른 곳보다 높게 천장을 둔 감입(嵌入) 천장으로 하고, 그 자리에 단집을 달아 아래에 있는 불단 위 불상을 덮고 있다. 즉, 주변부의 천장 반자는 대들보의 아래 3분의 1 높이에 맞추어 달았고, 중앙칸에서는 종보에 맞추어 달았다. 단집은凸자형으로 두 번 돌출한 전각모양으로 만들고 창방과 평방 아래에 기둥이 달대공처럼 내려와 연꽃 모양의 장식으로 마감하고, 내부 천장에는 용을 가공하여 달았고, 주변에 극락조와 주악비천상, 백련 등으로 장식하였으며, ‘적멸궁(寂滅宮)이라 편액하였다.



그림 11 수타사 대적광전의 실내 불벽과 천장

이외에도 수타사 대적광전에는 6개의 작은 종이 달린 긴 목재를 용 모양으로 가공한 독특한 종걸이가 실내공간의 향좌측 대들보 아래에 걸려있고, 지붕의 용마루 중앙에

4) 서효원, ‘홍천 수타사 대적광전의 가치와 진정성 논의’, 『2020 홍천 수타사 대적광전 학술 심포지엄 자료집』, 2020. 홍천군. pp.43-60. 참조

5) 양재영, 『조선시대 다포식 건축의 가구 발달과정에 관한 연구』, 고려대 박논, 2012. (서효원, 위의 글에서 재인용)

두 개의 창기와로 구운 수키와가 놓여 있는 등 특색있는 모습을 보인다.

창호는 전면에는 분합문을 주칸에 맞추어 채워 넣었는데, 정칸에는 사분합문, 양 협칸에는 이분합문을 두었다. 측면에서는 현재는 향우측면의 앞쪽 제1칸에 외여닫이문을 두었는데, 수장재의 구성을 보면 원래는 향좌측 벽의 마주보는 면에도 문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수타사 대적광전에서 특이한 점은 후면 벽에도 창이 있어서, 뒤에서 보았을 때 우측 협칸에 이분합 창을 두었다. 아래쪽엔 머름을 두어 이것이 문이 아니라 창이라는 점을 알 수 있는데, 불전에서는 보기 힘든 이례적인 것으로 그 조성 시기와 목적에 대해서는 짐작하기 어렵다.

### <종합의견>

홍천 수타사는 동종과 소조 사천왕상, 영산회상도와 승탑 등 많은 불교 문화재를 가지고 있는 강원도 영서 지방을 대표하는 유서 깊은 고찰이며, 대적광전은 비로자나불을 모시는 수타사의 주불전으로서, 사천왕을 모시는 봉황문 및 강당인 흥회루와 앞뒤로 나란히 일직선을 이루는 축선 상에 위치한다. 수타사 대적광전은 1636년에 지어지고, 1817년과 1882년에 중창, 중수되었으며, 근대 이후에도 여러 번의 보수를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수타사 대적광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단층 팔작집으로 사찰의 주불전으로서는 큰 규모라고 할 수 없지만, 주칸의 구성과 공포의 배열, 상부 지붕틀의 짜임 등에서 매우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격식 높은 건축물이다. 즉, 3칸x3칸의 주망 가운데 전열의 내구 2분을 생략하여 실내의 불단 앞 공간을 넓혔고, 후열의 내주는 고주로 처리하여 1고주 5량가의 구성을 갖추었다. 보칸의 주칸을 같이 하고, 기둥열에 맞추어 도리를 뚫으로써, 중도리 사이의 거리와 중도리에서 주심도리 사이의 거리를 맞춘 3분변작법을 사용하고, 측면에서도 장연을 종보에 걸침으로써, 지붕의 가구와 기둥의 배열이 완전히 합치되는 구성을 갖는다.

또한 외1출목, 내2출목의 간소한 공포형식과 공포구성부재의 짜임과 초각, 그리고 창방 뿔목의 초각, 기단의 가공, 민흘림이 강한 원기둥의 가공 등에서 17세기 건축의 시기적 특징을 잘 유지하고 있으며, 일부 공포부재의 가공과 초각에서 19세기의 중창 및 중수 시에 더해졌을 것으로 짐작되는 모습이 일부 엿보인다. 또한 근래에 행해진 보수공사로 인하여 많은 구성부재가 교체된 점도 확인된다.

하지만, 수타사 대적광전의 건축적 가치는 일차적으로 주칸의 구성과 공포의 배열, 공포의 기본적인 짜임과 상부 지붕틀의 구성 등 대목작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으며, 이들은 모두 17세기의 시기적 특성을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건축물에서 흔히 찾아보기 어려운 합리적인 건축계획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건축적 가치가

높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수타사 대적광전은 보물로 승격 지정하여 보존 관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한다.

**※ 대상 문화재의 핵심 보존가치**

기둥과 보, 도리, 서까래 등의 목조 건축물의 기본 구성 요소 일체.

공포 부재와 기와, 기단 등의 부수 시설과 단집, 장식, 종결이 등의 실내 장엄.

##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23.02.23	대상문화재	홍천 수타사 대적광전	
조사자	성 명	○ ○ ○	전공 분야	한국건축사
	소 속	○ ○ 대학교	직위(직책)	부교수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문화재 명칭	홍천 수타사 대적광전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홍천 수타사 대적광전은 17세기 중건 당시 모습이 잘 남아있는, 강원도 유일의 사찰 주불전으로 그 역사문화적 가치와 의미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바,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하여 보존하는 것이 타당함.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5월 24일

제출자

○ ○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 1.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홍천 수타사는 강원도 홍천군 수타사로 473(영귀미면)에 위치하고 있다. 남쪽으로는 공작산이 위치하고, 북쪽으로는 덕치천이 사찰을 크게 감싸며 흐르고 있어, 이곳은 예로부터 공작포란지지(孔雀抱卵之地)라 불리는 명당이였다.

공작산은 조선 세조의 비인 정희황후의 태를 봉안한 곳이며, 수타사에서는 세조가 편찬한 월인석보 17, 18권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수타사는 세조, 정희황후와 관련이 깊은 역사적 장소이기도 하다.

현재 수타사 대적광전은 강원도 유형문화재(1971년 지정)로 지정되어 있다.

## 2. 연혁·유래 및 특징

임진왜란으로 소실된 수타사는 17세기에 중창되었다. 『홍천현동공작산수타사사적(洪川縣東孔雀山水墮寺事蹟)』(1688)에 의하면, 수타사의 주불전인 대적광전은 당시 법당으로 기록되어 있고 1636년 중창(重創)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대적광전의 중수, 수리 기록은 『건봉사급건봉사말사사적(乾鳳寺及乾鳳寺末寺史蹟)』(1928)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1762년 대적광전 내 불상 개금, 1882년 대적광전 중수, 1885년 대적광전 단청, 1910년 대적광전 중수 기록이 있다. 또한, 1982년 대적광전 변화 공사 시, 중도리 장여 부분에서 확인된 중수기는 그 작성시기가 1945년으로 확인됨에 따라, 1945년 대적광전 중수 사실은 물론이고 그 이전인 1702년 대적광전 중수, 1932년 대적광전 중수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상술한 1982년 변화공사에서 지붕재 상당수가 교체되었다. 서까래 4본, 선자연 7본, 부연 9본, 선자부연 24본 등이 교체되었고, 부연착고, 초매기, 부연개관, 이매기, 연합, 연목개관 등은 100% 교체되었다. 또한, 적심은 30% 보충되었고, 기와는 암키와 40%, 수키와 50%, 막새내림새 75%가 보충되었다.

2006년에는 기둥이하 주초석까지 해체공사가 진행되어, 다시 한 번 대대적인 목부재 교체가 이루어졌다. 동마리 1개소, 도리 13본, 제공 9본, 침차 2본, 장여 7본, 장연 32본, 부연 98본, 사래 4본, 추녀 2본, 장귀틀 2본, 동귀틀 7본, 창호 5개소가 교체되었고, 단연, 평고대, 연합, 연목개관, 부연개관, 부연착고, 순각판, 합각은 100% 교체되었다. 기와는 90% 중와로 교체되어 암키와 4952매, 수키와 2046매, 암수막새 212매, 망와 10매, 착고 180매가 교체되었다. 이후 2009년 단청 보수를 실시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이, 1982년과 2006년 보수공사에서 상당수의 구부재가 신재로 교체되었는데, 이는 2017년 보물 승격 신청에서 탈락한 주된 이유로 추정된다. 비록 부재 교체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교체부재 대부분이 지붕재이며 주요 목가구 교체는 많지 않은 것

으로 볼 때, 수타사 대적광전의 구조와 양식에 큰 변화는 없으며 그 가치 또한 변함이 없다고 생각된다.

수타사 대적광전의 주요 건축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대적광전은 장대석 기단과 자연석 초석 위에 세워진 정면 3칸, 측면 3칸의 단층 팔작지붕 건물이다. 구조는 1고주 5량가이며 평면은 후퇴형 평면이다. 이에 건물 내부 후면에는 고주를 사용하고, 전면에는 기둥없이 충량으로 상부 가구를 받치고 있다. 특히, 충량은 별도의 장식이 없어, 후대에 주로 나타나는 용모양의 충량과 구분되는 특징을 보인다. 공포는 외1출목, 내2출목의 다포로 구성된다. 정칸에는 간포 2구, 협칸에는 간포 1구가 놓이는데, 각 포 간격은 일정하게 계획되어 있다.

이와 같이, 수타사 대적광전은 비교적 작은 규모의 불전이나 전체적으로 짜임새있고 계획적인 구성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다포를 사용하였음에도 내외출목수를 최소화한 것, 외기도리 없이 종보로 외기를 구성한 것, 중도리 위치를 잡을 때 삼분변작법을 사용한 것 등은 그 대표적인 예라 할 것이다.

### 3.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수타사 대적광전은 비교적 작은 규모의 불전이나 전체적으로 짜임새있고 계획적인 구성을 보이고 있으며, 17세기 중건 당시 모습이 잘 남아있는, 강원도 유일의 사찰 주불전이다. 따라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하여 보존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23.02.23	대상문화재	홍천 수타사 대적광전	
조사자	성 명	○○○	전공 분야	한국건축사
	소 속		직위(직책)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문화재 명칭	홍천 수타사 대적광전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세부내용 별첨 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 1.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 환경

수타사는 수타사 남쪽으로 공작산이 자리하고 있고 북쪽으로 덕지천이 감싸며 흐르고 있다. 공작산은 조선시대 세조의 비인 정희왕후(貞熹王后)의 태(胎)를 봉안한 곳으로 주변의 경치가 빼어나 풍수적으로 공작포란지지(孔雀抱卵之地) 명당이라 전하고 있다.

수타(水墮)의 의미는 「花山縣東嶺孔雀山水墮寺重覆蓋瓦記(화산현동령공작산수타사중복개와기)」(1709)과 「수타사범중」(1670) 명문 그리고 「孔雀山水墮寺重修記(공작산수타사중수기)」(1861)을 통해 산세와 연못의 형세를 따라 지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수타사(水墮寺) 명칭은 1811년 “...朝鮮 純祖 十一年 辛未 水墮寺를 壽陀寺라 改稱하다...”라 하여 수타사(壽陀寺)로 변경하였고, 수타(水墮)라는 이름이 좋지 못하다고 하여 아미타불의 무량한 수명을 상징하는 수타(壽陀)로 사명을 변경한 것이 확인된다.

수타사는 일월사를 현 위치로 이관하여 개칭한 것이라고 한다. 수타사의 창건은 『건봉사급건봉사말사사적』(1928)과 『홍천현동공작산수타사사적』(1688)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홍천현동공작산수타사사적』은 정원선사(1627-1709)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데, 당 중종 경릉연간(707-709)에 원효가 우적산에 일월사를 창건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 통일신라시대에 일월사라는 이름으로 창건된 것으로 추정되나 확실하지가 않다.

창건 이후의 기록은 거의 전해지지 않으며, 조선 선조 2년의 수타사 이관부터 중창 과정이 남아 있다. 일월사는 고려말에 요승 신돈의 난(1365-1371)으로 피해를 입은 후 조선시대까지 쇠락하여 소실과 중창을 거듭하다가 1567-1572년경 호랑이가 출몰하여 현 위치인 공작산으로 이관하였다고 『홍천현동공작산수타사사적』에 전한다. 이관하여 수타사라 개칭하였으며 법당과 좌우의 당 및 정문만 있었다고 한다. 1569년(선조 2) 일월사를 공작산으로 이관하고 수타사라 개칭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1530년에 간행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수타사 공작산에 있다”는 기록을 통해 1530년 이전에 이관되었을 수도 있다.

『홍천현동공작산수타사사적』과 『건봉사급건봉사말사사적』에 17세기 수타사의 중건과정이 나온다. 신뢰할 수 있는 기록은 대적광전은 수미단의 목서로 ‘송□십일’로 기록되어 승정11년(1638)이다. 또한, 대적광전 고주 보아지의 목서에 1650년대 불사를 주도한 계일 이름 등으로 보아 1636년(인조 14) 공잠스님이 대적광전을 중건한 것을 알 수 있다. 이후 1639년(인조 17)에는 계일스님이 백련당을 건립하였으며 1644년(인조 22)에는 학준스님이 선당을 중건하였다. 1647년(인조 25) 계철스님이 승당을 중건하며 주불전과 승선당이 갖추어졌고, 1650년(효종 원년) 도전이 정문을 중건하면서 주불전, 승당, 선방, 정문으로 구성된 사역 주요부가 완성되었다. 1658년 승해, 정명스님이 홍회

루를 건립하면서 주불전과 승선당, 흥회루로 구성된 사동중정형 가람배치가 마련되었다.

1670년 정득, 대상, 천읍이 함께 대종을 주조하여 봉안하였고, 1674년(효종 15) 법륜이 봉황문을 창건하한 후 1676년 여담이 사천왕상을 조성하였다. 이후 1683년까지 신도, 천혜를 비롯하여 여민, 지해, 지행, 성민, 찬징, 선찰, 성념, 찬원, 상홀스님 등이 청련당, 향적전, 백련당, 송월당 등의 당우들을 차례로 중건하였다.

『수타사범종』의 명문도 17세기 수타사 중창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 “.임진년의 병화로 폐허가 되어 그 뒤 오랫동안 버려졌다. 불법을 찾는 이가 숲과 넝쿨을 헤쳐서 와 보고 한없이 탄식하곤 하였다. 승정 병자년(1636)에 중창하였고, 순치 무술년(1658)이 되는 사이에 여러 전각을 다 지었다.(新羅之初, 蒼建也壬辰兵火, 空存餘基久矣, 尋眞之客採茅, 之類嘆愁無窮, 崇禎丙子之歲, 重蒼順治戊戌, 之間諸殿畢功, …)”

『건봉사급건봉사말사사적』에도 대적광전은 1636년(인조 14) 공잠대사가 중건하고, 1764년 번와 보수, 1882년(고종 19)에 중수하였고, 1885년(고종 22) 단청 보수, 1910년(융희 4)에 중수하였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박태순의 『동계집(東溪集)』에는 수타사에서 정원선사(淨源禪師)에게 준시가 실려 17세기 극후반에서 18세기 초반으로 보여 정원선사의 수타사사적을 기록하는 시점과 일치하고 있다.

홍계영의 유람기에는 성난 눈초리의 사천왕, 주불전의 각지를 끼고 앉은 불상, 그림으로 사방을 둘러친 벽 등 1700년대 초반의 수타사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주불상은 아미타불의 미타정인으로 추정되나 석가모니불의 선정인이나 비로자나불 등으로도 추정할 수 있다. 영산회상도(1762년)와 지장시왕도(1776년)가 제작된 시기로 보아 18세기 후반이나 19세기 초반에 주불이 변경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건봉사본말사적의 1811년 사명 변경은 의미있게 해석된다.

이인엽(1656-1710)의 『晦窩詩稿』, 김창흠(1653-1722)의 『三淵集』 등에 사찰에 대한 묘사는 없지만 수타사를 언급하고 있다. 1714년 수타사를 방문한 이하곤 그리고 안중관(1683-1752)은 배를 이용했음이 확인된다. 이외에 1727년에 한원진(1682-1751), 1742년에 김진상(1684-1751), 18세기 중반에 안석경(1781-1774)이 시를 남기고 있다.

18세기 말 정조대의 1799년 완성된 『梵宇攷』에서 “수타사, 공작산에 있다”고 기록한 것은 이 시점까지 큰 변화 없이 사찰이 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1862~1866년까지 저술된 김정호의 『대동지지』에 “공작산 현 동쪽 25리에 있다. 수타사.”라고 하여 1811년 이후 수타사<sup>6)</sup>와 달리 사명이 수타사(水墮寺)로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1872년

제작된 『1872년 지방지도』에 수타사의 암자인 옥수암이 나타나고 수타사(水墮寺)로 나타나고 있다. 『존재집』과 1912년 『朝鮮總督府官報』에 수타사(壽陀寺)로 기록되는데 이후 『건봉사급건봉사본말사적』에 기록되고 있다. 이는 내부에서 수타사를 사용하고 외부의 공식적인 명칭으로는 수타사(壽陀寺)를 썼을 가능성이 추정된다.

## 2. 연혁·유래 및 특징

임진왜란으로 인해 수타사는 사역 전체가 소실되었다. 사적기를 보면 17세기 수타사 중창은 사역 안쪽부터 밖으로, 중요 전각부터 부차적인 전각으로 공사를 추진하였다. 수타사의 주불전인 대적광전은 법당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공잠(工岑) 스님 주도로 1636년(인조 14)에 중창하였다. 이어서 1639(인조 17)에는 백련당을 계일(戒一)스님이 중창하였으며, 1644년(인조 22)에는 학준(學俊)스님이 선당을 중건, 1647년(인조 25)에는 계철(戒哲)스님이 승당을 중건하였다. 여기에 1650년(효종 원년)에는 도전(道詮)스님이 정문을 중건함으로써 주불전과 승당, 선당, 정문으로 구성된 사역 주요부를 완성하였다. 그리고 1658년 승해(勝海)·정명(定明) 두 스님이 흥회루를 건립하면서 주불전과 승·선당, 흥회루로 구성된 사동중정형 가람배치가 완성되었다. 이후에도 수타사의 불사는 계속되어 1670년 정특(正特), 대상(大尙), 천읍(天揖)이 대종을 주조하여 봉안하였고, 1674년(현종 15)에는 법륜(法倫)이 봉황문을 짓고 2년 뒤에 여담(汝湛)이 사천왕상을 봉안함으로써 산문(山門)까지 갖추게 되었다. 그리고 1683년까지 청련당, 향적전, 백련당, 송월당 등의 당우들을 차례로 중건하였고, 이들 대부분 지금까지 전해지면서 사세를 유지하고 있다.

『건봉사급건봉사본말사적』에 의하면 대적광전은 1636년 공잠대사가 사찰을 중창하면서 중건한 이후 1764년 번와보수, 1882년에 중수, 1885년 단청보수, 1910년에 중수하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1885년 중수 당시를 기록한 기문인 「江原道洪川縣東有孔雀山水墮寺法堂重創丹牘記文(1885)」에는 1817년(순조 17)에 중수가 있었음이 추가로 확인된다. 그 후 1982년 보수 공사 당시 종도리 장여 하부에서 발견된 중수기(1945)를 통해서 1932년과 1945년에 대적광전을 중수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되었다. 해방 이후 수리기록은 약 5차례인데, 모두 건물의 노후에 따른 부분적인 보수였으며, 현재까지 크게 변형된 부분없이 예전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다.

대적광전의 기단은 정면에 잘 다듬은 장대석을 세벌대로 쌓았는데, 아래쪽은 넓은 면석을 쌓고 그 위에 바른층쌓기로 두 벌의 장대석을 더 올려놓았으며, 그 위에 자연석 주초를 놓았다. 일반적으로 장대석은 길이가 길고 높이가 비교적 작은 것을 말하는데, 수타사 대적광전의 기단은 길이가 길지 않으면서도 높이도 높은 것을 사용하고 있어 건물의 전체적인 의장적 통일성과 균형을 고려하였다.

기둥은 모두 원형이며, 민흘림을 두었다. 기둥머리에 창방과 평방을 사방에 돌리고, 창방뿔목은 조선 중기의 건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초각(草刻)을 꾸몄으며, 평방뿔목은 창방뿔목보다 약간 길게 하여 끝을 수직으로 잘랐다.

평방 위에 놓여있는 공포는 다포로, 어칸은 간포가 2조, 협칸은 1조씩 짜여 있으며 공포간격이 일정하게 구성되어 있다. 외1출목, 내2출목으로 전체적으로 간결하면서 장식성이 가미되지 않은 조선 중기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주두는 폭에 비하여 굵이 약간 높은 비례를 이루고 있으며 초제공의 쇠서는 조선 초기 양식에서 보는 강직한 맛은 없으나, 완만한 곡선의 양서를 갖추었다. 특히 쇠서의 위치가 밑으로 처져있는 점은 조선 말 쇠서가 수평으로 뻗는 것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이 건물의 공포가 조선시대 중기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내부의 살미첨차는 판재로 구성되어 있고, 외부의 살미첨차와는 다르게 주심포와 귀포의 내부 살미의 끝에만 연봉을 장식하고 있다. 또한 내출목도리가 없는 점이 주목된다.

가구는 1고주 5량가로 사방에 평주를 세우고 내부 후면에 두 개의 고주를 세웠으며, 대들보와 뒷보가 고주에 꽃혀 양측면을 연결하고 있다. 고주가 없는 전면의 경우 측면의 기둥과 대들보를 연결하는 방법으로 충량을 사용하고 있으며, 충량에 별도의 장식은 하지 않았다. 고주에 결구되는 대들보와 뒷보의 아래로는 초각이 되어 있는 보아지를 두어 양 보를 받치고 있으며, 대들보 위로는 동자주 형태의 대공이 놓이고 그 위로 종보를 얹은 다음 다시 그 위에 대공을 올린 후 종도리를 받치고 있다.

천장은 우물천장이며 불전이 있는 곳은 한층 높게 꾸몄는데, 그 방법은 가운데 높은 천장은 종보 위치에 천장을 가설하고 주변의 낮은 곳은 대들보에 천장을 가설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내부는 전체 바닥을 우물마루로 하고 고주 사이에 불벽(佛壁)을 치고, 그 앞에 수미단을 놓고 1구의 불상(비로나자불좌상)을 모시고, 그 뒤 불벽에는 영산회상도를 후불탱화로 두었다. 불상의 위로 설치한 단집에는 용과 봉황 등이 섬세하게 가공되어 있고, 좌우에는 비천상이 표현되어 있다.

처마는 겹처마이며, 기와는 중와를 사용하였고, 용마루 한가운데 수키와 2개는 청기와의를 올려놓았다. 또 정면의 좌우측 수막새 위에는 연봉을 올려 장식하고 있다.

### 3. 지정가치 및 근거기준

수타사의 역사는 「홍천현동공작산수타사사적(洪川縣東孔雀山水墮寺事蹟)」 (1688)과 「건봉사급건봉사말사사적(乾鳳寺及乾鳳寺末寺史蹟)」 (1928)이 남아 있어 그 내력을 비교적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대적광전은 「건봉사급건봉사말사사적」 을 통해 1636년 공잠대사가 중건하였고, 이후 1764년 변와보수, 1882년에 중수, 1885년 단청보수, 1910년에 중수하였다는 기록이 남

아 있다. 또한, 「강원도홍천현동유공작산수타사법당중창단확기문(1885)」에는 1817년(순조 17)에 중수가 있었음이 추가로 확인된다. 이 후 1982년 보수 공사 당시 종도리 장여 하부에서 발견된 중수기(1945)를 통해서 1932년과 1945년에 대적광전을 중수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대적광전은 많은 문헌을 통해 창건과 이후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어 역사적 가치가 크다.

또한, 해방 이후 수리기록은 약 5차례인데, 모두 건물의 노후에 따른 부분적인 보수였으며, 현재까지 크게 변형된 부분없이 예전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는 점에서 건축물의 진정성 또한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

수타사에 건립된 소조사천왕상은 전국적으로 17개의 사찰에서만 확인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이 17세기 전후에 조성되었다. 17세기에 대규모 소조사천왕상이 조성되어 있는 사찰들은 당시 중요한 곳으로 취급되어 대규모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소조사천왕상이 전해지고 있는 사찰들의 주불전들은 새롭게 건축된 경우를 제외하면 모두 국가지정문화재로 보호를 받고 있어 역사적 가치를 더하고 있다.

수타사는 대적광전-홍회루-봉황문을 일축으로 구성하고 있어 하나의 통일된 건축 계획상에 각 건물의 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적광전 일곽은 배치, 공간 구성 등 17세기 중창 당시 모습을 간직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대적광전이 있다는 점에서도 건축적 가치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수타사 대적광전은 공포규격을 하나의 단위로 이용하여 평면·구조·의장을 계획함으로써 퇴칸의 정면과 측면 주간포 위치와 개수가 일치하는 점, 이주법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평면을 가지고 있다는 점, 간결하면서도 비교적 장식없는 외1출목 내2출목 공포를 구성하고 있는 점, 3분변작법을 이용해 장연이 주심에 중심을 둠으로써 구조적 안정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조선 중기 이전의 건축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유사 시기의 사례들과 비교하여 비교적 이른 시기에 해당하는 대표성을 지니고 있어 건축적·학술적 가치가 크다. 특히 외1출목 다포를 완성도 높게 구현한 주불전 건물로서 17세기라는 특정 가능한 시기에 강원도의 산지 사찰에서는 보기 드문 건축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닌 건물이다.

이처럼, 수타사 대적광전은 강원도 일원에서 가장 오래된 주불전으로 건립 및 보수 기록이 비교적 잘 남아 있다. 비록 근래의 보수에서 일부 부재가 교체된 점이 있으나 주요 구조부는 대부분 17세기 중건 당시의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어 17세기 건축의 표준으로 삼을 수 있는 지표가 된다는 점에서 역사적, 학술적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다.



## 10. 창원 성주사 대웅전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검토

### 가. 제안사항

경남 창원시 소재 「창원 성주사 대웅전」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경남 창원시 소재 「창원 성주사 대웅전」을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 받고자 하는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경상남도지사
- (2) 대상문화재 : 시도유형문화재 「창원 성주사 대웅전」
  - 소재지 : 경남 창원시 성산구 곰절길 191 (친선동)
  - 지정일 : 1974. 12. 28.
- (3) 신청내용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 명칭 : 창원 성주사 대웅전(昌原 聖住寺 大雄殿)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성주사
  - 소재지 : 경남 창원시 성산구 곰절길 191 (친선동)
  - 조성연대 : 조선시대
  - 수량 : 1동
  - 지정면적 : 118.4m<sup>2</sup>
  - 구조/형식/형태 : 목조 / 와가 / 맞배지붕

### 라. 현지조사 의견(2023.02.09. / 문화재위원 ○○○, 문화재 전문위원 ○○○·○○○)

- 문화재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 문화재전문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미흡.
- 문화재전문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 마. 의결사항

- 부결
  - 지정 가치 미흡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 부결 8명

##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23. 02. 09.	대상문화재	창원 성주사 대웅전	
조사자	성명	○○○	전공 분야	한국건축사
	소속	○○대학교	직위(직책)	교수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문화재 명칭	창원 성주사 대웅전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세부내용 별첨 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9월 15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 1. 연혁

### 1) 성주사 연혁<sup>1)</sup>

창원 성주사(聖住寺)는 대한불교조계종 제14교구 본사인 범어사의 말사로 불모산 북서쪽 골짜기에 있는데, ‘성인이 머무는 절’이라는 뜻이다. 『성주사 사적문(聖住寺 史蹟文)』에 따르면 835년(신라 흥덕왕 10)에 무염국사(無染國師)가 창건하였다. 흥덕왕은 무염국사가 부처님의 힘으로 왜구들을 물리친 공을 높이 사 성주사를 짓게 하였고 전해진다. 이후 임진왜란으로 전소된 사찰을 1604년(선조 37) 진경대사(眞鏡大師)에 의해 지금의 자리로 옮겨 중창하였는데<sup>2)</sup>, 지금의 성주사에서 남동쪽으로 약 1km 떨어진 일대에 폐사지가 있는데 이곳이 진경대사에 의해 중창되기 전 원래의 성주사 터인 것으로 전전한다. 현재 대웅전 앞에 있는 고려시대의 석탑과 석등 2기는 『성주사 사적기』에서 진경대사가 석탑과 석등을 찾아냈다는 내용으로 보아 1604년에 절을 중창하면서 원래의 성주사 터에서 옮겨온 것으로 생각된다. 이 사찰은 곰이 불사를 도왔다는 설이 전해지고 있어 ‘웅신사’, ‘곰절’ 등으로도 불린다.

이후 1655년(효종 6)에는 현재 대웅전에 봉안된 창원 성주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木造釋迦如來三佛坐像, 보물)을 조성하였으며, 1681년(숙종 7) 승려 상문에 의해 대웅전이 또 한 차례 중수되었다. 1773년(영조 49)에는 금파당 원혜(金波堂 圓慧), 1781년(정조 5)에는 지월당 광세(智月堂 廣世)의 승탑을 조성하고, 1783년(정조 7)에 동종을 새롭게 만들었다. 1817년(순조 17)에 이르러 대웅전을 다시 중수하였고, 1876년(고종 13)에 무염국사의 진영을 봉안하였다.

1919년에는 범종과 사찰 내 전각들을 수리하고 4동을 신축하였고, 성주사 입구에 있던 삼층석탑을 지금의 위치(대웅전 앞)로 이전하였다. 이후에도 지속해 사역 내 여러 전각을 신축 및 수리하여 오늘날의 모습이 되었다.

현대에 접어들어 창원 성주사 대웅전은 1974년 12월 28일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 134호로 지정되면서 지속해 중창 불사를 진행하였다. 1982년 대웅전의 처마와 지붕을 보수공사하고, 바닥의 강회다짐 공사를 하였으며, 1995년 대웅전의 처마와 지붕 등 보수공사를 진행하면서 창호와 기단을 외 혹은 두벌대 기단에서 가구식 기단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2015년에는 대웅전 주변의 석축을 정비하면서 가구식 기단을 오벌대 기단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가장 최근인 2019년에는 대웅전 주변을 보수 및 정비하는 등 사역 내 전각을 보수하거나 이건하는 주변 환경 정비를 하였다.

1975년과 1980년대 추정 촬영된 대웅전의 모습을 살펴보면, 지금과 다소 차이가 있음이 확인된다. 장대석으로 이루어진 지금의 기단과 달리 80년대까지 대웅전의 기단은 외벌대 혹은 두벌대 기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단 정면 중앙에 삼층석탑이 위치한

1) 성주사 대웅전 기록화 조사보고서, 창원시, 2009, p.35~38.

불모산 성주사, 대한불교진흥원, 2010, p.63~68.

2) 경남의 사지 II : 동부 경남지역의 석탑,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문화재청, 2011, p.153.



1950년 항공사진  
(자료 : 국토지리정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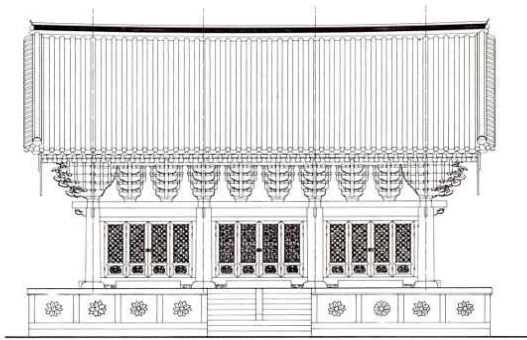
1975년 항공사진  
(자료 : 국가기록원)



1980년대(추정) 성주사 전경  
(자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80년대(추정) 대웅전  
(자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95년 대웅전 정면도  
(자료 : 국가기록원)



대웅전 현황

다. 또 사진 속 대웅전의 정면에는 정칸 3짝, 양 협칸에 2짝인 분합문이 설치되어 있으나, 현재는 정칸과 양 협칸 모두 4짝의 문이 설치된 것으로 보아 이후 대웅전을 보수하면서 창호의 형식이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1995년 대웅전 도면을 살펴보면 과거 외혹은 두벌대 기단에서 가구식 기단으로 변경하였고, 또 다시 2015년에 가구식 기단에서 현재의 오벌대 기단으로 변경되었음을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1980년대

이후 대웅전을 보수하면서 기단, 창호 등의 형식이 변형된 것으로 판단된다.

#### 창원 성주사 대웅전 관련 연혁

연도	내용
835년(신라 흥덕왕 10)	- 무염국사가 성주사 창건
1592년(조선 선조 25)	- 임진왜란으로 전각 대부분 소실
1604년(선조 37)	- 진경대사가 현 위치로 옮겨 중창
1655년(효종 6)	- 창원 성주사 목조석가여래좌상 조성
1681년(정조 5)	- 승려 상문 대웅전 중수
1686년(숙종 12)	- 동계 『성주사 사적문』 제작
1729년(영조 5)	- 진정 대웅전 삼존불상 개금
1817년(순조 17)	- 대웅전 중수
1929년	- 경옥 대웅전 삼존불상 개금
1967년	- 대웅전 중수
1974년	-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134호 지정
1982년	- 처마, 지붕 보수공사, 바닥 강화다짐 공사
1995년	- 처마, 지붕 등 보수공사
2009년	- 대웅전 삼존불 개금, 대웅전 기록화 사업
2015년	- 대웅전 주변 석축정비공사
2019년	- 대웅전 주변 보수정비공사

사역 내에는 창원 성주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보물), 창원 성주사 감로왕도(보물), 창원 성주사 삼층석탑(경남 유형문화재) 등 10개의 국가 및 경상남도 지정문화재가 있다.

## 2) 성주사 대웅전 관련 주요 기록

### (1) 태종실록<sup>3)</sup>

『태종실록(太宗實錄)』 14권(태종 7년 12월 2월 신사 2번째 기사, 1407년)에 따르면 의정부에서 당시 왕실의 안녕을 위하여 여러 고을의 자복사(資福寺)<sup>4)</sup>를 정하였고, 이때 성주사는 화엄종의 자복사로 선정되었다. 다만 성주사가 아닌 의창(창원의 옛 지명)의 웅신사(義昌 熊神寺)로 기록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경상도의 대표적인 화엄 사찰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리하여 여러 고을의 자복사를 모두 명찰(名刹)로 대신하였는데, …중략…화엄종(華嚴宗)에 장흥(長興)의 금장사(金藏寺)·밀양(密陽)의 엄광사(嚴光寺)·원주(原州)의 법천사(法泉寺)·청주(淸州)의 원흥사(原興寺)·**의창(義昌)의 웅신사(熊神寺)**·강화(江華)의 전향사(梅香寺)·양주(襄州)의 성불사(成佛寺)·안변(安邊)의 비사사(毗沙寺)·순천(順天)의 향림사(香林寺)·청도

3)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www.sillok.history.go.kr) 태종실록 14권 내용 참고

4) 왕실의 복을 비는 사찰

(淸道)의 칠엽사(七葉寺)·신령(新寧)의 공덕사(功德寺)이고...(於是, 諸州資福寺, 皆代以名刹。...堤州 長樂寺, 龍駒 瑞峰寺。 華嚴宗: 長興 金藏寺, 密陽 嚴光寺, 原州 法泉寺, 淸州 原興寺, 義昌 熊神寺, 江華 栴香寺, 襄州 成佛寺, 安邊 毗沙寺, 順天 香林寺...)

## (2) 창원웅신사신조불상시주기(1655년)

「창원웅신사신조불상시주기(昌原熊神寺新造佛像施主記)」는 대웅전 내 봉안된 목조 석가여래삼불조상의 신주기로, 불상 조성 날짜 및 시주한 사람들과 불상 제작에 참여한 사람들을 기록하였다. 시주기에 의하면 1655년(순치 12) 봄에 공사를 시작해서 같은 해 8월에 마쳤다고 한다.<sup>5)</sup>

순치(順治) 12년 을미년(1655) 봄에 공역을 시작해서 같은 해 8월에 마쳤다. 불상 삼존에 복장(腹藏)을 하고 점안(點眼)<sup>6)</sup>할 때 대단신(大檀信)과 연화질(緣化秩) 등의 품명을 아래와 같이 열거한다. (順治十二年乙未春始役其年中秋訖工佛像三尊腹藏點眼時大檀 信與緣化等品名開列于后)

## (3) 성주사 사적문(聖住寺 史蹟文)<sup>7)</sup>

『성주사 사적문(聖住寺 史蹟文)』은 1686년(숙종 12)에 동계(東溪)라는 호를 가진 사람이 지은 것으로, 성주사의 창건 설화와 진경대사가 사역을 중수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중략...지금의 성주사는 신라 42대 흥덕대왕 때에 창건했다고 한다...나라의 서남쪽에는 불모(佛母)라는 산이 있는데, 산명수려하고 상서로운 구름이 자욱히 끊이지 않으니, 스님(무염화상)을 맞아 머물게 하시면, 왜구들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진경대사가 분연히 다시 일으킬 뜻을 품고, 공장(工匠)을 맞이하여 일을 시작하니, 그때 수백 마리의 곰들이 목재를 운반해 역사(役事)를 도왔고, 일을 마친 뒤에는 홀연히 사라져, 볼 수가 없었다.(...今茲聖住寺乃新羅四十一世興德大王之始創云...王國之西 有山曰智異山中有一和尚 號曰無染 乃金山寶蓋如來之後身也 實有不可思議之神力...중략...迎師居之則倭寇庶可禦之...眞鏡大師慨然有興復之志 迎工匠 設斧斤 有數百群熊 運移棟梁之木 助役成之 事畢後忽隱不見...赤虎 抄秋 東溪 謹識)

5) 「昌原熊神寺新造佛像施主記」 時維」 順治十二年乙未春始役其年中秋訖工佛像三尊腹藏點眼時大檀」 信與緣化等品名開列于后」 …(생략)

6) 점안(點眼) : 불상(佛像)을 조성하거나 그린 후에 처음으로 불공을 드리는 의식을 말한다.

7) 성주사 대웅전 기록화 조사 보고서, 창원시, 2009, p.38~39.

『성주사 사적문』은 근래에 입수되어 대구 대성사 승려 주인(周印)이 1차 번역하고, 경남불교대학 권순학 교학실장이 정리한 것. 2009년 기록화 당시 이를 입수하여 수록한 것을 참고함

그러나 제출한 자료 성주사 사적문 번역 자료 보고서 원본에는 성주사 사적문을 쓴 연도를 1686년으로 확정하고 있으나, 보고서 말미의 “赤虎抄秋東溪謹識”에 대해 적호(赤虎)는 병인년(丙寅年)으로 사적문을 쓴 연도를 1746년으로 밝히고 있어 1686년과는 60년간의 차이가 있다.

#### (4) 삼존불상 개금기(1729년)

「삼존불상개금기(三尊佛像改金記)」는 「창원웅신사신조불상시주기」와 함께 대웅전의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에서 발견되었다. 이 기록은 경상우도 창원 남면 불모산 성주사 삼세여래 영산주불 개금과 삼단정 능천주가 부여한 각 암자의 정 모두 15부 회화에 대한 복장문(慶尙右道 昌原南面 佛母山 聖住寺 三世如來靈山主佛改金 與三壇幀能天主所付各庵幀 并爲十五部繪畫服藏文)으로 시주질에 앞서 옹정 7년, 곧 성상(聖上) 즉위 6년 되는 기유년(1729)에 본도 방백(方伯) 박문수, 본부 성주 구간이라 적은 것(聖上卽位之六年己酉 本道方伯朴文秀 本府城主具旰)으로 보아 당시 경상도관찰사로 부임한 박문수(1691~1756)도 성주사의 삼존불상 개금에 큰 관심을 보였던 것으로 생각되며, 당시 성주사의 사격이 굉장히 높았음을 추정해볼 수 있다.

#### (5) 개금기원문(1929년)

「개금기원문」은 「창원웅신사신조불상신주기」, 「삼존불상개금기」와 함께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내 봉안되어 있던 기록으로, 불상이 조성된 이후로 몇 백 년이 지나 삼존불상의 금색이 벗겨지고 때가 타서 깨끗이 씻고 개금을 했다고 밝혔다. 총책임자는 일봉 경념이 맡았고, 수화사(금어)는 석하 시찬과 영철이다. 발원문의 제일 마지막에 날짜가 기록되어 있는데, 일제강점기인 1929년에 성주사 대웅전 삼존불상의 개금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6) 경남매일신문(1967년)

1967년 지붕이 새고 허물어져 가던 성주사에 2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중수하였다. 정확히 어떤 건물을 중수하였다고 밝혀진 않았으나 성주사의 가장 중심 건물인 대웅전을 중심으로 각 전각의 지붕을 보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 (7) 1995년 보수공사 기록<sup>8)</sup>

1995년 성주사 대웅전 지붕 기와의 노후와 기왓골 교란으로 인해 연목 등 지붕 목부재의 부식이 심하고 특히 배면 지붕의 상태가 불량하여 지붕 보수공사를 진행하였다.

8) 1995년 성주사 대웅전 공사기록, 국가기록원.



당시 지붕의 상태가 좋지 않아 일부 구간에 천막을 덮어놓은 상태였던 성주사 대웅전은 지붕을 해체하여 연목과 부연, 출목도리 등 부식된 부재를 신 부재로 교체하였고 암키와와 수키와, 착고, 암·수막새, 망와 등을 신 부재로 보충하여 현재의 모습에 이르고 있다.

#### (8) 연륜 연대 분석 자료

치목에 의해 제거된 연륜 수는 10개가 되며, 벌채 연도는 1681년(1671+10)에 ±4년인 1677년에서 1685년 사이로 이때 성주사 대웅전이 중건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 2.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창원 성주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14교구 본사 범어사의 말사로, 경상남도 창원시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곰절길 191(천선동 102번지)에 있다.

국도 제25호선, 지방도 제1020호선을 통해 접근할 수 있으며, 성주사 삼거리에서 동남쪽으로 이어지는 길을 따라 성주사에 진입할 수 있다.

성주사는 창원의 진산(鎭山)인 불모산(佛母山, 해발 801m) 서쪽 골짜기 끝에 위치하며, 사찰의 남쪽으로는 계곡이 흐른다.

성주사는 풍수지리적으로 제비집 모양의 명당 형세를 이룬다. 그러나 사찰 앞의 산 모양이 마치 제비를 노리는 뱀의 머리의 형상을 이루고 있어 사역 입구에 뱀과 상극인 돼지상을 세워 사찰을 보호하고자 하였다고 전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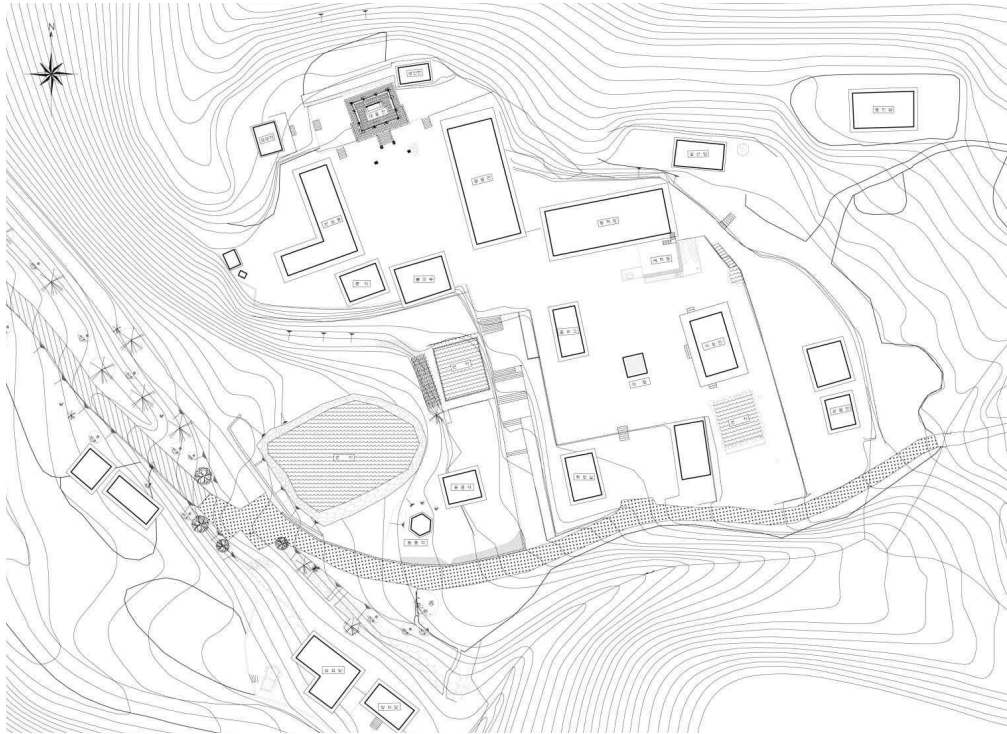
성주사 아래에는 계곡을 따라 넓은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으며, 주차장에서 동쪽으로 이어진 길을 따라 사역에 진입한다. 사역은 크게 대웅전, 영산전, 설법전 등이 위치한 중심 영역과 지장전, 향적당 등이 위치한 하부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사역 내에는 크고 작은 연지가 여러 개 조성되어 있으며, 경상남도 문화재 자료 제267호인 성주사 동종을 보호하는 종각과 심검당, 정와당 등 템플스테이 전각 등의 시설들이 위치한다.

사찰의 입구에서 계단을 따라 오르면 중심 영역에 이른다. 성주사 대웅전은 앞마당의 북쪽 높은 기단 위에 남향으로 위치하며, 정면에는 앞마당을 중심으로 요사채인 안심료와 설법전, 누각인 불모루가 ‘口’자 모양의 사동중정형 배치를 이루고 있다. 축대 위 대웅전 우측에는 영산전이 남향으로 위치하며, 좌측에는 삼성각이 대웅전을 바라보며 동향으로 배치되어 있다. 마당에는 석등 2기와 고려시대에 건립된 것으로 판단되는 삼층석탑이 위치한다.

하부영역은 중심 영역 동남쪽에 위치하며, 서향하고 있는 지장전을 중심으로 향적당, 종무소, 동별당, 관음전, 진신사리탑, 화장실 등이 있다. 중심영역과 같이 일정한 배치

형식은 이루고 있지 않으며, 근래에 사세가 확장되는 과정에서 넓은 지형에 맞게 전각들을 배치한 것으로 보인다.



성주사 배치도



성주사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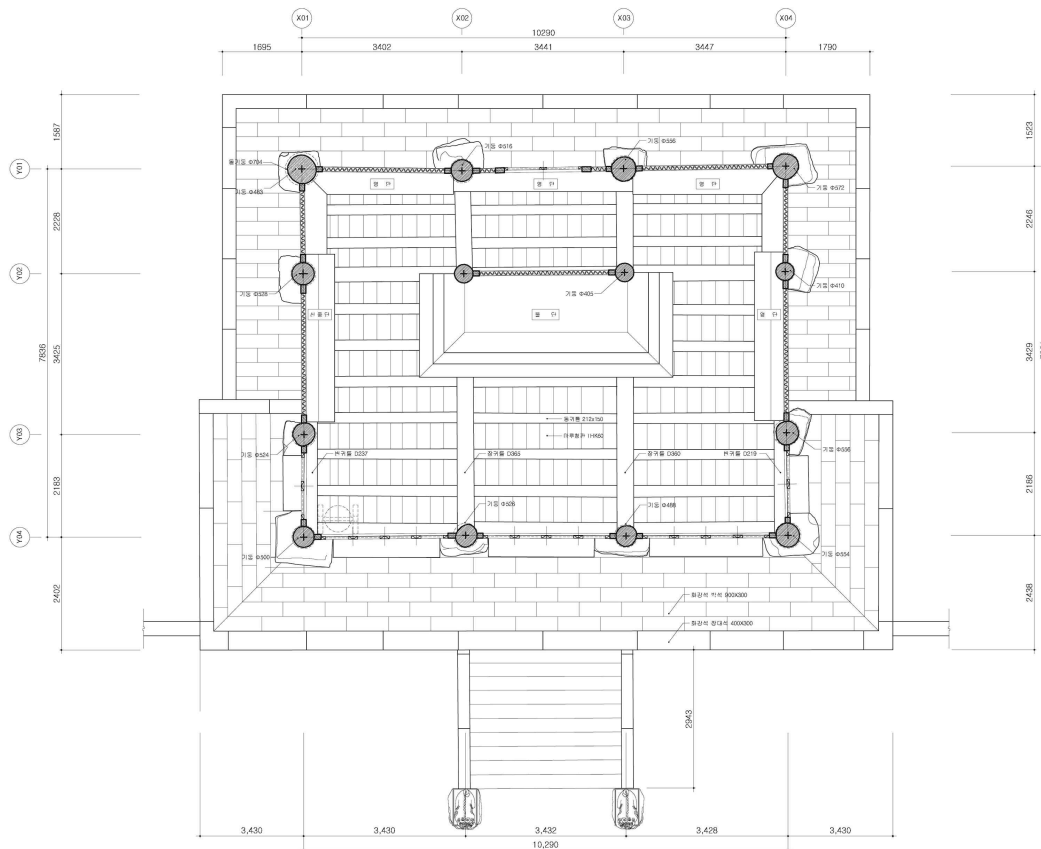
### 3. 건축 현황 및 특징

#### 1) 평면

성주사 대웅전은 석가여래, 약사여래, 아미타여래 등 삼존불을 모시는 성주사의 주불전이다. 정면 3칸, 측면 3칸 규모의 다포계 맞배건물로, 정면이 측면보다 넓은 장방형 평면을 이룬다.

대웅전 내부는 예불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전면 고주를 제거한 전면감주법과 후면 고주를 측면 고주와 평행하게 일치시키는 후면정치법을 사용하였다. 내부 고주 사이에는 불벽을 설치하고 전면으로는 삼존불을 모신 주불단을 두었다. 주불단은 상·중·하단 등 3단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위에는 단집이 있다. 주불단 양 측면에는 영단, 신중단 등의 부불단을 설치하여 무염국사를 비롯한 선사들의 영정을 봉안하였다.

기둥 하부를 중심으로 주간 거리를 살펴보면 정면과 배면은 10.3m 정도이고, 좌우측면은 7.8m 정도로 정면과 측면의 비는 약 1 : 0.76이다. 각 칸의 크기를 살펴보면 정면과 배면의 정칸과 좌우협칸은 유사한 크기로 이루어져 있으며, 측면의 경우 정칸이 양협칸보다 넓다.



대웅전 평면도

## 2) 기단과 계단

대웅전의 기단과 계단은 근래에 보수된 것으로, 4면 모두 화강석을 가공한 장대석과 판석을 이용하여 조성하였다. 기단 좌우 측면에는 영산전과 삼성각으로 연결되는 높은 축대가 조성되어 있다. 경사지라는 입지 조건에 따라 지형 차를 극복하기 위해 앞마당에서 대웅전에 오를 수 있도록 기단 정면에 계단을 설치하였고, 대웅전 배면에는 자연석 축대를 쌓았다.

기단의 전체 길이는 정면이 좌우 양측으로 돌출되어 있어 배면보다 길다. 기단의 높이는 정면은 오벌대이고, 배면은 외벌대로 이러한 지형 차로 인해 정면과 배면의 높이차가 큰 편이다. 기단 내밀기는 정면 기단이 석축 역할을 겸하다 보니 정면이 배면보다 약 2배 정도 더 내밀어져 있다.

정면 기단에는 대웅전 정칸에 맞추어 계단 1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계단은 가공한 화강석을 사용하여 10단으로 쌓아 올렸으며, 계단 아래에는 화기를 막는 해태상 2개가 놓여있다.

장대석으로 이루어진 지금의 기단과 달리 1975년과 1980년대 사진 자료로 판독컨대 대웅전의 기단은 외벌대 혹은 두벌대 기단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기단 정면 중앙에 삼층석탑이 위치하였다. 그러나 1995년 대웅전 도면을 살펴보면 과거 외벌대 혹은 두벌대 기단에서 면석에 문양이 있는 가구식 기단으로 변경되었고, 또 다시 2015년에 가구식 기단에서 현재의 오벌대 기단으로 변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1980년대 이후 대웅전을 보수하면서 기단의 형식이 외벌대 혹은 두벌대 기단에서 가구식 기단으로, 가구식 기단에서 오벌대 기단으로 변형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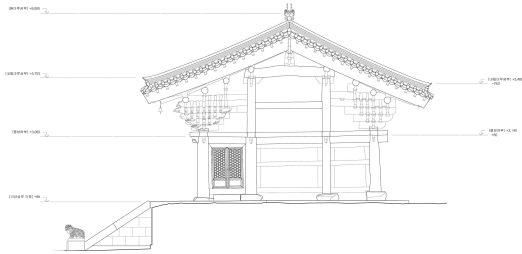
## 3) 초석

초석은 자연석을 사용하여 덩벙주초로 조성하였으며, 평주초석과 귀초석 등 모두 8개가 위치한다. 초석 대부분 상단이 평평한 방형의 부재를 사용하였으며, 그 위로 기둥을 그랭이질하여 올렸다. 정면 정칸의 초석에서는 주좌와 고매이 자리를 얇게 돈을새김한 고식 형태의 초석이 확인된다.

## 4) 기둥

기둥은 우주 4개, 평주 8개, 불벽고주 2개, 측면 상부 기둥 4개 총 18개가 사용되었다. 내부에는 고주를 사용하였으나, 측면 외벽에는 고주 대신 정면과 배면을 잇는 창방을 중심으로 상부 기둥과 하부 기둥을 나누어 설치하였다. 상·하부 기둥은 전체적으로 보존상태는 양호한 편이나 규모, 형태, 보존현황 등 차이가 확인된다. 곧고 세장한 규모의 부재를 사용한 측면 상부 기둥과 달리 하부 기둥은 비교적 규모가 크고 자연 그대로의 민흘림이 두었다. 이러한 모습은 중수 당시 마름질 시기가 다른 부재를 혼용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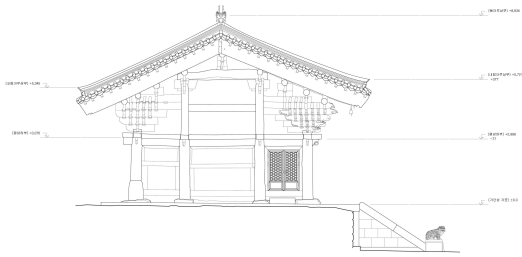




우측면도(풍판 제거)



우측면 전경



좌측면도(풍판 제거)



좌측면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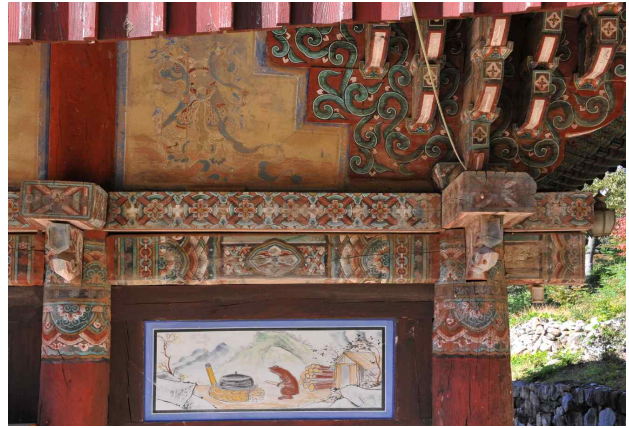
여 나타난 모습으로 보이며, 상부 기둥은 19세기 이후 중수 당시의 부재, 하부 기둥은 19세기 이전 시기에 치목된 부재로 추정된다.

기둥은 모두 원기둥을 사용하였으며, 자연 상태의 나무를 그대로 치목하여 전체적으로 민흘림이 있다. 정면의 경우 의장을 위하여 대체로 곧은 부재를 사용하였으며, 측면과 배면은 치목을 최소화하여 굽거나 흰 부재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기둥의 굽기는 0.5m 내외로 하부기둥이 상부기둥보다 굽다. 내부 고주는 외부 평주보다 가는 0.4m 내외로 외부 기둥보다 굽기가 가는 부재를 사용하였다.

배면 우측에는 정면과 측면 기둥과 달리 기둥 하부에 석주가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돌기둥의 설치는 범어사 대웅전, 운수사 대웅전 등 부산 일원에서 확인되는 승장 준영(俊英)의 건축기법과 연계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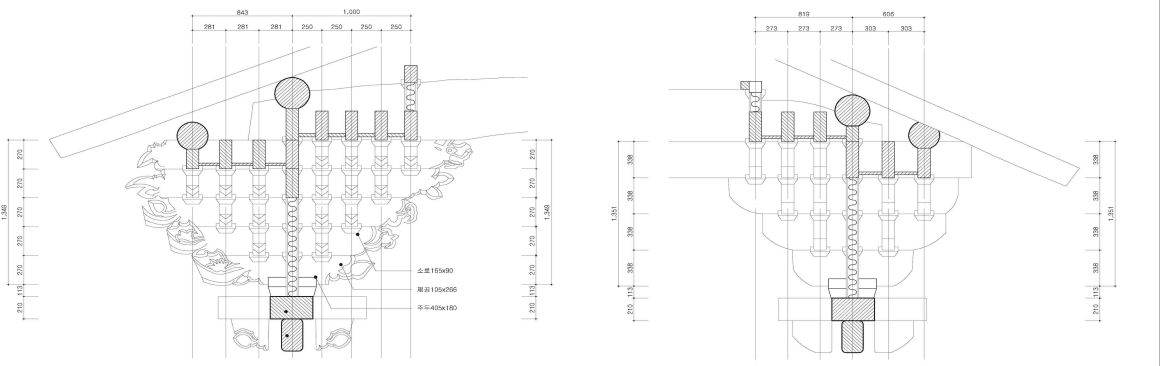
## 5) 평방 및 창방

평방은 창방과 같이 모두 12분이 사용되었다. 맞배지붕 건물임에도 팔작건물과 같이 기둥 상부에 창방과 평방을 올리고 상부 기둥을 올려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였다. 우주와 평주 기둥 상부에 평방을 걸고 창방뿔목과 같이 짧은 평방을 직교하게 결구하였다. 평방뿔목은 기둥 외면에서부터 약 0.4m 정도 내밀어져 있으며, 별도의 초각이나 장식 없이 마구리를 직절하였다.



평방(상) 및 창방(하)

창방은 평방과 같이 사면 기둥머리를 연결하며 모두 12분의 창방이 설치되어 사면의 모든 기둥머리를 연결하였다. 측면 평기둥 상부에는 ‘+’자로 화통가지를 내고 창방뿔목과 동일한 형태의 보아지를 걸고 창방을 결구하였다. 창방은 모두 모서리를 45°로 사절하였다. 정면과 측면의 창방뿔목은 하단에 연봉을 초각하고 상단의 마구리는 사절하였다. 배면 보방향 창방뿔목 중 우주에는 별도의 초각없이 하단의 단부만 직절하였다.



정면 및 배면 공포 단면



정면 귀포



배면 귀포

## 6) 공포

다포계 맞배건물이다 보니 정면과 배면에만 공포를 두었다. 정면은 내4출목·외3출목으로 구성하고, 주심포 사이에 각각 2구의 주간포를 두었다. 제공 및 첨차에는 앙서, 수서, 봉두형 등 다양한 형태로 화려하게 조각하였으며, 살미 내단은 연봉, 연화, 운공 등으로 장식하였다.

정면 우주 양쪽 상단에는 팔작지붕 건물과 동일한 방식의 귀한대를 둔 귀포를 설치하였다. 다만 귀포가 인접한 주간포와 결구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위치하며, 귀포 첨차와 주간포 첨차도 완전히 분리된 형태이다. 크고 화려한 귀포에 비해 주간포는 작은 규모로 이루어져 있다. 정간 주간포는 다소 넓은 간격으로 설치되었으나, 양 협칸의 경우 정면 주간포보다 좁은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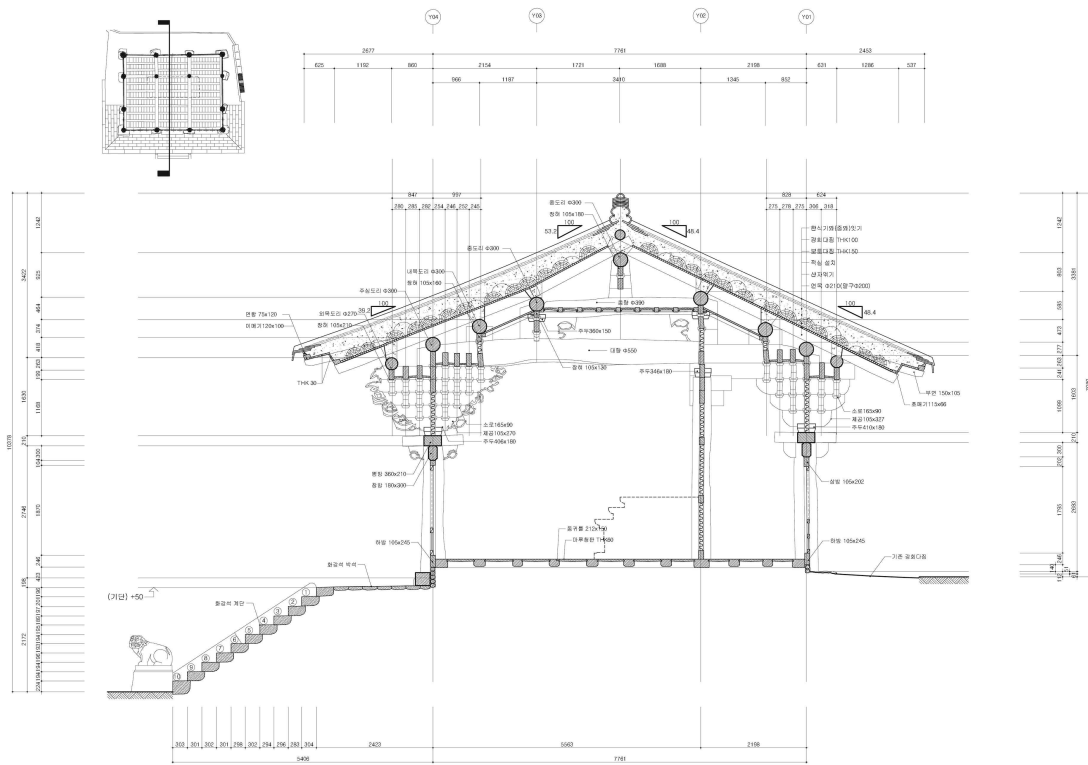
배면은 내3출목·외2출목으로 구성하고, 주심포 사이에는 각각 1구의 주간포를 두었다. 제공 및 첨차는 조각 없이 사절한 교두형으로, 내·외부 모두 별도의 장식 없이 간결하게 처리하였다. 정면 공포와의 높이차를 해결하기 위해 규격이 큰 부재를 사용하였다. 정면과는 달리 별도의 귀한대를 두지 않고 주간포와 형태의 공포를 설치하였다.

건물 규모에 비해 정면 공포는 화려하게 구성되어 정면성을 강조하고 주불전으로서 위계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배면 공포는 형식 및 장식 등에 있어서 정면의 주간포와 같은 양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 정면보다 공포형식이 상당히 간소하다. 따라서 형식 및 기법 등 조선 후기 전형적인 공포 특성을 갖추고 있다.

## 7) 보와 도리, 장여

2고주 7량가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나, 측면에는 실제로 고주가 아닌 상·하부로 나누어진 기둥이 위치한다. 일반적으로 7량가 구조의 맞배건물 측면에는 가구를 보강하기 위해 외부에도 고주를 세워 종보를 받친다. 그러나 이 건물은 팔작건물처럼 평주로 외진을 구성한 후 측면 정간 상부 평방 위에 상부 기둥을 세워 측면 가구를 구성하였다.

이처럼 분리된 측면 기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취약점을 보강하기 위해 상부 기둥 사이에 중방을 설치하였고, 정면과 배면의 귀포 상부 장여를 퇴보처럼 길게 구성하여 상부 기둥에 결구하였다.



중단면도

정면과 배면을 연결하는 대량 2개와 종도리를 지지하는 종량 4개 등 총 6개의 보가 위치한다.

정면 공포 내4출목 위에 대량을 고주에 의지해 맞보로 걸었으며, 상부가 위로 휘어진 자연 곡재를 사용하였다. 대량의 크기는 직경 0.5m 내외이며, 치목을 최소화하여 원형에 가까운 형태이다. 주심도리와 닿는 부분은 둥글게 처리하고 채공과 불벽고주 보아지 하단은 편평하게 치목하였다.

종량은 대량 위로 2개, 측면 상부 기둥 위로 2개 총 4개가 위치한다. 대량과 달리 바닥과 측면을 편평하게 다듬은 후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하였다. 보 중앙이 위로 약간 휘어진 형태의 직경 약 390mm의 부재를 사용하였다. 종보 중앙에는 판대공을 설치하여 종보를 받치고 있다.

종도리, 중도리, 내목도리, 주심도리, 외목도리 등 5종류의 도리가 위치한다. 모두 원형의 굴도리로 이루어져 있으며, 외목도리를 제외한 나머지 도리는 직경 0.3m 내외의 부재를 사용하였다.

도리 아래에는 지붕의 하중을 전달하는 장여가 위치하고, 춤이 폭보다 큰 부재를 사용하였다. 장여머리는 길이가 일정하지 않으며, 단부를 그대로 직절하였다.



## 8) 처마

맞배지붕 건물로 정면과 배면에만 처마를 구성하고, 연목과 부연을 함께 사용한 겹처마로 처리하였다. 지붕 측면에는 박공과 풍판을 설치하였다.

연목은 장연과 단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직경 0.2m 내외의 원형 부재를 사용하였다. 장연의 경우 종도리에서 외목도리를 지나 처마 끝까지 이어지며, 단연의 경우 종도리와 중도리 사이에 위치한다. 연목은 외목도리부터 끝단으로 갈수록 가늘게 깎아 끝걸기를 하였다. 부연은 각재를 사용하였고, 끝은 사절하여 처리하였으며, 연목과 같은 개수로 설치되어 있다.

지붕 처마내밀기는 정면과 배면 모두 1.8m 내외이다. 처마는 연목 위에 평고대와 착고로 막았으며, 부연 위로는 부연평고대를 설치한 후 연합을 놓아 암키와를 받쳤다.

## 9) 지붕

맞배지붕 건물로 측면에는 박공과 풍판을 설치하였다. 지붕마루는 용마루와 내림마루로 이루어져 있다. 기와는 중와를 사용하였으며, 1995년 보수공사 시 교체된 것이다.

용마루는 착고와 부고 위로 7단의 적새를 쌓고 숫마루장을 올려 마감하였다. 용마루 끝단에는 각각 용두를 올려 장식하였다. 이 용두 장식도 1995년 보수공사 시 망와에서 용두로 바뀐 것으로 판단된다. 내림마루 끝에는 망와를 두고, 처마 끝단에는 수막새와 암막새로 마무리하였다.

지붕 측면에는 비바람을 막기 위해 박공널과 풍판을 설치하였다. 마구리는 사절하고 풍판이 끝나는 지점에 톱니 모양으로 장식하였다. 박공널이 만나는 부분은 지네철로 마감하였다.

## 10) 수장

정면을 제외한 배면과 양 측면의 회벽에 단청하였으며, 벽면에는 신선도, 나한도, 설화도, 비천도 등 벽화가 그려져 있다. 공포 사이의 각 포벽에는 삼여래불, 신선도 등을 그렸다.

각 벽면에는 상인방, 중인방, 하인방 등의 인방과 주선, 문선, 벽선 등의 선대가 있다. 정면과 측면에 설치된 창호 위로는 상인방을 두고 아래에는 하인방을 설치하여 문지방으로 사용하였다. 창호 좌우로는 문선을 세워 문얼굴을 구성하였다. 하인방 아래에는 고막이벽이 설치되어 있다.

정면에는 사분합꽃살문, 측면에는 이분합꽃살문, 배면에는 이분합교살문 등 3종류의 창호가 사용되었다.

정면의 창호는 상단에 화문을 장식하고 하단의 궁판에는 서수를 초각하였다. 각 칸에 설치된 화문은 각기 다른 형식의 꽃살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정면 정간 창호는 육

각으로 구성된 문살에 육판화 무늬로 장식하였으며, 양 협칸은 교살 형식으로 틀을 짜고 살대 위에 국화, 모란, 연꽃 등의 꽃을 표현하였다. 측면 창호는 정면과 같이 화문으로 장식한 문살 아래 서수를 초각한 궁판을 설치하였다. 상단에는 육각으로 구성된 문살 위로 원을 표현하였다. 배면 창호는 두 짝의 교살창으로 구성되어있다. 상단에는 교살을 넣고 중단과 하단은 궁판으로 마감하였으며, 문틀에는 투박한 쌍사를 새겨넣었다.

내부 천장은 측면 정칸에는 중도리 장여에 맞추어 우물천장으로 마감하고, 중도리와 내목도리 사이는 빗반자로 마감하였다. 우물천장은 천장틀을 직교로 짠 후 반자널을 깔았다. 빗반자는 장여에 붙여 천장틀을 짜고 그 위에 판재를 올려 마감하였다.

#### 4. 지정가치 및 종합의견

창원 성주사는 835년(신라 흥덕왕 10)에 무염국사가 창건한 사찰로 현재까지 오랜 기간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경남의 대표 사찰 중 한 곳이다. 성주사 대웅전은 1681년(숙종 7)에 승려 상문이 중수하고 1817년(순조 17)에 다시 크게 중수하였다고 전해진다. 현재 대웅전과 관련된 상량이나 중수기 등 직접적인 연혁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으나, 부재의 치목상태, 건축형식, 보존현황 등을 통하여 중수가 이루어진 1817년 당시의 흔적이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웅전 연혁 고증을 위해 실시한 연륜 연대분석에서 하부 기둥은 19세기 이전 것으로, 창방과 평방을 비롯하여 상부기둥은 19세기 중수 이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 이 점에서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보고서에서 19세기 이전 중수 부재에 대해서 기록상 1817년 중수보다 앞선 1681년 중수 때 사용되었던 부재인지는 확인할 수 없고, 단지 추정할 뿐이다.

대웅전의 건축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평면에 있어서 내부 예불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후열정치법(後列正置法)으로 평면을 구성하였다는 점이다.

2) 팔작지붕이 아닌 박공지붕인 관계로 측면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측면 상부 기둥 사이 설치한 중방을 설치하였다는 점과 상부 기둥 측면과 맞닿아 정면과의 길이가 서로 다른 비대칭적 귀포 제공부재를 사용하였다는 점, 배면 퇴량 하부에 고주와 결구되는 제공 부재를 사용하였다는 점 등이다.

3) 다포계 박공지붕이기에 측면 상·하부 기둥 사이에 평방과 창방이 설치되어 있다

는 점과 하부 기둥 화통가지 위의 평방과 창방에 ‘十’자형으로 서로 직교하는 짧은 평방과 창방을 사용하였다는 점 등이다.

4) 공포는 정면을 화려하게 하고 배면을 상대적으로 정면 주간포처럼 간소하게 처리했다는 점과 박공지붕임에도 정면 모서리 귀포에 귀한대가 설치되었다는 점 등은 19세기 중수 당시 시대적 상황이 건축형식에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5) 배면 우주에 주형초석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조선 후기 당시의 건축형식과 지역적 특성이 반영되었다는 점 등이다.

6) 연륜 연대 분석 자료에 의하면, 치목에 의해 제거된 연륜 수는 10개가 되며, 벌채 연도는 1681년(1671+10)에  $\pm 4$ 년인 1677년에서 1685년 사이로 이때 성주사 대웅전이 중건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승려 상문의 대웅전 중수 연도(1681년)와 동계에 의한 성주사 사적문 제작 연도와 대략 일치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사항은

1) 19세기 중수 이전의 대웅전은 지금과 달리 팔작지붕 건물이었을 것으로 추정하나 임진왜란 이후 중수 과정에서 맞배지붕으로 변화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기록이 전무하여 본인을 비롯하여 참여하였던 관계전문가 누구나가 추정할 뿐이라는 점이다.

2) 사진과 그림 자료로 판단컨대, 1980년대까지 대웅전의 기단은 외별대 혹은 두별대 기단으로, 1995년에 가구식 기단으로, 2015년에 가구식 기단에서 현재의 오별대 기단으로 변경되었다는 점이다.

3) 1980년대 이전에는 정면 정칸 3짝, 양 협칸에 2짝인 분합문이었으나, 1995년 이후 현재 정칸과 양 협칸 모두 4짝 분합문으로 교체, 변경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건물은 19세기 이후 여러 번의 중수와 보수를 거치면서 외관상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는 기단, 창호 등이 건립 당시의 원형을 변형하여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나, 여러 번의 중수를 거치면서 이전 시기의 부재들이 혼용되어 조화를 이룬 모습이 오늘날까지 보존되어 있다는 점과 맞배지붕의 상부기둥과 하부기둥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건축기법이 사용되었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건대 역사적·건축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문화재로 생각되므로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다만, 기단의 경우 너무 현대적 이미지가 강해 추후 이에 대한 별도 자문을 거쳐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23. 02. 09.	대상문화재	창원 성주사 대웅전	
조사자	성 명	○○○	전공 분야	전통건축
	소 속	○○○○○○연구소	직위(직책)	소장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문화재 명칭	창원 성주사 대웅전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세부내용 별첨 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9월 23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 1. 역사적 가치

성주사는 835년 무염국사가 창건하고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것을 1604년에 중건하고 응신사라고도 불렀다고 전한다. 건립시기 및 응신사와 성주사의 관계를 밝힐 확실한 자료가 남아 있지 않으나 현재 남아 있는 「창원 응신사 신조불상 시주기(1655년)」, 「삼존불상 개금기(1729년)」 등을 통해 임진왜란으로 폐허된 응신사 옛 터에 17세기경 존속했고, 18세기경에는 성주사로 개명해 오늘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역사상과 관련해 성주사 대웅전을 언제 세웠는지 확실한 자료가 없어 알 수 없으나 현재 남아있는 건축형식으로 보아 조선후기의 건물로 추정된다.

## 2. 건축·학술적 가치

건축·학술적으로 정면 3칸, 측면 3칸에 규모에 정면 주칸은 동일 간살이나 측면 간살은 여칸이 헐칸보다 넓은 일반 다포계 맞배집과는 다른 주칸 설정, 불단 위치와 내진고주와의 관계는 정치형에 내진고주의 상부 결구양상은 차두주형인 점, 맞배집임에도 전·후면뿐만 아니라 측면에도 평방이 설치된 점, 양측벽에 중도리를 받는 일반적인 측2고주 대신에 평방 위에 별주로 중도리를 받는 독특한 지붕가구 기법, 전·후면에 설치된 공포구조는 간포 수·결구기법·첨차 및 제공 세부 치장·귀한대 사용 여부 등에서 서로 다른 공포형식으로 가구된 점, 간소하고 절제된 실내 장엄과 지붕가구, 건물고에 비해 큰 규모의 지붕으로 인한 시각적 불안정과 약한 지붕물매 등이 특징이다.

우리나라 사찰건축에서 17세기는 임진왜란 때 전소된 사찰의 많은 전각들이 승려, 일반 대중, 관의 지원 하에 중창 불사가 전국적으로 일어난 시기이다. 18세기부터는 17세기에 중창된 불전의 중수 및 불화·단청·벽화 장엄 불사와 전국의 중·소규모 사찰은 사원경제 및 불교의례, 사회적 변화에 순응해 주불전을 중심으로 중건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런 시기적 맥락과 연동해 임진왜란 이후 빈약한 사원경제에 기반한 지방의 소규모 사찰 주불전은 중건시 경제적, 기술적 여건에 따라 규모 축소 및 다포계 팔작집을 다포계 맞배집으로 변용 건축하는 사례가 많이 남아 있다.

이런 시기적 관점에서 성주사 대웅전은 현재 남아 있는 건축 형식으로는 조선후기에 중건할 때 다포계 팔작집을 다포계 맞배집으로 변용한 당시의 고유한 건축 특징이 명확치 않고, 여러 전각의 건축 부재를 재활용해 건축한 구조와 형태적 양상을 보여준다.

조선후기에 지방 소규모 사찰 주불전의 시기적 변화양상과 연동해 성주사 대웅전의 건축형식은 조선후기 건축사 연구에 자료적 가치는 있으나 국가지정문화재로써의 품격은 다소 미흡하다 판단된다.

##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23. 02. 09.	대상문화재	창원 성주사 대웅전	
조사자	성명	○○○	전공 분야	건축사
	소속	○○○○○○○○○○ 연구원	직위(직책)	원장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문화재 명칭	창원 성주사 대웅전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세부내용 별첨 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08월 18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 1. 연혁

창원 성주사는 835년(신라 흥덕왕 10)에 무염국사(無染國師)가 창건하였다고 하는데, 『성주사사적문』에 따르면 왜구들을 무염국사가 부처님의 힘으로 물리쳤고, 이러한 공을 높이 사 흥덕왕이 상을 내려 지금의 성주사를 짓게 하였다고 전해진다.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 당시 사역 내 대부분의 전각들이 소실되었으며, 1604년(선조 37) 진경대사가 중창하였다. 이때 곰이 불사를 도왔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어 성주사의 또 다른 이름인 ‘웅신사’라고 불리었다.

이후 1655년(효종 6)에는 현재 대웅전에 봉안되어 있는 창원 성주사 목조석가여래좌상을 조성하였으며, 1681년(숙종 7) 승려 상문에 의해 대웅전이 또 한 차례 중수되었다. 1773년(영조 49)에는 금파당 원혜(金波堂 圓慧), 1781년(정조 5)에는 지월당 광세(智月堂 廣世)의 승탑을 조성하고, 1783년(정조 7)에 동종을 새롭게 만들었다. 1817년(순조 17)에 이르러 대웅전을 다시 중수하였고, 1876년(고종 13)에 무염국사의 진영을 봉안하였다.

근대에 동래 범어사 대성암 암주로 있던 등암(藤巖)이 성주사로 옮겨 주석하면서 사찰이 크게 변하였다. 1919년에는 범종과 사찰 내 전각들을 수리하고 4동을 신설하였고, 성주사 입구에 위치하고 있던 삼층석탑을 지금의 위치(대웅전 앞)로 이전하였다. 이후 여러 전각들이 계획 없이 들어서고 지형을 변화시켜 옛 모습은 거의 사라지게 되었다. 성주사 대웅전과 관련된 주요 연혁은 아래와 같다.

연도	내용
835년(신라 흥덕왕 10)	- 무염국사가 성주사 창건
1592년(조선 선조 25)	- 임진왜란으로 전각 대부분 소실
1604년(선조 37)	- 진경대사가 중창
1681년(숙종 7)	- 승려 상문 대웅전 중수, 지장보살상 및 시왕상 등 봉안
1817년(순조 17)	- 대웅전 중수
1995년	- 대웅전 보수

즉 성주사는 1604년 진경대사가 현 위치에 중창하여 1681년 대웅전을 중수하였고 이후 1817년에 다시 중수되었다. 따라서 현재 대웅전은 1817년으로 중수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데, 보고서 및 현황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금의 대웅전은 한 시기가 아닌 여러 시기가 복합된 모습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규명하여 실제 중수시기를 연륜연대측정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육안으로 추정되는 이른 시기 부재, 즉 기둥과 대들보를 연륜

연대 측정하여 분석한 결과 측정한 5개 부재 모두 1671년으로 시기가 일치하므로 주요 구조부재 일부는 1681년 중수 시 사용된 부재임이 간접적으로 확인되었다.

즉 보고서상 1817년 중수 시 1681년 중수된 부재를 최대한 활용하고 당시 평면형식을 그대로 따르면서 당시 시대적,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고 한 추정이 확인된 것이다. 정리하면 창원 성주사 대웅전은 1817년 중수 시 기존의 부재와 평면형식에 맞추어 구조부를 구성한 후 당시 열악했던 상황에 맞추어 공포부 및 지붕부를 짜맞춰 조성한 것으로 이해된다.

## 2. 건축형식

### 1) 평면

성주사 대웅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 규모의 다포계 맞배건물로, 정면이 측면보다 넓은 장방형 평면을 이룬다. 내부는 전면은 감주하고 후면 고주는 정 위치에 두었다. 즉 예불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전면에는 기둥을 삭제하였으나 후면 고주는 뒤로 밀지 않은 모습으로, 측면 어칸을 비교적 넓게 잡아 내부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면서 구조적 안정성을 고려하였다. 기초 일부에서 주좌와 고맥의 흔적이 확인되었으며 기단은 후대에 새로 조성한 것이다. 다만 배면 우주가 석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범어사나 운수사 등 부산 일원에서 확인되는 승장 준영(俊英)의 건축기법과 연계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나 확실치 않다.

### 2) 가구 및 공포

성주사 대웅전은 2고주 2중량 5량가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나, 측면에는 고주 대신 상·하부로 나누어진 기둥을 설치하였다. 5량가 구조의 맞배건물 측면에는 가구를 보강하기 위해 고주를 세워 중보를 받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성주사 대웅전은 이와 달리 팔작건물처럼 평주로 외진을 구성한 후 측면 정칸 상부의 평방 위에 상부 기둥을 세워 측면 가구를 구성한 독특한 구성을 보인다. 상하로 분리된 측면 기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취약점을 보강하기 위해 상부 기둥 사이에 중방을 설치하였고, 정면과 배면의 귀포 상부 장혀를 퇴보처럼 구성하여 상부기둥에 결구하였다. 특이한 점은 중층가구를 구성하듯 하부 기둥머리에 창방과 평방을 각각 직교해서 짚 후 그 위에 상부기둥을 다시 올려 측면 상부기둥을 안정적으로 받치면서 구조 보강의 목적이 있는 듯하다. 상하기둥은 연륜연대측정을 통해 상하부가 각기 다른 시기에 중수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즉 17세기 중수 시 부재를 최대한 사용하여 하부 구조틀을 구성한 후 그 위로 새로운 부재로 구조를 구성하면서 상하부의 구조적 결함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여러 기법을 사용하여 측면 구조의 불안정성을 보완한 것이다.

공포를 확인해본 바 성주사 대웅전은 다포계 맞배건물로, 정면과 배면에만 공포를



두었으며 형식과 구성에 차이를 나타낸다. 정면은 내4출목·외3출목으로 구성하고, 주심포 사이에 각각 2구의 주간포를 두었다. 제공 및 첨차에는 앙서, 수서, 봉두형 등 다양한 형태로 화려하게 초각하였으며, 살미 내단은 연봉, 연화, 운공 등으로 장식하였다. 정면 우주 상단에는 마치 추녀가 있는 팔작건물처럼 귀한대를 둔 귀포를 설치하였다. 다만 귀포가 인접한 주간포와 결구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위치하며, 귀포 첨차와 주간포 첨차도 완전히 분리된 형태이다. 크고 화려한 귀포에 비해 평신포는 작은 규모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칸의 주간포 간격도 차이가 확인된다. 반면 배면은 내3출목·외2출목으로 구성하고, 주심포 사이에는 각각 1구의 주간포를 두었다. 제공 및 첨차는 초각 없이 사절한 교두형으로, 내·외부 모두 별도의 장식없이 매우 간결하게 처리하였다. 정면 공포와 제공 개수차를 해결하기 위해 정면공포보다 규격이 큰 부재를 사용하였다.

이처럼 성주사 대웅전은 맞배건물로서 구조적 특이성을 통해 건축적 가치를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 정면과 배면 공포의 격식이나 형식이 크게 차이가 있고 팔작지붕 건물처럼 귀포를 짜올리는 등 형식이 일관되지 않고 일견 조약하기도 하지만, 이전 시기의 평면구성과 재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구조방식을 연구하여 이를 실현하였을 뿐 아니라 건물 규모에 비해 정면의 과한 공포 구성 및 화려한 장식 등을 통하여 정면성을 강조하고 주불전으로서 위계를 강화하는 등 형식 및 기법 등에서 조선후기 권위건물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17세기와 19세기, 맞배와 팔작건축 형식을 조합하고 조화시키면서 현실적 문제도 해결하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가 엿보이는 독특한 건축물이라 하겠다.

### 3. 종합의견

창원 성주사는 835년(신라 흥덕왕 10)에 무염국사가 창건한 사찰로 현재까지 오랜 기간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경남의 대표 사찰 중 하나로 창원의 중요사찰이다. 또한 성주사 대웅전은 창원에 위치한 문화재를 확인해 본 바 창원 목조문화재 중 중요한 문화재 중 하나임은 분명하다. 현재 대웅전과 관련된 상량이나 중수기 등 직접적인 연혁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으나, 기둥 등 주요 구조부재, 부재의 치목수법, 평면형식, 보존현황 등을 통하여 현 위치 중창 후 첫 중수라 할 수 있는 1681년 당시 흔적이 상당수 남아있으며 그 외 모습도 대부분 1817년 중수 당시의 모습이다. 특히 대웅전의 연혁 고증을 위해 실시한 연륜연대분석에서 보, 기둥 등 주요부재들이 1677~1685년 사이에 치목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즉 19세기에 이루어진 중수 과정에서 새 부재를 교체하지 않고 기존 부재를 최대한 활용하였음을 보여주며, 중수 당시 열악했던 불교의 시대적·경제적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다. 새 부재를 확보하기 어려운 당시 상황에서 기존 부재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상하부가 분리된 측면구조 형식을 채택하였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건축기법을

사용한 모습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이다.

자세히 다시 살펴보면, 기존 기둥을 사용하기 위해 평방 및 창방을 기준으로 상·하부 기둥이 나눈 구조형식을 채택하게 되면서 상하부 전단 및 횡력에 취약한 단점이 생기게 되었다. 따라서 후열이주가 아닌 정치법을 사용하여 고주와 측면상부를 직접 결구하는 단순한 상부 가구구성, 측면 상부기둥 사이 중방 설치, 귀포 제공을 상부기둥 측면에 직접 결구, 내부 배면 퇴량 하부에 고주와 결구되는 제공부재 보강 설치, 하부 기둥 화통가지에 ‘十’자 형태로 결구한 평방과 창방, 간략하고 명확한 상부가구 구성, 약하게 조성된 지붕 물매 등 다양한 건축기법을 사용하여 이를 해결하였다. 이는 중수 당시 발생한 구조적, 경제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한 모습으로 성주사 대웅전의 가장 큰 건축적 가치가 된다.

이에 더해 성주사 대웅전에는 조선후기 건축기법과 시대적 상황이 반영된 건축형식이 잘 남아있다. 조선후기 건립된 주불전은 열악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주불전으로서 위계를 갖추기 위해 다양한 건축기법을 사용하였다. 대웅전 정면은 화려하게 장식한 평포와 귀한대를 둔 귀포로 처리하였고, 배면은 간략하게 치목한 공포를 설치하여 정면성을 강하게 부각하고 있다. 즉 주불전으로서 위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감하고 화려한 장식으로 정면 공포를 구성하고, 배면 공포는 경제성을 고려하여 단순하게 처리하면서 열악한 상황 속에서 주불전으로 위계를 갖추고자 노력한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으며 당시 시대적 상황이 건축에 반영된 좋은 사례이다. 여기에 지역적 특성이라 할 수 있는 부재도 확인된다. 비와 태풍이 잦은 남해안 일대에서 부재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석주를 사용하는 예가 일부 남았는데, 17세기 초 부산 일원에서 활동한 승장 준영이 사용한 건축기법으로 알려져 있다. 성주사 대웅전 배면 우측 기둥에도 석주가 사용되었는데 이는 승장 준영 집단의 영향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되며 남해안 일대의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건축기법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

#### ※ 대상 문화재의 핵심 보존가치

성주사 대웅전의 가치를 평하자면 오랜 기간 명맥을 이어온 경남의 대찰 중 하나인 성주사의 주불전이자 사찰의 역사가 담긴 공간으로, 중수 시기가 다른 부재들이 혼용됐으나 구조적 조화를 이루고 있어 비록 늦은 시기이긴 하나 19세기 불전 중에서도 독특하고 특징적인 모습이 잘 보존된 건물이다. 또한 조선 후기 당시 시대적·사회적·경제적 상황이 잘 반영되어 유지되고 있는 건축물이라는 점에서 높은 역사적·건축적 가치를 가진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비록 대웅전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부재는 19세기 교체된 것이나 17세기 부재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들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시도된 다양한 건축형식과 구조적 해결 방안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팔각지붕과 맞배지붕 구조의 조합의 시도, 당시 시대상을 반영한 여러 현황 등은 성주사 대웅

전의 건축적 가치를 높여준다 하겠다.

따라서 성주사 대웅전의 핵심 보존가치를 역사성 중 시대성·문화사적 기여도, 예술성 중 특수성·우수성·창의성, 학술적 가치 중 대표성·지역성·특이성·명확성·연구기여도, 공통사항의 동종 문화재와 비교검토·희소성에서 높은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문화재 가치를 보존하고 이후 연구를 통해 유사 사례와의 보편적 특징 혹은 특수성 등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 11. 울주 천전리 각석 지정명칭 변경 재검토

### 가. 제안사항

「울주 천전리 각석」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명칭 변경 신청을 다음과 같이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국보 지정 당시 기하학적인 문양과 각종 인물·동물상이 표현된 암각화보다는 제작시기와 내용이 명확한 신라시대 명문의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음. 이후 암각화에 대한 다양한 조사 연구가 이루어짐에 따라 선사시대 그림의 중요성이 재인식되고 있어 암각화로 명칭 변경이 필요함.
  - 현재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반구천의 암각화’에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와 함께 등재 핵심 요소이므로 명칭 일원화 필요.
- ※ ‘23년 문화재위원회 제10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23.10.19.) : 보류
  - 지정명칭안 재검토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울산광역시
- (2) 대상문화재 : 울주 천전리 각석
  - 소재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산 210-2
  - 지정일 : 1973. 05. 04. / 국보 지정
- (3) 신청내용 :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명칭 변경

현행 명칭	변경 신청 명칭
울주 천전리 각석 (蔚州 川前里 刻石)	울주 천전리 암각화 (蔚州 川前里 岩刻畫)

- 라. 현지조사 의견(‘23.08.08. /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 (○○○) 암반에 수많은 동물상의 암각화와 신라사 연구에 중요한 금석문이 동시에 새겨진 유적이고 명문상 서석곡(書石谷)이라 부른 기록이 있으므로
    - ▶ ‘울주 천전리 암각화 및 서석곡’, ▶ ‘울주 천전리 암각화 및 명문’ 제안함.
  - (○○○) 문자와 문양, 다양한 그림 등이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암각화’로 명칭변경 하는 것이 타당함. 또한 ‘각석’은 통상 이동 가능한 석재의 명문을 칭하는 것으로 이해됨.
  - (○○○) 현재의 명칭은 선사시대의 암각화보다 신라시대의 명문만을 지칭하는 의미로만 인식될 수 있으므로, ▶ ‘울주 천전리 암각화와 신라 명문’, ▶ ‘울주 천전리 암각화 및 신라 각자’ 등을 제안함.

마. 추가 의견(‘23.11.16. / 문화재위원 ○○○)

- 기왕에 지정되어 있는 반구대 암각화의 공식명칭이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인 점을 고려할 때 “울주 천전리 각석” 역시 같은 순서로 배열해 명칭을 정하는 것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됨. 이는 “반구천 일원의 암각화”라는 주제하에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와 “천전리 각석”이 동시에 세계 문화유산 등재가 추진되고 있어 명칭 역시 통일성을 꾀하는 게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임.
- 이에 따라 천전리 각석 역시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의 예에 따라 행정구역상 현재 지명(울주 대곡리) + 현지에서 전하는 지역명칭(반구대) + 암각화로 정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현재 지정 명칭인 “울주 천전리 각석”은 현재의 지명과 석각에서 확인되는 옛 지명을 조합해 변경하는 것이 “반구천 일원의 암각화”라는 전제와 유적이 명칭에서 일관성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됨. 이에 따라 “울주 천전리 각석”의 명칭은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의 예에 따라 울주 천전리 서석곡 암각화(蔚州 川前里 書石谷 岩刻畫)로 바꾸는 안도 추가로 제시함.

**바.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지정 명칭은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로 변경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 조건부가결 8명

# 의견서

□ 조사일시 : 2023. 08. 08.(화)

□ 조사내용 : 울주 천전리 각석 문화재 명칭변경

□ 조사의견

천전리 각석은 1970년 12월 24일, 동국대학교 박물관 불적조사단에 의해 발견된 이래 1973년 5월 국보 제147호로 지정되었다. 발견 당시에는 “울주 천전리 書石”이라 불리워졌지만 국보 지정시 “蔚州 川前里 刻石”으로 확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천전리 각석에는 동물상 52점, 인물 24명, 기하문 81점, 문자 127자 등 모두 625점의 다양한 물상이 새겨 있다. 이중 동물상에는 고래와 사슴, 말 등이 중심을 이루고 있어 인근에 자리한 반구대 암각화와 일맥상통하는 면면을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하단부에 새겨진 명문을 통해 신라 법흥왕대인 525년과 539년에 왕경에서 귀족, 승려 화랑 등이 이곳을 찾았음을 알려주고 있다. 특히 525년의 명문에 의하면 이곳의 지명을 법흥왕의 동생이 사부지갈문왕이 “書石谷”이라 정했음을 밝히고 있다. 이처럼 천전리 각석에는 인근의 반구대 암각화와 동일한 문화상을 보여주는 다양한 동물상과 더불어 신라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금석문이 공존하고 있다. 때문에 유적에 대한 초기의 연구는 자연스레 금석문에 모아졌고, 이 같은 경향은 “울주 천전리 각석”으로 지정 명칭이 정해지는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와 “울주 천전리 각석”을 하나의 유적으로 묶어 “반구천 일원의 암각화”라는 명칭으로 세계문화유산으로의 지정을 추진하는 가운데서 “울주 천전리 각석”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논의가 시작되었다. 즉, 유적의 명칭을 “울주 천전리 암각화”로 변경해 기왕의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와 통일성을 이루고자 했다. 이에 따라 2023년 6월 23일에 개최된 울산광역시 문화재위원회에서도 명칭변경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이를 원안가결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2023년 7월 11일에 개최된 “국보 울주 천전리 각석 명칭 변경을 위한 학술세미나”가 개최되어 기왕의 “울주 천전리 각석”으로 불리우던 유적의 명칭을 “울주 천전리 암각화”로 변경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된 바 있다.

刻石이라는 명칭은 “글자나 무늬 따위를 돌에 새김”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즉, 비석과 같이 다듬은 석재에 글씨 등을 새긴 유물을 부르는 명칭이다. 하지만, 이 유적은 너비 9.5m, 높이 2.7m의 암반에 수많은 동물상의 암각화와 신라사 연구에 중요한 금석문이 동시에 새겨진 유적이다. 따라서 이 유적에 대한 명칭으로 사용된 “각석”이란 용어는 부적절한 표현임을 알 수 있다. 아마도 현재 사용되는 유적의 명칭은 발견 당시부터 암각화보다는 명문의 내용 판독과 이에 대한 연구에 집중된 당시의 연구 경향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 따라서 울주 천전리 각석이라는 지정 명칭의 변경되어야 한다는 현지 및 세미나의 결론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술세미나에서 결론으로 도출한 “울주 천전리 암각화”로의 변경은 유적의 전체적인 내용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즉, 이 유적은 암각화와 금석문이 공존하는 복합적인 유적이다.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는 신석기대 후기로부터 신라시대를 아우르는 넓은 시간적인 영역을 지니고 있다. 더불어 초기에 유적의 명칭을 정하면서 범흥왕대의 각석에 주목했던 석학들의 의견 또한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유적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유적이 지닌 전체적인 특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은 유적의 상황을 볼 때 변경되는 지정 명칭에는 암각화와 금석문을 포함하는 내용이 모두 포함 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유적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암각화”라는 명칭의 사용에는 문제가 없다. 따라서 “**울주 천전리 암각화 + 금석문**”의 내용으로 정리된 명칭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금석문을 표현함에 있어 다음의 두 가지 안이 대두된다.

첫째, 암각화와 함께 새겨진 명문에,

“乙巳年(525년, 범흥왕 12년) (前略) 옛날부터 이름이 없던 골짜기였는데, 좋은 돌을 얻어 쓸 수 있게 되니 이름 짓기를 書石谷이라 하시고 글자를 적게하셨다. (後略)”

라는 내용에서 암각화와 더불어 암각화가 새겨져 있고, 이어 글자를 새겼던 암반이 있는 이 계곡을 서석곡이라 命名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암각화와 금석문이 새겨진 유적이 존재하는 계곡의 지명을 혼합한 “**울주 천전리 암각화 및 書石谷**”



둘째, 암각화와 더불어 金石이나 器皿 따위에 새긴 글을 지칭하는 銘文이라는 용어를 조합해 “울주 천전리 암각화 및 銘文”

기왕에 불리우던 “울주 천전리 각석”이라는 지정명칭은 유적의 특성을 전체적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지정명칭의 변경을 요망하는 의견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유적이 지닌 특수성을 고려할 때 상기의 두 가지 안을 제안한다.

문화재위원     ○○○ (인)

# 의견서

□ 조사일시 : 2023. 08. 08.(화)

□ 조사내용 : 울주 천전리 각석 문화재 명칭변경

□ 조사의견

울주 ‘천전리 각석’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에 있는 선사시대 바위그림유적이며 삼국시대에 새긴 명문도 함께 있다. 태화강의 지류인 대곡천의 중간 지점에 있고, 그림이 새겨진 바위는 연한 갈색 판암석으로 그림이나 글씨를 새기기 좋은 무른 암질이다. 바위면이 떨어져나간 쪽이 많아 뚜렷한 모습을 알 수 없는 그림도 있다.

‘천전리 각석’은 우리나라 최초로 학계에 보고된 암각화 유적으로 발견 당시에는 명문에 비해 암각화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국보 지정 시 명문이 평가 가치의 중심이 되면서 각석으로 칭하게 되었다. ‘천전리 각석’ 이후 약 30여 곳에 새로운 암각화 유적이 확인되었고, 천전리 암각화에 대한 연구 성과가 축적되면서 유적의 유형상 명칭을 암각화로 칭하고 있다. 이에 울주군은 유사 문화재는 대부분 암각화로 칭하고 있는 반면 최초로 보고된 ‘천전리 각석’만 암각화가 아닌 각석으로 불리고 있어 유적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더불어 반구천 일원의 암각화 중 하나로써 세계유산 등재를 준비 중인 ‘대곡천 암각화’를 구성하는 중요 유적이므로 시대적 요구와 세계유산 등재 상의 이유로 ‘천전리 암각화’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한다.

현지에서 검토한 바 1973년 지정 당시 ‘원명’과 ‘추명’ 등 명문에 학술적 가치를 부여하여 문화재 명칭을 정했으나, 이후 기하학적 문양, 동물상, 인물상 등이 확인되면서 총 625개의 문양 중 문자가 127개, 그림이나 형태를 알 수 없는 것이 307개로 문자와 문양, 다양한 그림 등이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암각화로 명칭변경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또한 유사한 문화재들이 모두 암각화로 칭해지고 있어 문화재 명칭의 통일성을 위해서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특히 ‘천전리 각석’의 ‘각석’은 통상 이동 가능한 석재의 명문을 칭하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일반인이 바위에 새겨진 그림과 글씨 모두가 표현되어 있다고 이해하기에 충분치 않다고 판단되는 면도 있어 명칭 변경의 필요성은 충분히 확인하였다.

다만 단순히 ‘천전리 암각화’라 변경할 경우 암각화가 그림과 글씨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의 명칭이라 하나 그림 위주로 설정된 개념의 명칭이므로, 문화재의 원래 가치로 평가되는 명문에 대한 내용이 표현될 수 있는 새로운 명칭의 검토는 필요하다 사료된다.

문화재전문위원     ○○○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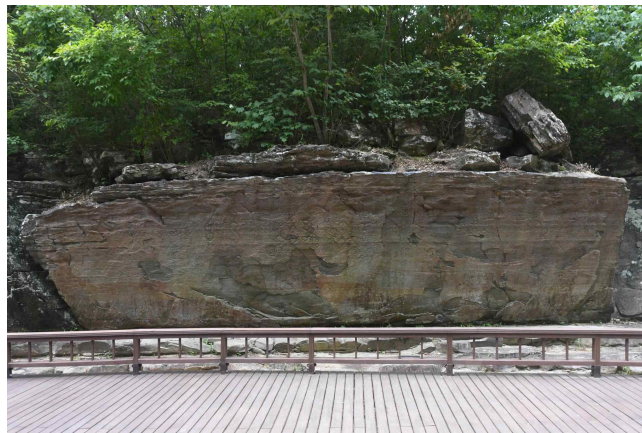
# 의견서

□ 조사일시 : 2023. 08. 08.(화)

□ 조사내용 : 울주 천전리 각석 문화재 명칭변경

□ 조사의견

울주 천전리 각석(蔚州 川前里 刻石)은 태화강 물줄기인 대곡천의 중류에 있는 암벽에 각종 도형과 그림, 명문이 가득 새겨진 문화유산으로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높아 1973년 국보로 지정되었다. 이 문화유산은 여러 연구 결과에 의하면, 같은 암벽에 선사시대의 사회상을 보여주는 암각화와 더불어 신라시대 6세기경의 사회상을 담고 있는 명문이 함께 새겨져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래서 동일한 암벽에 선사시대부터 역사시대인 신라시대까지의 사회상을 함께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이처럼 ‘울주 천전리 각석’은 여러 시대의 다양한 역사와 문화를 동시에 전해주고 보여주는, 多時代 複合 文化遺産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울주 천전리 각석’ 전경과 도면

그런데 지금까지 사용해 온 ‘울주 천전리 각석’이라는 명칭에서 ‘각석(刻石)’은 ‘석각(石刻)’과 비슷한 의미로, 어떤 내용이나 사실 등을 알리기 위하여 돌의 표면에 문자나 기호 등을 새긴 것이라는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만, 현재의 명칭은 선사시대의 암각화보다 신라시대의 명문만을 지칭하는 듯한 한정적인 의미로만 인식될 수도 있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이 문화유산의 경우 청동기시대의 암각화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문화유산 형성의 시발점도 선사시대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선사시대의 암각화가 명칭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그 의미가 부여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울주 천전리 암각화’는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와 더불어 역사적, 학술적 중요성과 가치가 높고, 그러한 것을 대내외에 알리는 등 앞으로의 활용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에도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문화유산 명칭은 그 문화유산이 담고 있는 역사적, 학술적 의미와 가치 등을 포함하고, 그러한 것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시대적인 요구나 변화, 활용이라는 측면만을 고려하여 명칭을 정하거나, 기존의 명칭을 변경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시대적인 요구나 변화, 활용은 우리 시대의 사조이고, 시간이 흘러 상황이 바뀌면 변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화유산 명칭은 우리 시대의 시각과 기준이 아닌 그것이 만들어진 그 시대의 특성이나, 만든 사람의 의도 또는 의미가 반영되도록 해야 하며,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닌 문화유산 그 자체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울주 천전리 각석’은 선사시대의 암각화와 더불어 신라시대 새겨진 명문도 그것을 새긴 시기와 의미 등을 고려할 때 역사적, 학술적 가치를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선사시대 암각화와 신라시대 명문을 동시에 아우를 수 있는 명칭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여러 측면을 고려할 때 ‘울주 천전리 각석’보다는 ‘울주 천전리 암각화와 신라 명문’ 또는 ‘울주 천전리 암각화 및 신라 각자’ 등 선사시대 암각화와 신라시대 명문의 중요성과 가치를 동시에 아우를 수 있는 다양한 명칭이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울주 천전리 각석’이라는 기존 명칭은 한계가 있으므로, 명칭 변경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며, 새로운 명칭은 신라시대 명문과 함께 선사시대의 암각화가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문화재전문위원      ○ ○ ○ (인)

## 12. 남한산성 수어장대, 승렬전 문화재 지정 및 보호구역 조정 검토

### 가. 제안사항

경기 광주시 소재 보물 「남한산성 수어장대」, 「남한산성 승렬전」 국가지정 문화재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 신청 사항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보물 「남한산성 수어장대」, 「남한산성 승렬전」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을 검토 받고자 하는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 (2) 대상문화재
  - 가. 보물 「남한산성 수어장대」
    - 소 재 지 :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815-1
    - 지 정 일 : 2021. 12. 27.
  - 나. 보물 「남한산성 승렬전」
    - 소 재 지 :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717
    - 지 정 일 : 2022. 11 .25.
- (3) 신청내용 : 「남한산성 수어장대」, 「남한산성 승렬전」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안(붙임 참조)
  - 조정사유 : 경기도의 지적측량·분할 결과에 따라, 실제 지적과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의 불일치 사항 현행화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 원안가결 8명

붙임 : 남한산성 수어장대, 남한산성 송렬전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지번 조서  
및 지형도면 1부.

[붙임] 「남한산성 수어장대」, 「남한산성 승렬전」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지번 조서 및 지형도면

【 지번 조서 】

1. 문화재구역

가. 보물 「남한산성 수어장대」 \*변경없음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815-1	사	2,380.0	167.1	국유 (문화재청)	
계			<b>2,380.0</b>	<b>167.1</b>		

나. 보물 「남한산성 승렬전」

【당초】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	경기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717	사	2,013.0	48.3	국유 (재정경제원)	
계			<b>2,013.0</b>	<b>48.3</b>		
【변경】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	<u>경기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717</u>	사	2,013.0	48.3	국유 (재정경제원)	
계			<b>2,013.0</b>	<b>48.3</b>		



## 2. 보호구역

### 가. 보물 「남한산성 수어장대」

【당초】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1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815-1	사	2,380.0	2,212.9	국유(문화재청)	
2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815-2	사	248.0	248.0	국유(문화재청)	
3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815-3	임	2,780.0	2,780.0	경기도	경기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1
4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산23	임	108,298.0	2,550.0	경기도	경기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1
5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산26	임	298.0	298.0	국유(산림청)	
6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산27	임	298.0	52.0	국유(문화재청)	
7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산36	도	4,464.0	71.0	국유 (국토교통부)	
계			<b>118,766.0</b>	<b>8,211.90</b>		
【변경】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1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815-1	사	2,380.0	2,212.9	국유(문화재청)	
2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815-2	사	248.0	248.0	국유(문화재청)	
3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815-3	<b>사</b>	2,780.0	2,780.0	경기도	<b>경기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b>
4	<b>경기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815-4</b>	<b>임</b>	<b>2,272.0</b>	<b>2,272.0</b>	경기도	<b>경기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b>
5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산26	임	298.0	298.0	국유(산림청)	
6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산27	임	298.0	52.0	국유(문화재청)	
7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산36	도	4,464.0	71.0	국유 (국토교통부)	
8	<b>경기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산25</b>	<b>임</b>	<b>298.0</b>	<b>298.0</b>	<b>국유(산림청)</b>	
계			<b>13,038.00</b>	<b>8,231.90</b>		

나. 보물 「남한산성 송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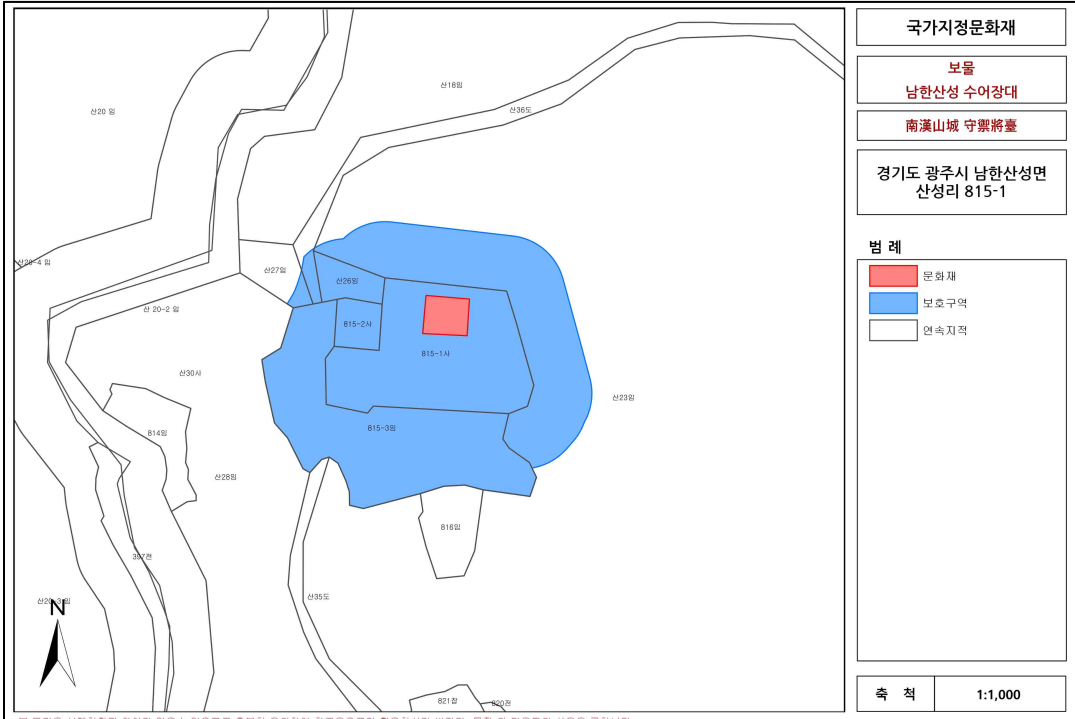
【당초】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1	경기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716	전	1,526.0	1.0	국유 (재정경제원)	
2	경기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717	사	2,013.0	1,964.7	국유 (재정경제원)	
3	경기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718-1	전	1,498.0	557.0	광주시	경기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4	경기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731-1	전	1,236.0	352.0	○○○	
5	경기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731-2	전	89.0	89.0	국유 (재정경제원)	
6	경기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1220	구	5,134.0	149.0	국유(문교부) 외 1인	
7	경기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산18	임	83,372.0	1,914.0	경기도	경기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1
8	경기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산19	임	793.0	793.0	국유 (산림청)	
9	경기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산20	임	496.0	263.0	국유 (산림청)	
계			<b>96,157.0</b>	<b>6,082.7</b>		
【변경】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1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716	전	1,526.0	1.0	국유 (재정경제원)	
2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717	사	2,013.0	1,964.7	국유 (재정경제원)	
3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718-1	전	1,498.0	557.0	광주시	경기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4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731-1	전	1,236.0	352.0	○○○	
5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731-2	전	89.0	89.0	국유 (재정경제원)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6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1220	구	5,134.0	149.0	국유 (기획재정부)	
7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717-2	임	<b>1,641</b>	<b>1,641</b>	경기도	경기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8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산19	임	793.0	793.0	국유 (산림청)	
9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산20	임	496.0	263.0	국유 (산림청)	
계			<b>14,426.0</b>	<b>5,809.7</b>		

# 【 지형도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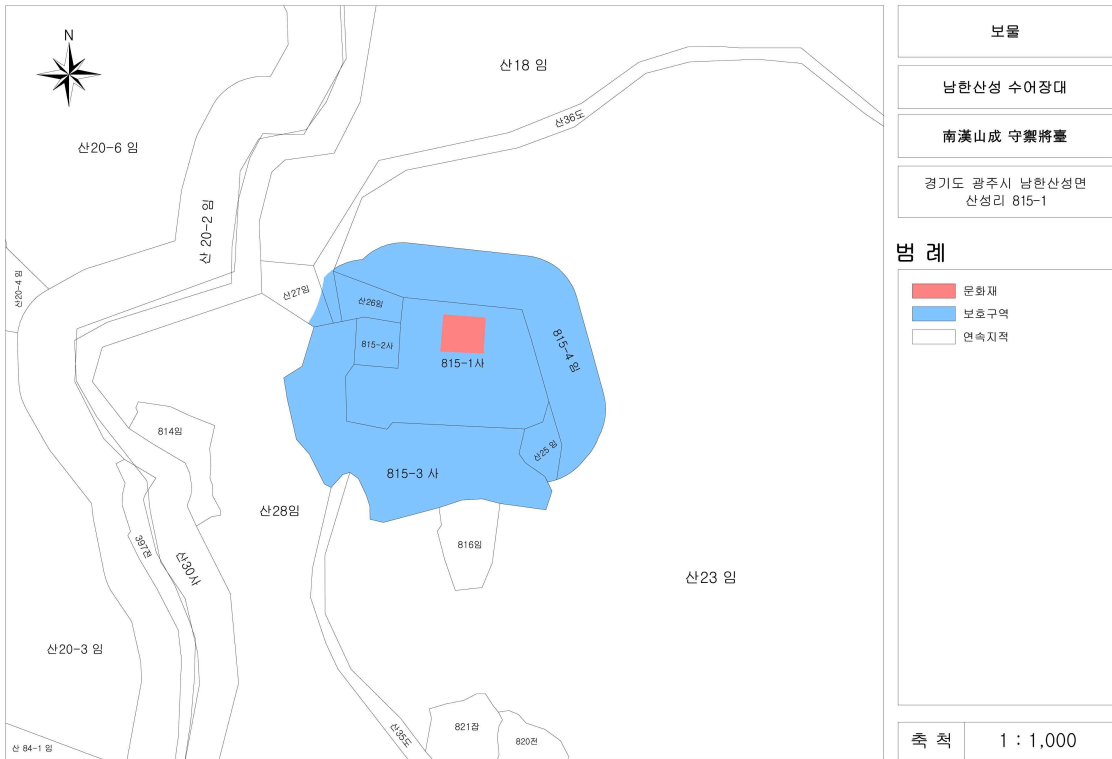
## 1. 보물 「남한산성 수어장대」

【당초】

\*문화재청 고시 제2021-173호(2021.12.27.)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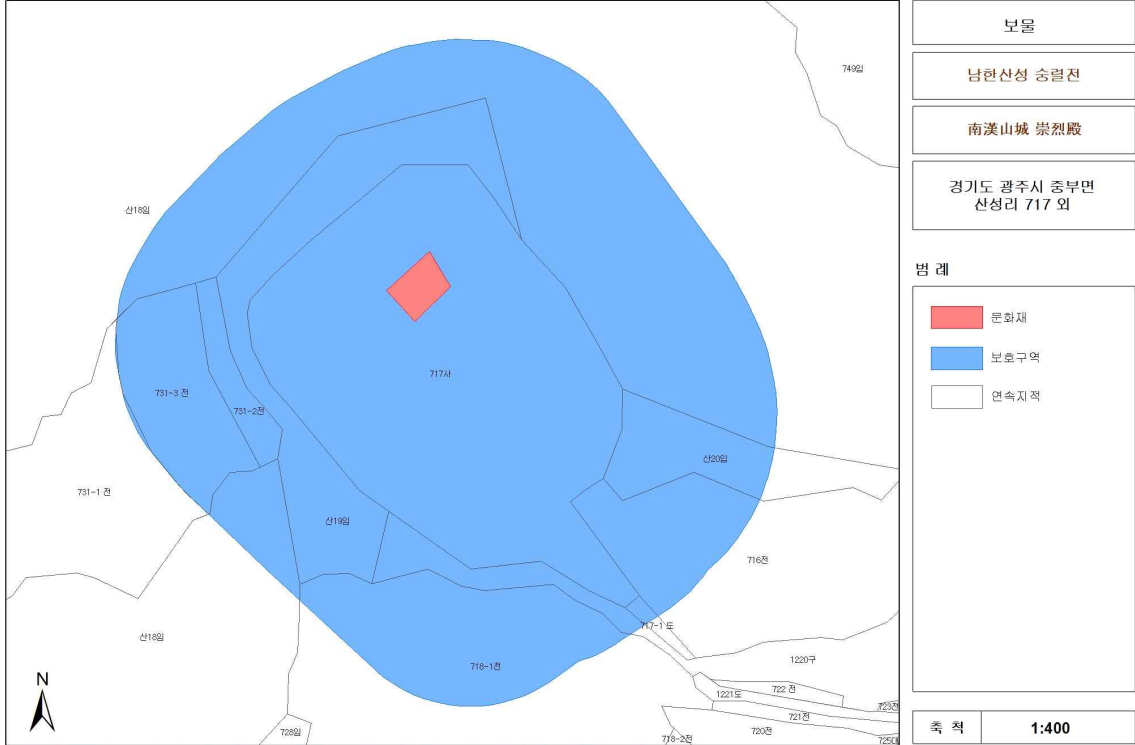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 2. 보물 「남한산성 송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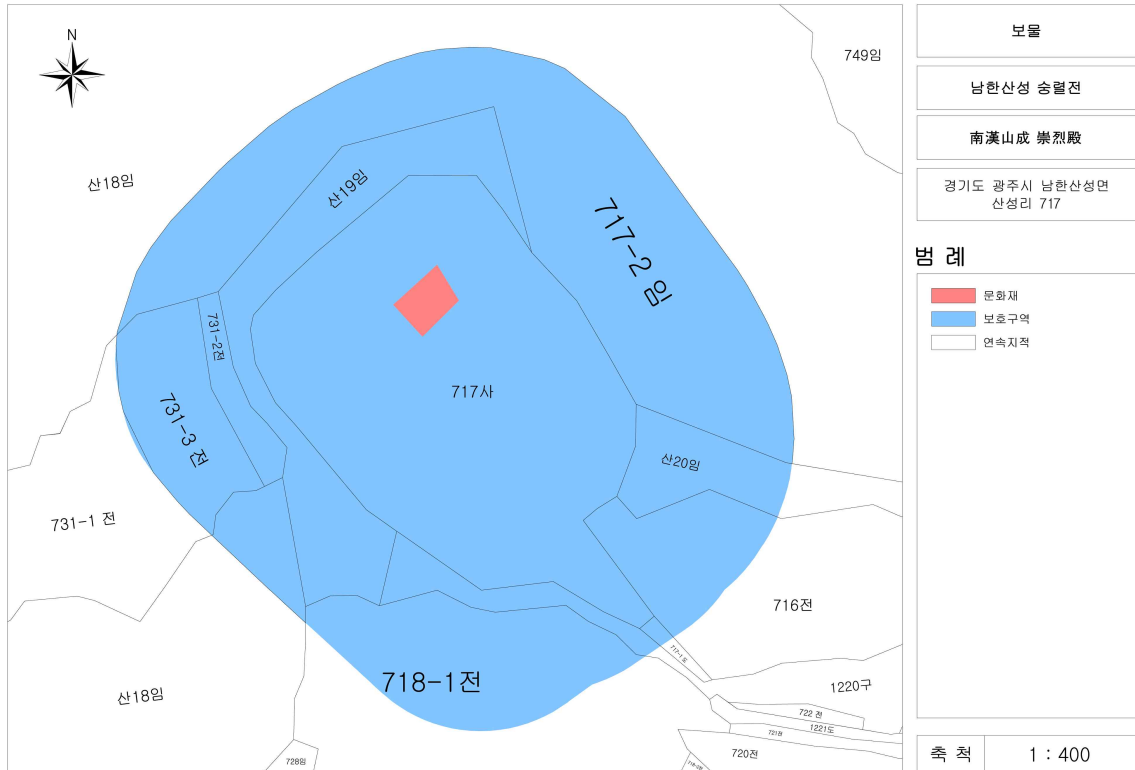
**【당초】**

\*문화재청 고시 제2022-144호(2022.11.25.)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변경】**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 13. 함양 벽송사 삼층석탑 주변 선원 건립 기본설계(안) 검토

#### 가. 제안사항

'23년도 보물 「함양 벽송사 삼층석탑」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함양 벽송사 삼층석탑 주변 선원 건립 기본설계(안)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23년도 보물 「함양 벽송사 삼층석탑」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함양 벽송사 삼층석탑 주변 선원 건립 기본설계(안)에 대해 검토 받고자 하는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대한불교조계종 벽송사 주지
  - (2) 대상문화재 : 함양 벽송사 삼층석탑
    - 소재지 : 경남 함양군 마천면 광점길 27-59
    - 지정일 : 1968. 12. 19.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남 함양군 마천면 광점길 27-59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문화재로부터 60m 이내
    - 사업내용 : 선원 건립
      - 건축 및 연면적 : 152.45㎡(약46평)
      - 층 수 : 지상1층 / 팔작지붕
      - 구조 : 전통한식 목구조
- ※ 문화재보수정비사업(총액)-설계(2023년)
- 사업예산 : 총 100백만원(국비 70백만원, 지방비 30백만원)

라. 현지조사 의견('23.09.05. /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 신청부지는 삼층석탑이 있는 벽송사 중심사역의 상단으로 신청건물이 들어설 경우 문화재 주변 경관저해 우려가 있으므로 위치를 조정하는 것이 좋겠음.

마.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경관 저해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 부결 8명

## 14. 장성 백양사 오백나한전 복원 기본설계(안) 검토

### 가. 제안사항

‘23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전남 장성군 소재 보물 「장성 백양사 소요대사탑」 주변 백양사 오백나한전 복원 기본설계(안)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23년 문화재보수정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보물 「장성 백양사 소요대사탑」 주변 백양사 오백나한전 복원 기본설계(안)에 대하여 검토 받고자 하는 사항임.

### 다. 주요내용

(1) 대상문화재 : 장성 백양사 소요대사탑

- 소재지 : 전남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20번지
- 지정일 : 2002. 09. 25.

(2) 사업내용

- 사업위치 : 전남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16번지
- 사업예산 : 20,000천원(국비 14,000천원, 지방비 6,000천원/ 설계비)
- 사업지침 : 타당성 조사 및 시발굴조사를 토대로 오백나한전을 복원설계함.
- 사업개요

① 오백나한전 설계안

분류	1안	2안	비고
면적	281.52㎡(85.16평)	좌동	
규모	정면 7칸, 측면 3칸	좌동	발굴유구 규모
구조	5량가, 익공식	좌동	

분류	1안	2안	비고
양식	주심포양식 (화순 쌍봉사 오백전 나한상을 백양사로 이전한 역사성 고려)	다포양식 (타 사찰 오백나한 건물 사례조사 및 나한상 규격 고려)	
지붕	겹처마, 맞배지붕	좌동	
높이	10.6m	좌동	

② 오백나한전 나한상 배치 계획

- 1안 : 배면, 측면배치 / - 2안 : 분산배치

③ 문화재보수정비사업의 지침변경

- 현행 : 타당성 조사 및 시발굴조사를 토대로 오백나한전을 복원설계함.
- 변경(안) :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오백나한전 건립 설계한다.
- 사유 : 타당성조사(2017년), 시굴조사(2020년), 발굴조사(2021년), 관계전문가 자문 등을 고려하여 오백나한전 복원 사업추진 방향 재설정 필요

라. 현장 자문의견

○ (1차) 2023.04.21. / 前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 1928년 쌍봉사에서 오백나한을 모셔오면서 묘사체에 임시로 모신 것으로 판단됨.
- 발굴된 유구는 오백나한을 모셨던 역사성이 있으나 평면은 묘사체의 형태이고, 오백나한을 모시기에는 협소한 점이 있으므로 기존 유구는 보존조치하고, 기 조성되어 있는 오백나한상을 모실 수 있는 규모로 확장하는 것이 좋겠음.
- 건축물의 양식은 현재 남아 있는 나한상의 시기와 타 나한전의 사례를 참고하여 결정토록 함.

○ (2차) 2023.09.15. / 前문화재위원 ○○○,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 발굴조사와 관련 문헌기록 그리고 조선고적도보의 백양사 나한전(묘련암) 사진 검토 결과, 출토된 건물지는 쌍봉사의 오백나한을 급히 이운하여 모시기



- 위해 요사채 내부를 개조한 건물이므로 오백나한을 모시는 전각으로 복원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 됨.
- 따라서, 묘련암 요사채로 사용되었던 건물지를 나한전으로 복원하기보다는 기존 발굴유구는 보호조치하고, 오백나한전을 신규로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신규로 건립되는 오백나한전은 1928년 쌍봉사 오백전에서 백양사로 이운한 나한상의 역사성을 고려하여 「화순 쌍봉사 오백전」과 유사한 형태로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건립되는 오백나한전의 규모는 백양사에서 신규로 제작한 나한상의 크기를 고려하고, 타 사찰 나한전 사례조사를 검토하여 규모를 설정하는 것이 좋겠음.

####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2차 현지조사 의견대로 추진하되, 위치 및 규모를 축소 조정토록 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 조건부가결 8명

## 【보고사항】

안건번호 건축 2023-11-015

### 15.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처리결과 보고

#### 가. 보고사항

충남 서산시 소재 국보 「서산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 주변 주거지역 위험목 제거 등 허가신청 28건에 대하여 자체검토회의 등을 거쳐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 나. 처리내용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소 계		28건	원안가결 18건 조건부가결 6건 부결 4건	
국보 서산 용현리 마애여래 삼존상	충남 서산 (○○○)	<input type="checkbox"/> 주거지역 위험목 제거 ○ 위치 : 서산시 운산면 용현리 산12-2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약 360m 이격) - 개별검토 ○ 내용 : 수목 8본 제거 - 사업량 : 면적 345㎡, 재적 1.58㎥, 분수 8본 - 수목 : 단풍나무, 벚나무, 밤나무, 기타 활엽수 - 경급 : 22cm내외(14cm~30cm) - 수고 : 14m내외(11m~16m) - 작업기간 : ~23. 11. 30.	원안가결	'23.10.23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p style="text-align: center;"><b>보물</b> 청송 대전사 보광전</p>	<p style="text-align: center;">경북 청송 (○○○)</p>	<p>□ 주왕산 상가지구 거리환경 개선</p> <p>○ 위치 : 청송군 주왕산면 상의리 205-3 외 3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약 50m 이격)</p> <p>- 개별검토</p> <p>○ 내용 : 상가지구 거리환경 개선</p> <p>- 목책 철거 : H=1.5m L=134m</p> <p>- 데크로드 설치 : B=1.6m, A162.8㎡</p> <p>- 보도블록 설치 : A 211㎡</p> <p>- 펜스설치 : H=1.2m, L=184m</p> <p>- 화강판석 포장 : A115㎡</p> <p>- 나무조명벤치 : 45개소</p> <p>- 지질게이트 열주 : 3개소</p> <p>- 타일의자 : 1인용 2개소, 2인용 3개소</p> <p>- 배전반 조형물 : 1개소</p> <p>- STS 펜스 철거 : H 1.5m, L 72m</p> <p>- 수목제거 : 4주</p> <p>- 메인포토존 1개소</p> <p>- 별게이트 조형물 H=3.5m, 1개소</p> <p>- 사업비 : 449,725천원(청송군)</p> <p>- 기간 : 23.10. ~ 24. 10.</p>	<p style="text-align: center;">원안가결</p>	<p style="text-align: center;">‘23.10.23</p>
<p style="text-align: center;"><b>보물</b> 강릉 보현사 낭원대사탑비</p>	<p style="text-align: center;">강원 강릉 (○○○)</p>	<p>□ 휴게시설(정자) 이동 설치</p> <p>○ 위치 : 강릉시 성산면 보광리 1170번지 * 문화재보호구역 내(문화재로부터 20m 이격)</p> <p>- 개별심의</p> <p>○ 내용 : 휴게시설 이동</p> <p>- 연면적 : 12.42㎡ / 3.76평</p> <p>- 평 면 : 정면 2칸 × 측면 1칸 ‘一’자형</p> <p>- 지 붓 : 한식기와 / 맞배지붕</p> <p>- 높 이 : 4.15m</p>	<p style="text-align: center;">원안가결</p>	<p style="text-align: center;">‘23.10.23</p>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보물 제주향교 대성전	제주 제주 (○○○)	<input type="checkbox"/> 오피스텔 및 아파트 신축 ○ 위치 : 제주 제주시 원당로 5 * 제5구역(문화재로부터 520m 이격) - 개별심의(32m이상, 3m이상 절토) ○ 내용 : 오피스텔 및 아파트 신축 - 건축면적 : 162.86㎡ - 연면적 : 1,261.64㎡ - 높 이 : 34.61m - 층 수 : 지하1층, 지상11층	원안가결	'23.10.23
국보 군위 아미타여래 삼존 석굴	대구 군위 (○○○)	<input type="checkbox"/> 이동통신 전주 설치 ○ 위치 : 군위군 부계면 남산리 산17-1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약 200m 이격) - 개별검토 ○ 내용 : 이동통신 전주 1본 설치 - 높이 : 16m - 전주지름 : 400mm - 길이 : 1.5m - 안테나 높이 1.3m, 지름 최대 2m	원안가결	'23.11.07
보물 포항 보경사 적광전	경북 포항 (○○○)	<input type="checkbox"/> 내연산보경사시립공원 도로개설 공사 ○ 위치 : 포항시 북구 송라면 중산리 781-20번지 일원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약 130m 이격) - 개별검토 ○ 내용 : 도로개설공사 338m - 아스콘 포장(B=6.0m, L=338.0m) - L형측구 설치(B=0.95m, L=565.0m) - PE이중벽관 설치 - 집수정(43EA) - 수도관, PE오수관 - 조경석(6목) 쌓기(H=2.0~0.5m, L=41.0m)	원안가결	'23.11.07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보물 구미 낙산리 삼층석탑	경북 구미 (○○○)	<input type="checkbox"/> 단독주택 신축 ○ 위치 : 구미시 해평면 낙산리 993, 993-1, 992번지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약 450m 이격) - 개별검토 ○ 내용 : 기존단독주택 철거 및 신축 - 대지면적 : 920㎡ - 주1동(주택) : 1층, 면적 144.36㎡ - 부1동(차고) : 1층, 면적 18㎡ - 최고높이 5.7m(경사지붕) - 외부마감 : 벽돌, 석재타일, 징크패널 등 - 기타 : 5인용 정화조 설치	원안가결	'23.11.07
보물 칠곡 송림사 오층전탑	경북 칠곡 (○○○)	<input type="checkbox"/> 생활용수 개발을 위한 지하굴착 ○ 위치 : 칠곡군 동명면 구덕리 226 * 제4구역(보호구역에서 약 330m 이격) - 지하 50m이상 굴착행위 개별검토 ○ 내용 : 지하수 확보를 위한 굴착 - 사업내용 : 지하굴착 - 굴착깊이/구경 : 100m / 150mm	원안가결	'23.11.07
보물 공주 마곡사 영산전	충남 공주 (○○○)	<input type="checkbox"/> 마곡사 주차장 포장 및 차선도색 ○ 위치 : 공주시 운암리 564-4번지 외 5필지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약 50m 이격), 세계유산 완충구역 - 개별검토 ○ 내용 : 주차장 포장 및 차선도색 - 포장면적 : 4,500㎡ - 소요경비 : 200백만원 - 사업기간 : '23. 11. ~ '24. 3.	원안가결	'23.11.07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p style="text-align: center;">보물 울진 구산리 삼층석탑</p>	<p style="text-align: center;">경북 울진 (○○○)</p>	<p><input type="checkbox"/> 단독주택 신축(변경허가)</p> <p>○ 위치 : 울진군 근남면 구산리 산 179-15번지</p> <p>*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약 470m 이격)</p> <p>- 개별검토</p> <p>* '23년 7월 자체검토 회의결과('23.7.31.) : 원안가결</p> <p>○ 내용 : 단독주택 신축</p> <p>- 대지면적 : 469㎡</p> <p>- 건축면적/연면적 : 93.21㎡</p> <p>- 건물규모 : 지상1층, 높이 5.82m</p> <p>- 건축구조 : 샌드위치판넬, 벽돌마감</p> <p>- 토공 : 터파기, 되메우기 없음, 절토 0.65m</p> <table border="1" data-bbox="555 943 1123 1267"> <thead> <tr> <th>구분</th> <th>이전(7월2차)</th> <th>금회(11월1차)</th> </tr> </thead> <tbody> <tr> <td>옹벽</td> <td>1단 L형옹벽 L=52m, H=4.5m 2단 L형옹벽 L=46m, H=3m~3.5m</td> <td>1단 보강토 옹벽 L=52m, H=4.5m 2단 식생블록 L=40m, H=2.5m</td> </tr> <tr> <td>공사 기간</td> <td>'23.08. ~ '24.07.</td> <td>'23.11. ~ '24.10.</td> </tr> </tbody> </table>	구분	이전(7월2차)	금회(11월1차)	옹벽	1단 L형옹벽 L=52m, H=4.5m 2단 L형옹벽 L=46m, H=3m~3.5m	1단 보강토 옹벽 L=52m, H=4.5m 2단 식생블록 L=40m, H=2.5m	공사 기간	'23.08. ~ '24.07.	'23.11. ~ '24.10.	<p style="text-align: center;">원안가결</p>	<p style="text-align: center;">'23.11.07</p>
구분	이전(7월2차)	금회(11월1차)											
옹벽	1단 L형옹벽 L=52m, H=4.5m 2단 L형옹벽 L=46m, H=3m~3.5m	1단 보강토 옹벽 L=52m, H=4.5m 2단 식생블록 L=40m, H=2.5m											
공사 기간	'23.08. ~ '24.07.	'23.11. ~ '24.10.											
<p style="text-align: center;">보물 경산 팔공산 관봉 석조여래좌상</p>	<p style="text-align: center;">경북 경산 (○○○)</p>	<p><input type="checkbox"/> 팔공산 갓바위 생태탐방로 조성</p> <p>○ 위치 : 경산시 외촌면 대한리 산42 외 3필지</p> <p>*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24m 이격)</p> <p>- 개별검토</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19년 11월 자체검토회의 (2019.11.12.) : 원안가결</p> </div> <p>○ 내용 : 팔공산 갓바위 생태탐방로 조성</p> <p>- 안내판 : 8개소(W=0.7m~3m, H=1.4m~1.8m)</p> <p>- 난간 : 로프난간 73경간(W=1.5m, H=1.2m)</p> <p>- 계단 : 돌계단 27단(W=1.2m), 목재계단 7단(W=1.2m)</p> <p>- 데크A(W=1.5m, L=33.43m), 데크B(W=1.5m, L=32.07m)</p> <p>- 부대공 : 토사밀림 방지대(3단, 각재형, 43경간)</p>	<p style="text-align: center;">원안가결</p>	<p style="text-align: center;">'23.11.07</p>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보물 구례 논곡리 삼층석탑	전남 구례 (○○○)	<input type="checkbox"/> 산림 별채 및 수종 갱신 ○ 위치 : 구례군 구례읍 논곡리 산 53번지 - 제3구역(보호구역에서 146m 이격) ○ 내용 : 별기령에 도달한 소나무를 별채 하고 경제수종인 편백나무를 조림 하여 목재 생산림 조성 - 경영계획구 : 7.6ha - 임목 조림 및 별채 : 6.1ha - 운재로 설치 : 0.53km - 사업기간 : 2023.10.~2024.01.	원안가결	'23.11.07
보물 괴산 보안사 삼층석탑	충북 괴산 (○○○)	<input type="checkbox"/> 우량 농지 조성 ○ 위치 : 괴산군 청안면 효근리 282-1번지 외 3필지 * 제3구역(문화재로부터 475m 이격) - 개별심의(절·성토 3m이상) ○ 내용 : 우량 농지 조성 - 지번 : 282-1전, 282-4전, 282-5전, 545-1전 - 사업기간 : 2023. 11. ~ 2024. 12. 30.	원안가결	'23.11.07
보물 안성 객사 정청	경기 안성 (○○○)	<input type="checkbox"/> 자동차정비공장 신축 및 도로신설 ○ 위치 : 안성시 보개면 상삼리 777번지 등 - 제2구역(보호구역에서 480m 이격) ○ 내용 : 자동차정비공장 2동 신축 및 4m 진입도로 신설 - 연면적 : 755㎡(공장 700, 사무실 55) - 대지면적 : 3,807㎡ - 건축구조 : 단층, 경량철골조 - 지붕구조 : 샌드위치판넬 경사지붕 - 최고높이 : 공장 8.6m, 사무실 5.1m - 사업기간 : 2023.11.~2025.10.	원안가결	'23.11.07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보물 산청 사월리 석조여래좌상	경남 진주 (○○○)	<input type="checkbox"/> 단독주택 신축(변경허가) ○ 위치 : 진주시 천수로 137번길38 * 제1구역(문화재로부터 180m 이격) - 개별심의 ○ 사업내용 : 단독주택 신축(변경) - 대지면적 : 350㎡ - 연 및 건축면적 : 69.10㎡ - 건폐율 / 용적률 : 19.74% ○ 변경사항 - 주1동 : 서측으로 0.7m 이동 - 부1동 : 106° 회전 및 서측으로 2.9m 이동 ※ 관련 심의 - '23. 3.16. : 부결(역사문화경관 저해) - '23. 5.18. : 원안가결	원안가결	'23.11.07
보물 창녕 영산 석빙고	경남 창녕 (○○○)	<input type="checkbox"/> 고계도로 보행로 설치사업 ○ 위치 : 창녕군 영산면 교리 425-1번지 외 50필지 * 지정구역 등 - 개별심의 ○ 내용 : 보행로 설치사업 - 보행로 설치 : L=1,690m, B=1.7~2.0m - 토공, 구조물공, 포장공 - 데크공, 부대공 등(수목이식 159주)	원안가결	'23.11.07
보물 창녕 영산 만년교	경남 창녕 (○○○)	<input type="checkbox"/> 해설사의 집 교체 ○ 위치 : 창녕군 영산면 동리 238 * 보호구역 내(문화재로부터 18m 이격) - 개별심의 ○ 내용 : 해설자의 집 교체 - 면적 : 3.6㎡ → 7.04㎡ - 높이 : 2.7m → 2.6m	원안가결	'23.11.07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p style="text-align: center;">보물 울주 간월사지 석조여래좌상</p>	<p style="text-align: center;">울산 울주 (○○○)</p>	<p>□ 관광호텔 신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울주군 상북면 등억알프스리 533-14</li> <li>* 제3구역(문화재로부터 487m 이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심의(절·성토 3m이상)</li> </ul> </li> <li>○ 내용 : 관광호텔 신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지면적 : 4,397.4㎡</li> <li>- 연면적 : 2,460.8㎡</li> <li>- 높 이 : 19.0m</li> <li>- 건물구조 : 철근 콘크리트구조</li> </ul> </li> </ul>	<p>원안가결</p>	<p>‘23.11.07</p>
<p style="text-align: center;">보물 고령 지산리 당간지주</p>	<p style="text-align: center;">경북 고령 (○○○)</p>	<p>□ 군계획도로 확포장공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고령군 대가야읍 고아리 130-10</li> <li>* 제6구역(보호구역에서 약 300m 이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의 신설 및 확장 개별검토</li> <li>- 3m 이상의 옹벽 개별검토</li> </ul> </li> <li>○ 내용 : 군계획도로 확포장(L=215m, B=20m)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공 : 흙깎기 343㎡, 흙쌓기 1,923㎡</li> <li>- 배수공 : L형측구396m, 우수관로 117m, 우수받이 22개소, U형측구 53m</li> <li>- 구조물공 : L형옹벽 4m, J형 측구 141m</li> <li>- 포장공 : ASP포장 3,015㎡, 인도포장 698㎡, 자전거도로 포장 260㎡</li> <li>- 부대공 1식</li> <li>- 사업비 : 800백만원(고령군)</li> <li>- 사업기간 : 2023~2026년</li> </ul> </li> </ul>	<p>조건부가결 (매장문화 재법에 따라 처리)</p>	<p>‘23.10.23</p>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b>보물</b> <b>청송 대전사</b> <b>보광전</b>	경북 청송 (○○○)	<p>□ 가설건축물(임시창고)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청송군 주왕산면 상의리 205-11</li> <li>*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약 250m 이격)</li> <li>○ 내용 : 임시창고 1동 설치</li> <li>- 배치 : 기존건물 사이</li> <li>- 면적 : 241.57㎡(1층 161.84㎡, 2층 79.73㎡)</li> <li>- 높이 : 6.7m</li> <li>- 구조 : 경량철골조</li> <li>- 외부마감 : 저채도계열 색상 사이딩패널</li> <li>* 가설건축물로 존치기간 만료 시 철거</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           &lt;신청부지 주변 현상변경 통지 현황&gt;         </td> </tr> <tr> <td style="padding: 2px;">           ○ 가설창고 설치(상의리 205-9번지)            -배치 : 기존 건물 사이            -면적 : 18㎡ -높이: 2.6m            -구조 : 경량철골조 컨테이너 강판            ※ 조건부가결(존치기간 2년, 연장 시 재허가/22.2.22.)         </td> </tr> <tr> <td style="padding: 2px;">           ○ 가설창고 설치(상의리 205-11번지)            -배치 : 기존 건물 전면            -면적 : 63.55㎡ -높이: 4.3m            -구조 : 경량철골조            ※ 부결(역사문화경관저해/22.4.11.)         </td> </tr> <tr> <td style="padding: 2px;">           ○ 비가림시설 설치(상의리 205-11번지)            -배치 : 기존 건물 전면            -면적 : 46.20㎡ -높이: 4.15m            -구조 : 경량철골조            ※ 부결(역사문화경관저해/22.7.26.)         </td> </tr> <tr> <td style="padding: 2px;">           ○ 가설창고 설치(상의리 205-13번지)            -배치 : 기존 건물 사이            -면적 : 48.44㎡            -높이 : 3.10m            -구조 : 경량철골조            -외부마감 : 저채도계열 색상 사이딩패널            ※ 조건부가결(존치기간 2년, 연장 시 재허가/22.9.5.)         </td> </tr> </table>	<신청부지 주변 현상변경 통지 현황>	○ 가설창고 설치(상의리 205-9번지) -배치 : 기존 건물 사이 -면적 : 18㎡ -높이: 2.6m -구조 : 경량철골조 컨테이너 강판 ※ 조건부가결(존치기간 2년, 연장 시 재허가/22.2.22.)	○ 가설창고 설치(상의리 205-11번지) -배치 : 기존 건물 전면 -면적 : 63.55㎡ -높이: 4.3m -구조 : 경량철골조 ※ 부결(역사문화경관저해/22.4.11.)	○ 비가림시설 설치(상의리 205-11번지) -배치 : 기존 건물 전면 -면적 : 46.20㎡ -높이: 4.15m -구조 : 경량철골조 ※ 부결(역사문화경관저해/22.7.26.)	○ 가설창고 설치(상의리 205-13번지) -배치 : 기존 건물 사이 -면적 : 48.44㎡ -높이 : 3.10m -구조 : 경량철골조 -외부마감 : 저채도계열 색상 사이딩패널 ※ 조건부가결(존치기간 2년, 연장 시 재허가/22.9.5.)	조건부가결 (-2층 증축부는 제외할 것. -1층은 기존 건물의 전면 입면선을 유지하고, 돌출부는 제외할 것. -존치기간 은 2년으로 하되, 연장시 재허가를 득할 것)	'23.10.23
<신청부지 주변 현상변경 통지 현황>									
○ 가설창고 설치(상의리 205-9번지) -배치 : 기존 건물 사이 -면적 : 18㎡ -높이: 2.6m -구조 : 경량철골조 컨테이너 강판 ※ 조건부가결(존치기간 2년, 연장 시 재허가/22.2.22.)									
○ 가설창고 설치(상의리 205-11번지) -배치 : 기존 건물 전면 -면적 : 63.55㎡ -높이: 4.3m -구조 : 경량철골조 ※ 부결(역사문화경관저해/22.4.11.)									
○ 비가림시설 설치(상의리 205-11번지) -배치 : 기존 건물 전면 -면적 : 46.20㎡ -높이: 4.15m -구조 : 경량철골조 ※ 부결(역사문화경관저해/22.7.26.)									
○ 가설창고 설치(상의리 205-13번지) -배치 : 기존 건물 사이 -면적 : 48.44㎡ -높이 : 3.10m -구조 : 경량철골조 -외부마감 : 저채도계열 색상 사이딩패널 ※ 조건부가결(존치기간 2년, 연장 시 재허가/22.9.5.)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p style="text-align: center;"><b>보물</b> 경산 불굴사 삼층석탑</p>	<p style="text-align: center;">경북 경산 (○○○)</p>	<p><input type="checkbox"/> 불굴사 진입로 우회도로 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경산시 와촌면 강학리 산55-74번지</li> <li>*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약 100m 이격)</li> <li>- 개별검토</li> <li>○ 내용 : 우회도로 개설</li> <li>- 공사규모 : 도로개설 L=205.13m, B=6.5m (아스콘 포장 A=1,046㎡)</li> <li>- 공사기간 : 2023. 10. ~ 2024. 10.</li> <li>- 공 사 비 : 금397,260천원</li> <li>- 시 행 청 : 경산시청(도로철도과)</li> </ul>	<p style="text-align: center;">조건부가결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법에 따라 처리)</p>	<p style="text-align: center;">‘23.10.23</p>
<p style="text-align: center;"><b>국보</b> 영암 도갑사 해탈문</p>	<p style="text-align: center;">전남 영암 (○○○)</p>	<p><input type="checkbox"/> 사찰 방문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변경허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영암군 군서면 도갑리 9번지</li> <li>*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30m 이격)</li> <li>○ 내용 : 관광안내소 설치(간이 컨테이너)</li> <li>- 대지면적 : 24㎡</li> <li>- 건축면적 : 15㎡, 연면적 15㎡</li> <li>- 규모 : 지상 1층, 컨테이너</li> <li>- 최대높이 : 3.21m</li> <li>- 사업기간 : ‘23.10.~’23.12.</li> <li>- 재원 : 군비 50,000천원</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기존 허가사항(‘22.9.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명 : 사찰 방문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li> <li>○내용 : 관광안내소 설치(간이컨테이너)</li> <li>○위치 : 전남 영암군 군서면 도갑리 8번지</li> <li>*보호구역 내(문화재에서 66m)</li> <li>○설치면적 : 20㎡(5×4m)</li> <li>○건축면적 : 12㎡</li> <li>○컨테이너 높이 : 2.5m</li> <li>○허가기간 : ‘22.9.6.~’23.9.5.</li> <li>○허가조건</li> <li>-존치기간 3년으로 제한</li> <li>-연장 필요 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재허가를 득할 것</li> </ul> </div>	<p style="text-align: center;">조건부가결 (존치기간 은 3년으로 하되, 연장시 재허가를 득할 것)</p>	<p style="text-align: center;">‘23.10.23</p>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보물 성주 범수사지 삼층석탑	경북 성주 (○○○)	<input type="checkbox"/> 임시 가설컨테이너(농막) 2동 설치 ○ 위치 : 성주군 수륜면 백운리 1305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약 100m 이격) - 개별검토 ○ 내용 : 컨테이너(농막)2동 설치 - 목적 : 농기구, 농자재 등 보관 - 3.3m×7m×2.3m - 1.7m×7m×2.3m	조건부가결 (존치기간 3년 이후 재심의)	'23.11.07
보물 곡성 태안사 광자대사탑	전남 곡성 (○○○)	<input type="checkbox"/> 태안사 연못 방수 및 능파각 주변정비 ○ 위치 : 곡성군 죽곡면 원달리 16 *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31m 이격) - 개별심의 ○ 내용 - 태안사 연못주변 방수(그라우팅) · 연못길이 : 81m · 주입공수 : 84공(깊이 약 5m) - 능파각 주변 정비(암반제거, 위험수목 제거, 교량확장) · 암반제거 : 5.45m <sup>2</sup> · 수목제거 : 1주 · 교량확장 : 16.95m <sup>2</sup> 증가 * 기존교량 : 폭 7.4m, 철근콘크리트 -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1개월 내 ~6개월 내 - 재원 : 200,000천원(군비)	조건부가결 (시·도문화 재위원회 의견에 따름)	'23.11.07
보물 제천 장락동 칠층모전석탑	충북 제천 (○○○)	<input type="checkbox"/> 가설건축물(농막) 설치 ○ 위치 : 제천시 장락동 77-3 * 제1구역(문화재로부터 137m 이격) - 개별심의 ○ 내용 : 가설건축물 설치 - 대지면적 : 972m <sup>2</sup> - 연면적 : 18m <sup>2</sup> - 높 이 : 2.6m	부결 (역사문화 경관 저해)	'23.10.23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보물 단양 향산리 삼층석탑	충북 단양 (○○○)	<input type="checkbox"/> 단독주택 신축 ○ 위치 : 단양군 가곡면 향산리 618-2 등 * 제1구역(문화재로부터 230m 이격) - 개별심의 ○ 내용 : 단독주택 신축 - 건축면적 : 205.5㎡ - 연면적 : 149.09㎡ - 높 이 : 6.5m - 건물구조 : 철근 콘크리트구조	부결 (역사문화 경관 저해)	'23.10.23
보물 산청 단속사지 서 삼층석탑	경남 산청 (○○○)	<input type="checkbox"/> 창고시설(농가용 창고) 신축(2차) ○ 위치 : 산청군 단성면 운리 275-1번지 * 제1구역(문화재로부터 60m 이격) - 개별심의 ○ 내용 : 창고시설(농가용 창고) - 대지면적 : 457㎡ - 건축 및 연면적 : 112.50㎡ → 94.50㎡ - 높이 : 5.1m → 4.6m - 정화조 단독정화조 5인영 설치	부결 (역사문화 경관 저해)	'23.10.23
보물 경주 남산 탑곡 마애불상군	경북 경주 (○○○)	<input type="checkbox"/> 미디어파사드 상영 ○ 위치 : 경주시 배반동 산72 * 당해 문화재 ○ 내용 : 미디어파사드 상영 - 목적 : 한국의 문화유산을 널리 알리고 예술문화콘텐츠의 다양성 홍보 - 주요내용 : 프로젝터를 이용하여 문화 유산에 빛을 쏘는 형식 - 상영시간 : 일몰 후 10분간 상영 - 사업예정 : '23년 11월 셋째주 중 하루 - 소요예산 : 30백만원 - 특이사항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술매칭 지원사업	부결 (역사문화 경관 저해)	'23.10.23

#### 다. 의결사항

- 원안접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8명 / 원안접수 8명